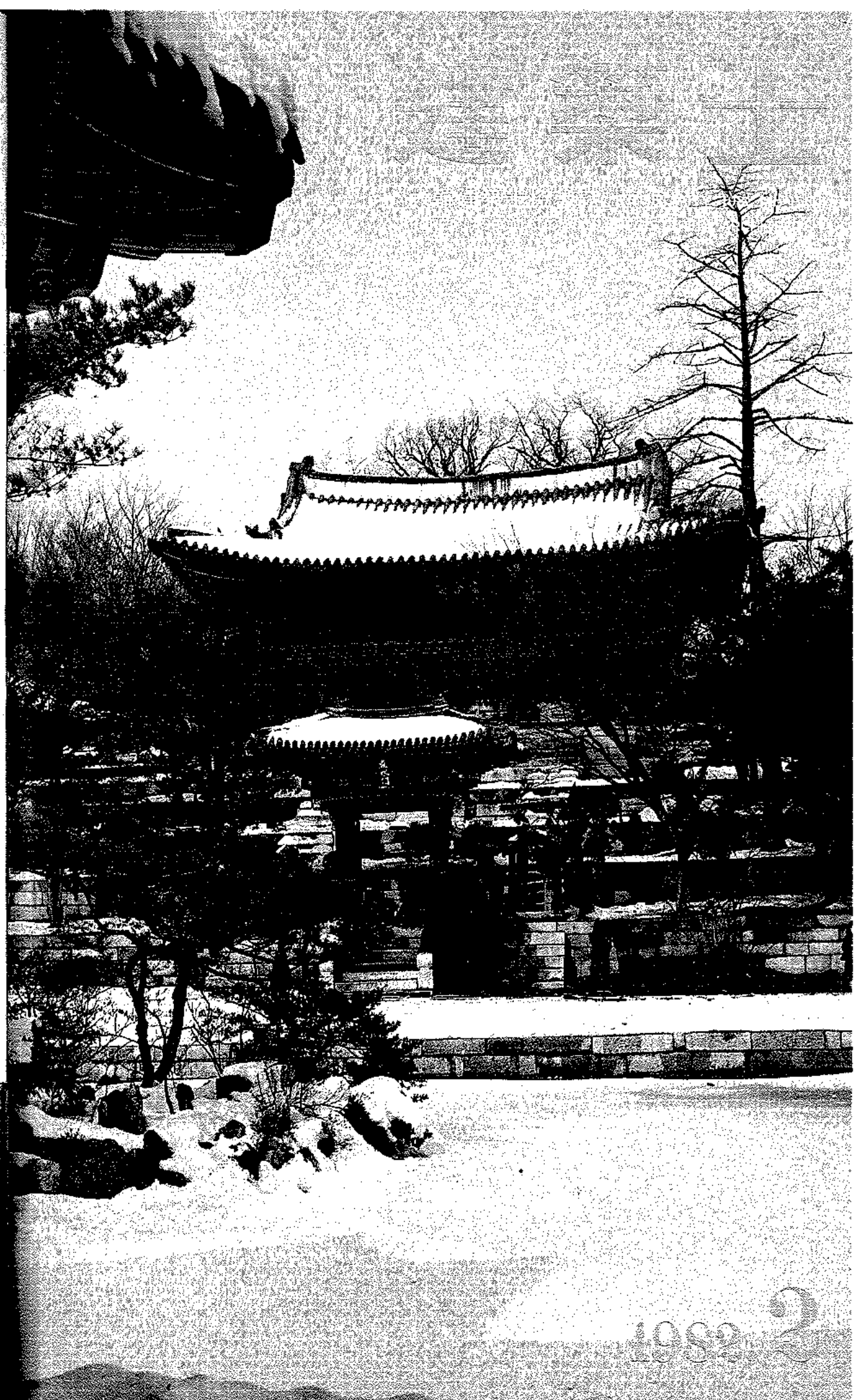




GUM SEONG FIRE PREVENTION

자동화재 속보기 최신형



- 生産
- 自動火災警報器
- 受信機 (Wall Hanging & Console Type)
- 発信機
- 煙感知器 (이온화식 및 광전식)
- 熱感知器 (차동식, 정온식)
- 연탄가스探知器
- LP 및 도시Gas探知器
- 電氣火災警報器
- 綜合防災Control盤
- 非常誘導燈 (백열등 및 형광등용)
- 自動火災속보기
- 設 備
- 自動火災警報設備
- 消火設備 一切
- Sprinkler, Foam設備



自動
火災速報器
119
新型開發
完成

종합방재CENTER



한성 연구 전진하는 기업
金星防災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3외 20
본시및영장 : 955-1161, 2800, 4111, 7177
제 2 공 장 : 444-8117
연구개발실 : 93-1011, 94-8836



月刊 建築士

February 1982, No. 155

U. D. C. 69/72 (054-2) : 0612 (519)

発行所：大韓建築士協会 / 서울特別市 鐘路區 瑞麟洞89 郵便番号：110
光化門郵遞局 私書函 第795番 / 電話 723-9491, ~2, 723-4287, 724-1045
發行人 兼 編輯人：具 珉 官 / 登録番号：第21-1251 / 登録：1967.3.23
発行：1982.2.1 非売品 / 印刷人：郭 得 龍 (三文印刷所 / 281-7676)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目次

1982.2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155호
주인년월일	1982.2.1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건축도지부	건축도지부

淨化運動의 展開와 그 方向	李康植	4
輕量콘크리트를 P.C構造物에 使用하였을 때의 經濟性 瞻星臺의 機能에 대한 考察	金亨杰	17
✓ 氣溫變化로 인한 建物の 龜裂防止에 관한 研究	姜泰辰	19
✓ 우리나라 양통집의 平面에 대한 研究(完) : 連載	任南宰	23
	金鴻植	26
講 演 人間과 自然이 調和된 建築 필요	아르놀트·괴르테	36

會員作品

● 전주 예수병원 증축공사	(석림건축연구소) 朴商浩	38
● 중소기업은행 마포지점	(공일건축연구소) 公日坤	40
● 광일빌딩	(공신건축연구소) 俞天濤	42
● K씨주택	(동서건축연구소) 金雄政	44

海外特選	老弱者를 위한 住居設計	李在玉	45
	現代建築에 있어서의 五大이즘(完) : 連載	Kenneth Frampton	58
	建築家の 現在像 / 왜 건축가를 지망하는가?	田中清	61

✓ 건축물의 단열시공법(I) : 連載	李鍾寬	65
韓國 大學建築教育의 問題點	林忠伸	52

칼 럽	“88을 위하여”	22
	건축행정 / 질의응답	72

□協會消息	5	□建築界뉴스	11
□법 개정내용	77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수정안)	78
□건설업및 주요 경제지표	85	□회원문예	86
□신입회원	87	□회원동정	87

淨 化	가르샤將軍에게 보내는 메시지	앨버트 후버드	34
-----	-----------------	---------	----

□표지설명 / 글·촬영 / 임정의

編纂委員會

□ 눈 덮인 古宮의 뜨락~,
도시의 한 가운데 우리는 이런 소
중함을 간직하고 있다.
이끼진 우리의 歷史, 감추인 술
한 사연들을 머금고 나래를 편저
추녀의 자태~,
메마른 都心 속에서 무한한 傳統
의 자양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委員長 朴商浩
委 員 李明浩
“ 姜健熙
“ 朴勇煥
“ 李榮一
“ 金漢根
“ 金基哲
“ 姜哲求
“ 趙東榮





淨化運動의 展開와 그 方向

李 康 植 (본호김사·(주) 완중합선계대표)

사회정화운동이 시작된지도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이 운동은, 3대 정화이념인 正廉·秩序·創造로 사회의 비리와 폐습을 추방하고 사회개혁과 정신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마련하는 터전이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노력에 의한 사회정화운동이야말로 時代的인 요구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바램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우리 국민은 근세기에 들어 서면서 온갖 시련과 싸워야만 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생존경쟁을 일삼아 적지않은 모순과 부작용을 초래해 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인간경시 풍조와 물질우선·황금만능, 그리고 이기주의가 범람하는 사회풍토 속에서 심리적·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정치적·사회적인 불안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풍토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經濟成長과 社會發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정화운동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옳은 것은 찾아내어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운동으로서, 이는 사회의 지도층에 의해 제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으며 여기에 精神的改革이 수반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개혁운동은 결실을 맺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정화운동이야말로 참된 改革意志인 것이다.

정화운동은 바르게 살기 운동이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운동이기도 하다. 이는 순리에 의한 원칙대로 살고 공익을 앞세워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正義가 지배하는 사회를 이룩하려는 운동인 것이다.

사회정화운동은 계속적이며 영원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실이 가능한 것이기에 즉흥적인 구호나

형식·보고절차보다는 전국민이 일체감을 갖고 호흡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이고도 강한 실천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지가 조성될 때 계획성은 현실성으로 나타나게 되며, 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 운동은 끝없이 전개해 나가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이 운동은,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승화시켜 더 이상 과거의 비리와 폐습을 답습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 발전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발돋움의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

정의사회란 원리원칙의 설정과 제원칙의 준수로서만이 보장될 수 있다. 때문에 국민 각자가 올바른 사회관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廉潔社會에 적합한 市民倫理를 함양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이제 사회정화운동의 기반은 구축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외형적 부조리는 현저하게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風土改善을 위한 여건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화운동의 이념과 추진방향을 提擧시켜 나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의 재편성과 공중질서확립·분수 지키기·청탁배색 등의 과제를 지속시키는 한편, 직업윤리관의 확립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이 운동의 주체가 되고, 지도층 인사와 공직자가 적극적인 정화자세를 확립하여 비합리성을 추방하는 문제이다. 이제야말로 정화운동은, 관료적 방식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타율적·수동적 자세에서 자율적·적극적인 자세로, 형식적 활동에서 실질적 활동으로, 객체적 입장에서 주체적 입장으로 전환시킬 때인 것이다.

前近代의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출발했던 60년대 초의 재건국민운동을 우리는 기억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목표가 분명했다 하더라도 관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체계와 지도기능이 순수 민간기능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특히 하향식이고 주입식에서 비롯되는 거부감과 이탈현상이 역기능으로 나타났던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의지의 결집과 동참의식이 단절되는 현상 등의 문제가 이 운동의 실패원인이었다.

한편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가난을 벗어 버리고 잘살아 보자는 취지로 출발하여 모든 것을 소득과 연결짓는 경제건설운동으로서, 70년대를 새롭게 장식한 국민운동이었다.

한때 10·26사건으로 이 운동의 구심점이 흔들렸었지만, 80년대 말, 잘살되 바르게 잘살자는 새시대의 사회정화운동과 제도를 나란히 하면서 제길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한 시대를 변혁시켰던 이 운동은 일선 행정력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업적위주의 지나친 경쟁과 현장여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집행으로 하여 부작용에 의한 부정적인 여론이 모아 지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국민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시대와 사회를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선과 악, 정당과 부당의 구분이라는 진리를 실감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近代化라는美名아래 전통적인 도덕질서를 방관하여 미풍양속이 퇴색해 가고 있다. 이러한 차질에 사회정화운동에 대한 전국민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동참의식을 통하여 지속된다면, 정화이념은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릴 것이며 정의사회는 앞당겨 질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많은 국민운동의 시행착오에서 탈피한다면, 국민사회에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로서의 사회정화운동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

정기이사회 개최

올들어 두번째로 정기이사회가 지난 2일 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琬會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부의 안건등이 논의되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자중회의 개최사항과 인천직할시지부이전, 고문변호사

위촉, 독일교수초빙 강연회, 회장 단 해외출장등이 보고되었다.

부의 안건에서는 회원작품 전시회 개최의 건을 비롯해서 건축연구위원회 결정사항 승인외 건, 82년도 제 1회 추가 경정예산서 심의, 지부 임대보증금 인상, 기타사항등이 논의 되었다.



제 1 회 지부장회의 개최

을 정책목표·순회전시회등 협의

올들어 첫번째 시도지부장회의가 지난달 28일 오후에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具琬會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가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전제하고 "이제 82년에는 지난해를 기울삼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서 발전하는 해가 되도

록 협회를 구심점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연말 이사회에서 가결된 각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보고를 비롯해서 김해분소 업무개시, 대구및 인천직할시지부의 사무실 이전과 지부설치, 협회고문변호사 위촉, 인사 발령, 독일 "다름수

타트" 공대교수 초빙 강연회 개최 계획 보고등이 있었으며 그밖에 82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전망도 보고 되었다.

협의 사항으로는 82년도 협회정책 목표 설정이 논의되었으며, 82년도 3월 임시총회에 대비한 제반 사항등도 아울러 논의 되었다.

또 남세조합 설립추진, 회원작품전시회 개최의 건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회원작품 순회 전시회 계획은 건설부의 지원으로 오는 5월초부터 6월말까지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주요 작품은 대형오피스, 공공건물, 주택설계 작품등 모두 50여 작품으로 서울과 지방 회원 작품등을 골고루 묶어 첫 순회 작품 전시회를 갖게 된다.



회관건립위원회 열어

제 1 회 정화추진 중앙위도

한편 이보다 앞서 본회 회의실에서 는 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인 회관건립위원회(위원장 具琬會)와 역시 제 1회 정화추진중앙위원회가 각각 열렸다.

먼저 진행된 회관건립위원회에서는 현황보고로 본회건물에 대한 현황과 서울시의 서린지구 재개발사업계획현황 등이 보고 되는데 이어 끝이어서 토의 안건 처리로 들어갔다.

토의 안건에서는 회관건립에 대한

추진전으로 먼저 본부와 서울지부와 의 지분분배에 관한 문제, 이전과 동시 신축여부 문제등이 논의 되었다.

이 모임에서 회관건립을 위한 소위원회를 편성키로 하고 현재 21명의 위원중 9명의 위원을 선임,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토록 위임했다.

회관건립 소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구윤회 △위원: 장기인 한창진·최창규·박우하·이승우·송관식·이춘상·김지태

이어서 열린 정화추진 중앙 협의회는 구윤회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협의사항으로 국가사정업무 5개년 계

획의 기본방침에 따른 체계적인 예방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 되었으며, 그밖에 82년도 국가사정업무에 준한 본회의 구체적인 업무계획등이 논의되었다.

또 82년도 정화추진방향과 정화이념의 확산방향, 청탁배격 추진방향등이 협의되었고, 특히 협의회 위원 결의표명이 있었다.

결의내용은 가. 우리 건축사 회원일동은 건축행정법규와 질서를 준수하고 모든 부정 비리를 추방한다. 나. 우리 건축사 회원일동은 품위보존과 신뢰회복에 정진한다. 다. 우리 건축사 회원 일동은 국민을 제도와 정의사회 실현의 선구자가 된다.

具琬會회장 東南亞各국 방문 건축계 돌아보고 共同体결성 타진

具琬會회장은 지난 5일 자유중국을 비롯한 6개국 방문을 위해 김포공항을 떠났다.

金枝泰서울지부장과 함께 출국한 具회장은 동남아 각국의 건축계 현황과 특히 건축사의 활약상을 살펴보고 이들 나라와의 상호유대관계를 통한 새 기술교류와 나아가 건축문화의 비교

발전을 위한 공동체구축을 모색하고자 상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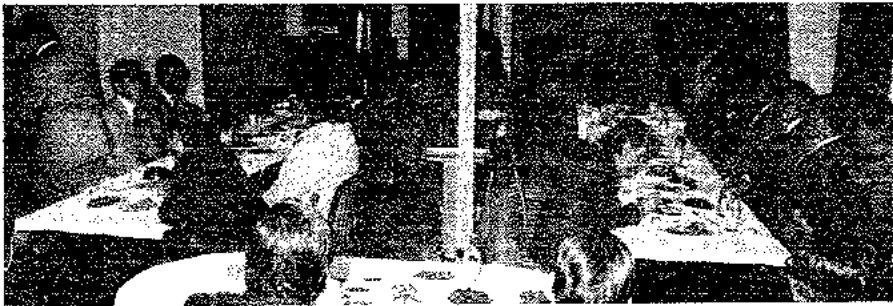
2월 21일 까지 17일 간의 여행에서 具회장은 먼저 자유중국에 들러 대만 건축사 협회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어 홍콩과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 각국의 건축사협회를 차례로 찾을 예정이다.

이들 나라에서 具회장은 건축계 전반에 대한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과 동남아 각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동남아건축사 대회결성등을 사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具회장은 지난해 7월 태국 우네타와이 건설동우협회로 부다양국간의 국제교류에 필요한 의견 교환을 위해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길에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년 鼎談모임 가져

40여會員들 참석.....성황“회원 위한 협회육성에 노력할터”



새해를 맞아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고 새로운 전기마련을 위한 신년정담모임이 지난달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역대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및 임원 등 4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 이날 모임에서 具琬會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회원을 위한 협회로 장족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을 때 바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의 모임은 모임 자체만의 의의외에 협회발전을 위한 조언을 얻는데 더 뜻이 있다”고 말하며 참석회원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이어서 참석회원들은 조출한 다과를 나누며 협회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특히 장 기인회원(본회 전회장)은 협회 발전을 위해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 세

조유에 따라 의식구조를 바꾸는 도량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기인회원은 이어서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며 말하고 바로 이런 것이 정신의 민주화가 아니겠느냐고 말해 참석 회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 상 봉진회원도 “오늘과 같은 모임은 협회사상 처음있는 일 인것 같다”고 회고하고 매우좋은 아이디어로 협회발전에 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모임으로 해서 많은대화를 나눌 때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해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창규회원도 진정된 대화를 나누고 다른 분야와 같이 건축사제도 획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져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 김 원안회원도 모두가 협조해서 지위향상에 노력할 때 라고 말하고 책임있는 협회운영을 위해서는 회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규복회원은 단합된 힘만이 어려운 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묘안이 된다고 지적하고 뭉칠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협회임원으로 일했던 김정철회원도 그간의 소감을 밝히고 작은 일부터 착수해서 큰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의 품위를 지켜 사회가 인정하는 자재마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축계의 단합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건축 3단체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본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박 우하회원도 지난해까지 이 사로서 재임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마련에 힘쓰자고 말했다.

김 지태서울지부장은 인사말에 이어 지부를 자주 찾아 대화기회를 많이 가지고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모임을 마무리지으며 具회장은 협회발전을위한 많은 조언을 반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대화의 기회를 자주 가져 회원을 위한 회원의 협회로 성장시킬 것을 다짐했다.

인천지부 이전자축회

안보교육·정화결의대회도



올들어 새로 발족한 인천지할시 지부(지부장 金晶洙)가 지난달 30일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출한 이 전자축회를 가졌다.

이해운국장을 비롯한 4명의 직원들은 지난 1개월간 회원 업무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고 이날 지부사무실도 확장 이전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했다.

인천시 건설국장을 비롯한 건축과장, 그리고 본회 임원진과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이 전자축회에서는 새로 출발하는 동 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조출한 다과회가 있었다.



한편 이날 자축회에 앞서 송영길 인천시 건축과장 주관 아래 안보교육이 실시돼 참석회원들의 안보의식 고취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이보다 앞선 22일에는 인천시 가톨릭회관 401호실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건축행정실무교육과 정화운동을 의식혁명으로 승화하기 위한 결의문제택등이 있었다.

건축연구위원회 개최

7개분과로 확대키로

제 1회 건축연구위원회(위원장 宋鶴峰)가 새로 선임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오후에 열렸다.

본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패가 전달되었으며 具疏會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협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올해는 좀더 가능성을 부여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로 성장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송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연구위원회의 전반적인 체계를 바꾼, 종래의 연구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기로 하고 7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모두 7명으로 했으며 분과위원장을 연구위원회위원으로 하고, 협조위원 1명을 두기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각분과위원회 명칭과 위원장 및 협조위원은 다음과 같다.

- △ 법률분과위원회 = 박우하(위원장) 정인협(협조위원)
- △ 도시환경 " = 김진일(위원장) 장석웅(협조위원)
- △ 구조 " = 유경철(위원장) 장배수(협조위원)
- △ 설비 " = 윤봉원(위원장) 한종언(협조위원)
- △ 시공·재료 " = 신현식(위원장) 유규성(협조위원)
- △ 전통건축 " = 장가인(위원장) 한정섭(협조위원)
- △ 설계도서 " = 이승우(위원장) 김대식(협조위원)

한편 각분과의 위원선임과 연구계획, 예산등은 분과위원장이 추후에 결정 제출키로 했다.

제 2회 편찬위원회 열어

제 2회 편찬위원회(위원장 朴商濤)가 지난 3일 오후에 본회 회의실에 있었다.

2월호 편집계획 수립과 회원작품 특집계획을 확정 지은 이날 회의는 먼저 지난 1월호에 대한 합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월호 합평에서 참석위원들은 사진 인쇄 상태의 불량, 일부 레이아웃의 부조화, 편집순서의 혼란등을 지적했으며 이를 감안한 2월호 편집계획을 확정했다.

2월호에는 회원작품 4점과 논문등 5점이 게재케 되었으며 새로 편집후기난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회원작품특집은 4월과 9월에 북한주거 작품과 지구계획, 주거작품과 공공시설(근린시설) 작품등을 각각 수집게재키로 확정했으며 이와 병행해서 관련 논문을 전공하는 필자에게 맡겨 임체적인 작품특집을 하기로 했다.

회관 4층에 자료실 마련

각종자료 연차적으로 구비
회원기증도서도 접수

회원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기술·정보·기타)를 모아 필요할 때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마련했다.

본회는 새해에 들어 많은 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관 4층의 기존회의실을 넓히고 아울러 자료실을 뒤 건축가술에 관한 각종자료는 물론 회원업무와 관련되는 국내외의 도서류를 연차적으로 갖춰 본격적인 자료실운영을 계획하고있다.

회원이면 누구나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 될 자료실은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회 자체에서 구입하는 도서자료외에 회원들의 도서류를 기증 받아 명실공히 회원에 의한 회원의 자료실로 키우기로 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있다.

서울복지회서 입학보조비 지급

모든 학생에 2천 8백여만원

서울 건축사 복지회(회장 李奉魯)가 지난 81년도부터 5개년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회원자녀 입학보조비 지

원사업이 2차년도인 올해에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초·중·고·대학에 진학하는 회원 자녀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입학 보조비는 취학통지서 사본, 입학급납 입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만 갖춰 복지회로 제출하면 즉시 지불되도록 조치하고있어 인기가 좋고, 특히 자녀들로 하여금 건축사 학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긍지를 심어 줘 일거양득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297명의 학생들에게 총 2천 1백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약 389 명에게 2천 8백77 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급별 예상인원은 국민학교 70명, 중학교 123, 명, 고등학교 111명, 대학교 85명이며 이미 지난 2월 1일부터 접수중이다.

경북지부 복지회 창립

경북지부는 지난해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자기 별도로 지부를 갖게 돼 복지회도 따로 결성, 창립총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9일 지부사무실에서 동지부회원들로 구성된 경북건축사지부 복지회를 새로 발족시킨 이날, 간단한식을 갖고 총회원 52명 가운데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선출 및 복지회 회칙을 마련했다.

정기 감사 일정 수립

오는 3월의 임시총회에 대비한 본회 자체감사 일정이 짜여졌다.

오는 2월 15일 경북지부로부터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는 윤 옥감사와 이강식감사가 81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사업실적, 결산, 정화업무, 불자결약 업무 추진 내용을 비롯한 협회업무 전반에 걸쳐 살펴 보게 된다.

지부별 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경북지부(2.15~16일) △부산지부(2.17~18일) △경남지부(2.19~20일) △전남지부(2.22~23일) △전북지부(2.24~25일) △충남지부(2.26~27일) △충북지부(3.2 ~ 3일) △경기지부(3. 4~ 5 일) △강원지부(3. 8~ 9 일)

△제주지부(3.10~11일) △서울지부(3.12~13일) △본부(3.15~16). 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司正업무 5개년계획 수립

금년도 계획 확정

본회 82년도 사정업무계획 및 동 업무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사정업무계획은 건설부 계획에 의거 본회 실정에 알맞게 계획된 것으로 5개년계획의 기본 추진방향은 ①장단기 계획에 의한 예방 활동 ②부정·부패·부조리의 증점 제거 ③핵심부분에 대한 우선정화로 과급효과 거양 ④교육홍보를 통한 계도에 두고 있다.

이에따른 연도별 중점 활동 내용은 ①청렴도 진단체계 구축과 ②회원 및 임직원의 풍토쇄신 ③ 건축사 업무의 비리제거 ④제도 및 환경개선 ⑤사회정화운동을 통한 의식개혁 등 부문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82년도 사정업무계획의 근간은 건축사 업무 수행의 폐쇄와 부정·비리의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제거, 직장정화운동을 통한 의식구조 개혁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지부별로 정화운동 활발

토론회·정신교육 심층화

지난 1월중 각 지부별 정화 및 정탁배격 운동은 지난해의 활성화 단계를 지나서 정착화 내지 생활화로 탈바꿈 하면서 새로운 의욕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18일 자체교육시간을 가지고 사회기강 확립과 시민정신고취에 대한 내용으로 김 지배지부장이 직접 실시 한데 이어 그보다 앞서 지난 1월 4일에는 사무국장에 의한 정신교육이 있었다. 그밖에 82년도 동 지부 정화추진위원을 19일에 위촉,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지태 △부위원장=김형인 △위원=이종완·민경진·김봉훈·이만재·주영근 △간사=김정원

부산지부도 분수지키기, 직원근무기 강화립을 중점으로 해서 회원사무소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계도공문을 보내며 이어 모범선행사례의 전파, 건축행정제도 개선 등의 등으로 다각적인 정화운동을 폈다.

또 19일에는 정화추진 위원회를 개최해서 국가사정업무 계획에 대한 교육홍보, 정화 및 청탁배격과제선정, 회원업무 계도 공문발송등에 관한 건을 심의 했다.

부산지부의 새로 선임된 정화추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장기수 △부위원장=이상부 △위원=허 태(핵심위원), 강식근, 김규태, 허하구, 송국웅, △간사=전성기

대구지부는 회원주변에 산재된 유사명칭을 조사해서 이를 시정토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실적을 거두었으며 지난 20일에는 정화위원회를 열어 정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을 심의한데 이어 결의대회를 통한 정신교육을 갖기로 했다.

대구지부의 새로 선임된 정화추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재우 △부위원장=이종만 △위원=김건일, 김인호, 김영두, 민창기, 이송기, 김중배, △간사=김홍업

경기지부는 불우이웃돕기, 거리질서 캠페인, 자연보호실시를 통한 정화운동의 정착화에 힘썼다.

특히 지난 5일에는 회원들로부터 모은 성금 70만원을 경기도에 기탁해서 불우이웃돕기에 앞장 섰으며, 안양시 소재 회원 30여명은 1월 4일부터 31일까지 거리질서지키기 캠페인에 출전해서 정화운동의 생활화에 노력했다. 또 의정부 소재 회원들은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도봉산 일대에서 자연보호를 위해 땀을 흘리기도 했다.

경기지부의 새로 선임된 정화추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석구 △부위원장 = 임용수 △위원=서낙규, 이종은, 차주복, 정진민, 조병원 △간사=권중호

강원지부는 활동과제인 질서관념체질화, 분수지키기, 직원근육기강확립을 철저히 수행해서 동 운동의 심화에 힘썼다. 한편 지부 정화추진 위원회를 열고 위원을 정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국남 △부위원장 = 최병욱 △위원=원호창, 민병협, 김길창, 조정호, 황기정 △간사=김창남

전북지부의 경우 지부장을 위시한 정화위원이 각 설계사무소를 방문해서 정화 및 청탁배격에 관한 정신교육을 실시 한데 이어 지난 4 일과 19일에는 자체교육을 실시, 동 운동의 적극 추진에 힘썼다.

전북지부의 새로 선임된 정화추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문상식 △부위원장 = 전형직 △위원=박옥규, 허 만, 조재현, △간사=양태준

전남지부도 업무수탁 이전에 현장조견확인, 계약체결이행, 신청서류의 완비, 시공 및 감리의 불실 방지 등 활동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

전남지부의 새로 선임된 정화추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영식 △부위원장 = 최수일 (핵심위원) △위원=송양석, 박무길, 오용갑, 강인수, 구천모 △간사=정동주

경북지부는 정화운동 촉진 토론회를 열어 동 운동의 정착화에 노력한데 이어 19일에는 자체교육을 통해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경북지부의 새로 선임된 정화추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손재수 △부위원장 = 최종배 △위원=송재성(핵심위원), 전

성팔, 김영태, 조성현, 김봉일, 양병모, △간사=이재화

한편 경남지부의 지난 1월 정화운동 추진 내용은 기관장환화, 위원회개최, 토론회등을 깊이있게 전개했다.

또 예산절약에 노력해서 2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 15만원을 마련해서 마산 및 진주시청에 기탁했고, 방위성금 30만원을 조성, 역시 마산시청에 전달했다. 그밖에 자매부락을 돕기위해 15만원의 위분금을 각출해서 외창군 진전면 대방마을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남지부의 새로 선임된 정화추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조태화 △부위원장 = 노은섭 △위원=허효웅(핵심위원), 김정수, 최봉형, 정규철, 김기철 △간사=김순규

제주지부도 토론회, 정신교육을 통한 동 운동의 심층화에 주력해서 지난 15일과 18, 19일에 각각 실시했다.

정화촉진토론회는 지난 15일 지부회의실에서 회원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덩핑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폭 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제주지부의 새로 선임된 정화추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수현 △부위원장= 양창완 △위원=강요준, 강은홍, 이세환, △간사=홍진호

本會업무분장 확정

82년도 본회 각 부서별업무내용 및 직급별 담당업무가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무부

1. 정관 및 제규정의 운영과 조직관리 에 관한 사항.
2.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3. 직인사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복무자세 감독에 관한 사항
5. 물품발주 및 계약에 관한 사항
6. 각종회의의 준비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7. 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
9.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0. 특명에 관한 사항
11. 인사에 관한 사항
12.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3. 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4. 각종 행사 및 의식에 관한 사항
15. 보존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16. 상훈에 관한 사항
17. 동기에 관한 사항
18.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회지 발송에 관한 사항
21.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2.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23. 홍보에 관한 사항
24. 물자 절약에 관한 사항
25.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26.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유류포함)
27. 본부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28. 본부 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29. 각종 세금 공제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0. 직원 퇴직적립금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31.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사항
32. 금고관리에 관한 사항
33. 결산에 관한 사항
34. 광고료 수금에 관한 사항
35. 전국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36. 전국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37. 본부 및 지부 자금영달에 관한 사항
38. 본부 및 지부 대출금 관리에 관한 사항
39. 본부 및 지부 대출금 관리에 관한 사항
40. 은행출입에 관한 사항
41.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42. 회의실 정리 정돈에 관한 사항
43. 타자에 관한 사항
44.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부 장

1. 총무부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에 관한사항
2. 정관 및 제규정의 운영과 조직관리 에 관한 사항
3.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4. 직인사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복무자세 감독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중요한 사항

□ 과 장

1. 총무과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에 관한 사항

2. 물품발주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각종회의 준비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
6.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7. 특병에 관한 사항

□ 인사담당

1. 인사에 관한 사항
2.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각종행사 및 의식에 관한 사항
5. 보존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훈에 관한 사항
7. 등기에 관한 사항
8. 광고료 수급에 관한 사항

□ 서무담당

1.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지 발송에 관한 사항
4.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6. 홍보에 관한 사항
7. 물자 절약에 관한 사항
8.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 서무담당

1. 타자에 관한 사항
2.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3.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유류포함)

□ 경리과장

1. 경리와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 결산에 관한 사항

□ 본부 경리담당

1. 본부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2. 본부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3. 각종세금 공제 및 납부에 관한 사항
4. 직원 퇴직적립금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5. 세금 계산서 발행에 관한 사항
6. 금고관리에 관한 사항
7. 결산에 관한 사항
8. 은행출입에 관한 사항

□ 전국 경리담당

1. 전국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2. 전국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3. 본부 및 지부 자금영달에 관한 사항
4. 본부 및 지부 상조회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본부 및 지부 대출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결산에 관한 사항
7. 은행출입에 관한 사항

□ 회장실담당

1. 손님접대에 관한 사항
2.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의실 정리정돈에 관한 사항
4. 타자에 관한 사항

기획조사실

1. 사업계획 작성 및 추진
2. 정책 사업 연구 및 추진
3. 예산 편성 및 배정
4. 자금 운영 현황 유지
5. 도서관고 현황 분석
6. 회원 행정처분 현황분석
7. 전국 회원 분포 현황 파악
8. 정화위원회 개최
9. 정화운동 전개
10. 정화운동 자체교육 실시
11. 청탁배격 운동 전개
12. 각종 자료 조사 및 통계 유지
13. 자체 정기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14. 특별 감사 활동 실시
15. 사정관계 업무 보고
16. 감사관계 업무 보고
17. 윤리위원회 관장
18. 이사회 자료 준비
19. 기타 지시 업무 수행

□ 실 장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정책사업 연구 및 추진
3. 예산 운영 방침 수립
4. 사업별 세부 대책 강구
5. 감사 업무 및 특별 감사 활동
6. 정화 위원회 업무
7. 각종자료의 심사 분석

□ 기획과장

1. 수지예산서 작성
2. 추경 예산계획서 작성
3. 매월 지부별 자금 배정
4. 정화 및 청탁 업무 주관
5. 감사관계 업무 주관
6. 사정관계 업무 주관

□ 서무담당

1. 도서관고 현황 분석
2. 각종 통계 자료 정리 및 유지(회원 현황, 행정처분 현황 등)
3. 정화관계 서류관리
4. 감사관계 서류관리

기술부

1. 건축관계 법령의 개정 연구
2. 건축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3. 건축연구 위원회 운용 추진
4.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감점 업무
6. 각종 질의 회신 및 전화 응답 처리

7. 회원간의 기술관계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8. 회원 지도 활동
9. 회원 사무소 실태조사
10. 건축설계 경기 운용에 관한 사항
11. 각종 기술자료의 제작 배포 및 관리
12. 기획조사실의 회원 윤리 및 진정에 관한 업무 협조
13. 출판사업부의 건축사지 게재용 원고 협조
14. 대관청 출입 연락 업무
15. 기술자로 책자 관리
16. 기타 수시 발생 업무 처리

□ 부 장

1. 기술부 업무 전반에 대한 관장 및 통제
2. 건축관계 법령의 개정 연구
3. 건축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4. 회원간의 기술관계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5. 회원 지도 활동

□ 기술과장

1. 건축물 감점 업무
2. 회원 사무소 실태조사
3. 건축설계 경기운용에 관한 사항
4. 각종 질의 회신 및 전화 응답처리
5. 기획조사실의 회원 윤리 및 진정에 관한 업무 협조
6. 기술자로 책자 관리(도서실 책임)
7. 기타 수시 발생 업무

□ 지도담당

1. 건축연구위원회 운용 추진
2. 회원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술자료의 제작 배포 및 관리
4. 각종 질의 회신 및 전화 응답처리
5. 출판사업부의 건축사지 게재용 원고 협조
6. 대관청 출입 연락 업무
7. 기타 수시 발생 업무 보조

출판사업부

1. 회지 발간 작업
 - 1) 편집회의
 - 2) 편찬위원회 주관
 - 3) 기사취재
 - 4) 기사작성, 원고 수발(원고, 사진)
 - 5) 편집작업
 - 6) 인쇄 작업
 - 7) 광고업무
2. 홍보 사업
 - 1) 대외 홍보사업
 - 2) 대외 원고작성
 - 3) 기타 홍보와 관계되는 문안작성
3. 기타사업

- 1) 전시사업 (자재, 작품전시 등)
- 2) 국제교류 사업
- 3) 회원 명부 발간사업
- 4) 기타 관계사업 등

□ 부 장

1. 회지 발간 판장 및 통제
2. 회원복지 후생사업 추진
3. 전시회 및 국제교류 사업

□ 출판과장

1. 편집 주관 및 부장보좌
2. 기사 작성 및 원고 수집
3. 원고의 수정 및 정리
4. 인쇄 및 발간 감독
5. 광고 수집

□ 편집담당

1. 기사 작성 및 원고 수집
2. 취재 및 촬영 활동
3. 원고 수정 및 정리
4. 인쇄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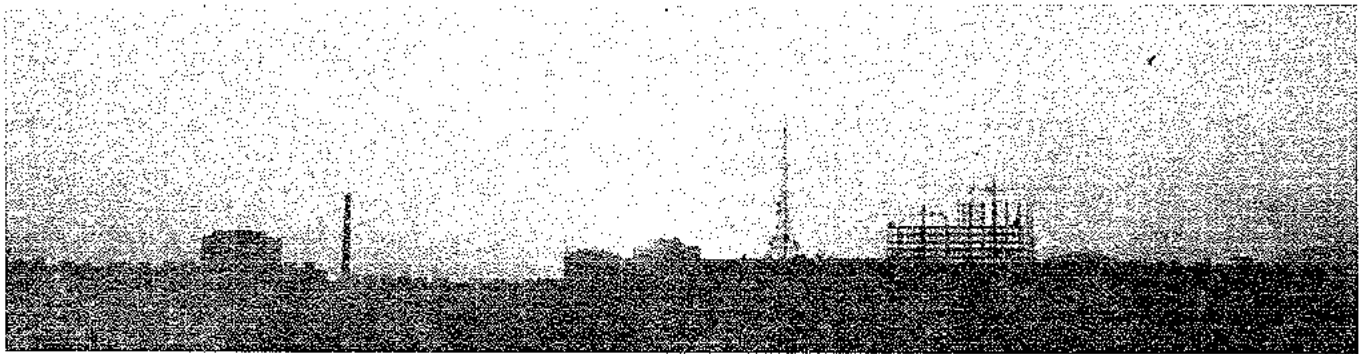
□ 편집담당

1. 기사작성 및 원고수집
2. 편집 디자인 작업
3. 원고 수정 및 정리
4. 인쇄작업

□ 편집보조

1. 기사 교정
2. 편집 보조
3. 원고 정리
4. 자료 정리

建築界뉴스



소형 賃貸住宅建設 적극 지원 建設部 올해 主要業務計劃 보고

전 두환대통령은 지난 2일 건설부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건설부는 이날 보고에서 건설시책방향을 80년대 민주복지사회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및 국민생활환경개선 등에 두고 임대주택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용면적 13평 이하의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리 5% 이하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주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동시 宅地는 土開公에서 영가로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시범사업으로 공공부문에 서 올해 13평짜리 임대아파트 3천가구를 지어 보증금 1백64만원, 월임대료 2만8천원 내외에서 임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분양주택 건설업자

와 최초 입주자가 2중으로 물던 등록세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설업자는 면제하고 취득세는 분양가격 기준에서 내부부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바뀌 세금을 싸게 해주고 아파트지구 이외라도 25평 이하의 집을 짓는 50평 정도의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부문에 있어서는 도시의 쾌적한 공간관리를 위해 地区計劃制度를 새로 도입,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구계획제도는 도시계획에 있어 구획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높이·형태·필지의 규모·용적율·건폐율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 이 계획에 의해 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 제도의 추진방안을 오는 4월의 공청회 등을 통해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현재 구획정리사업 또는 시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가락동·올지로·광화문·종로·전북의 합영·경남의 충무 등을 대상으

로 지구계획에 의한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발방식을 바꿔 건설업체 등 제 3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틀뿐 아니라 서울시에 도시재개발공사를 설치, 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개발공사 설립자금은 60억원으로서 그동안 서울시가 거두어 들인 도시계획세 중, 적립금 60억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개발방식도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있는 복합건물을 많이 지어(職住近接化)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의 경우, 4층까지는 상가 및 사무실로 활용토록 하고 그 이상은 아파트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또 이날 보고에서는 88서울올림픽에 대비, 도시재개발공사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와 복합건물에, 먼저 재개발사업 지구대상 이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개발하고 다시 개발대상지역주민을 개발한 지구에 이주시키는, 이른바 연쇄



개발방식(몰링 시스템)으로 도시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부문에 있어서는 實勢와 격차가 심한 基準地價를 현실화 해주기 위해 내년까지 25개 지역 9억 7천 6백만 평에 대한 地價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는 창원·구미·온산·경주·여천·군산·낙동강하구·회덕·아산만·북평 등 10개 지역 7억 2천 6백만 평을, 그리고 내년에는 제주·거제·안정·국립공원·내진리·光州圈·개발사업지역·월성·포항·백양사·덕유산·영동·동해지역·반월·제화도 등 15개 지역 2억 5천만평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대형공사 계약제도를 개선, 지금까지 입찰액만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계내용을 가장 중요한 낙찰조건으로 삼으며, 건설업체의 도급액 결정에 있어서도 도급실적뿐만 아니라 업체의 우수도를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이 밖에도 국토계획·지역개발·도시·주택·토지·도로·수자원 등, 다각적인 건설업무계획이 보고되었다.

건축경기활성화 보완책 준비

건설부는 1·14경기대책이 주택경기 활성화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稅制상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金宗鎬건설부장관은 지난 22일 「1·14경기대책에 포함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은 미흡했던게 사실」이라고 밝히

고 「불합리한 등록세·취득세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의 완화를 주축으로 한 보완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대책 마련작업을 실무자들에게만 맡길 경우 자기부처의 이해관계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시간만 끌게 된다고 지적, 이번에는 건설부案을 만든 뒤 실무자들을 배제시키고 고위정책 당국자들끼리만 협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현행등록세·취득세등 지방세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입주자에게 2중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건설업자가 부담한 지방세도 결과적으로 입주자에게 전가돼 주택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주택 최초입주자에게는 지방세과표도 내부부 시가표준과표가 아닌 주택 분양 가격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문제는 관계부처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어떤 방안이 국민을 더 위하는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치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人口집중 시설물 이전축진 수도권 정비 계획 방안마련

●移轉건물·土地는 土開公서 우선買入

정부는 서울시장·仁川시장·京畿지사에 공장·학교·업무용빌딩등 인구유발시설물의 이전명령권을 주고 이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자금융자·대지우선분양등의 특혜를 주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 「首都圈정비계획법안」을 마련, 오는 3월 9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건설부가 지난 1월19일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안은 수도권 인구분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首都圈문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건설부·서울시·仁川시·京畿도에서 세운 도시계획을 수도권정비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법안에서는 서울시장을 비롯, 仁川시장·京畿지사는 공장뿐만 아니라

학교·업무용빌딩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각종시설을 수도권밖으로 옮기도록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게 했으며 이외 이전지원을 위해 조세감면, 자금융자, 이전지에 조성된 대지의 우선분양, 이전전불, 토지의 매수등 각종지원제도를 시행령에서 강구키로 조치했다.

특히 이전시설이나 업체의 종업원 전가구가 이전지로 이사갈 때엔 종업원에게도 조세감면특혜를 주고 이전전불과 토지는 土地開發公社가 우선적으로 사들이도록 했다.

또 이전전불및 토지를 아무에게나 팔아 업무용빌딩을 짓는등 무계획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전전불이나 토지에 대해 모두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했으며 수도권기능의 적정 배치와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엔 기존의 그린벨트와는 별도로 정비추진지역, 개발억제지역, 개발유도지역, 자원보호지역, 개발유보지역으로 나뉘 수도권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82~86)년중 건설부분 실천계획에서 서울에 있는 不適格공장 3천 8백98개소 가운데 半월에 1천개소를 옮기고 나머지 2천 8백98개소는 安伸·發安·平澤일원으로 이전시키기로 확정한다.

形質변경 規制풀기로 住居지역 안에 있는 空地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宅地難을 너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역내 空地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제한시책을 과감하게 완화, 이를 허용함으로써 빈땅을 최대한 택지로 활용토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주거지역내의 空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형질변경허용등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막대한 땅이 없어 집을 못 짓는등 택지사정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일선 시도의 까다로운 행정규제때문에 많은 땅이

용도구역만 주거지역으로 돼 있을 뿐 토지형질변경이 안돼 집을 지을수 없는 空地로 방치돼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제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거의 바닥이 났으나 노면상으로는 주거지역내 빈터가 4백50만평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들 빈터 가운데 4면이 주택으로 둘러싸인 1백평이하의 단독필지에 한해 토지형질 변경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있을뿐 그 밖의 경우는 까다로운 심사로 형질변경을 억제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10월까지 전국적으로 空地실태조사를 실시, 자동허가조건을 크게 완화해서 허가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곳을 대폭 늘리고 그 밖의 경우도 심사허가지역과 규제지역으로 구분, 심사허가지역은 문제가 되는 부분만 보완, 조건을 충족시키면 토지형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들의 주택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2차 장기 국토개발 계획에 따라 성장거점도시로 지정된 大邱 光州 大田 등 15개 도시에서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자연녹지를 부분적으로 풀어 택지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도세 감면 검토키로

집지어 임대후 팔때

정부는 개인의 주택임대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신축주택에 한해 일정기간 이상 임대하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금융면에서도 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 및 기업인 소유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무구조 건실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당국자는『지난번 경기부양조치 협의때 건설부가 모든 주택에 대해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세감면을 요구했었으나 신축주택에 한해 임대 기간에 따른 세감면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현재 분

양이 안된채 남아있어 건설업체에 자금압박을 주고 있는 8천여가구분의 민간부문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부문에도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줘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개인이 새로지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주택으로 활용했을 경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하고 되팔았을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감면폭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 기간이 최소 1년으로 돼있기때문에 이를 감안, 2년 이상 임대해 주었을 경우 50%, 3년이상 해 주었을 경우에는 100%면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축임대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만 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실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민간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키 위해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는 공공부문에서 개발한 저렴한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장기저리의 주택차관을 지원, 전세임수자의부담을 덜고 건설업체에도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한편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완화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기업인명의 대형부동산인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최고 76.5%, 기업소유인 경우 특별부가세와 法人稅를 합쳐 세금부담이 최고 50%이상에 달하고 있어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한 부동산처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일부지역 재개발 해제

서울시는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조정계획에 따라 1차로 2백21만평(주택 5만 1천 8백98동)을 재개발지구에서 해제했다.

서울시는 총 해제대상지역으로 설정한 75개구역 3백10만평(주택 9만 4천 6백38동)중 이번에 해제에서 빠진 89만평(주택 4만 2천 7백40동)에

대해서는 건설부 中央都市審議委員會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2차로 오는 3월중 해제할 방침이다.

1. 2차에 걸친 불량주택재개발지역이 해제되면 해제대상지역이 아닌 1백52개구역 2백87만평(주택 7만 5백39동)만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으로 남게 된다.

이번에 재개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사유지안에 비교적 양호한 건물이 많은 구역(약70%이상)▲공공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었거나 앞으로 정비가능이한구역 ▲과거 定着地로 재개발필요성이 적은 구역 ▲현지개발동시책사업이 이루어졌던 구역들이다.

재개발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일반지역과 같이 건축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増改築, 보수 등이 허용되고 은행지당 등 재산권행사가 자유로와 진다.

한편 서울시는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으로 존속하는 지역의 개발을 촉진키위해 현재 재개발사업사행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을 가구당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키로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주택 부지 매입시 지하철공채

면제를 건설 업체서 건의

주택건설업체는 주택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채매입을 제외시켜 줄것을 건의했다.

업체는 현행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주택건설업체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시 임야·잡종지 및 기타지목은 평당 2만원, 전답은 1만원씩의 지하철공채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주택원가상승은 물론 사업주체에 심한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住公아파트 조기 발주키로

住宅公社는 주택건설 경기진작을 위해 건설예정인 4만가구분중 45%에 해당하는 1만 8천 1백60가구 분을 1·4분기중에 앞당겨 조기발주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2천22억원을 풀어 1월에 8백, 2월에 5천 3백20, 3월에

1만 2천40가구분동을 나누어 착공키로 했는데 이를 위해 住公은 이미 서울 高德지구 20만평등 40만 9천평의 택지를 확보했다.

3월까지 착수될 지역별 주택건설 물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戸>

▲서울 高德 8,000 ▲果川 800 ▲淸州 170 ▲麗川 320 ▲沔文津 100 ▲昌原 390 ▲大德 300 ▲順天 200 ▲光州 900 ▲太白 310 ▲東海 220 ▲城南 550 ▲全州 760 ▲裡里 250 ▲龜尾 250 ▲釜山 150 ▲安養 1,000 ▲水原 1,000 ▲源州 200 ▲安東 450 ▲富川 780 ▲기타 760

公共주택에 7천억 투입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주택건설에 모두 7천 7백 95억원 (80년 불변가액)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투자규모 중 47.8%인 3천 7백 18억원은 입주자 부담으로 조달할 방침이며 財政에서는 14.7%인 1천 1백 46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밖의 조달계획은 ▲임주자 저축 3백 39억원 ▲국민주택채권 자금 1천 3백 46억원 ▲주택복원자금 45억원 ▲차관자금 6백 10억원 ▲기타 5백 91억원 등이다.

이같은 투자계획에 따라 호당 투입액은 평균 9백 74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토지매입 범위 확대

올해부터 土地開發公社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및 일반 주거용지의 토지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건설부는 宅地수급의 원활과 건축경가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土地開發公社가 사들이던 토지면적을 서울·釜山·大邱·光州·仁川·全州·大田 등 7개 도시 2백평 이상에서 도시계획구역은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이상으로, 그밖의 도시는 3백평 이상에서 1백 80평 이상으로 완화, 조정했다.

도시계획구역의 건축물 최소 대지면적은 주거전용지역·상업지역 및 생산녹지가 60평,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이 1백평, 자연녹지가 1백 80평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토지소유자가 土地開發公社에 땅을 팔고 싶어도 규모가 작아 팔지 못하던 폐단을 없애므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土地開發公社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대주택 건설늘려

정부는 주택공사 임대주택 건설을 내년부터 1만채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짓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5년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건설부에 따르면 住公 임대주택 건설을 다시 시작하면서 再開 첫해인 올해엔 3천채만을 짓기로 했으나 무주택 영세 서민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의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의 건설량을 내년부터는 최소한 1만채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간 임대주택 건설량은 해마다 증가, 중단되기 전 해인 80년엔 1만 1천채가 건설됐었다.

한편 건설부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5년 정도의 장기기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임대기간이 1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시켜왔다.

대형건물에 첫 태양열이용

국제그룹 신축사옥에 장치

대형건물에 太陽熱집열판 등 에너지절약장치가 설치되고 건물의형도 획일적인 베모개념에서 탈피,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독특한 모양을 갖춘 대형빌딩이 서울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이 빌딩은 國際그룹이 서울 龍山에 착공하는 사옥(國際빌딩)으로 연건평 3만 1천 4백여평에 지상 30층, 지하 4층 규모의 대형건물로서 오는 8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인 省에너지전문업체인 美國의 CRS社의 자문을 받아 설계, 신축될 이 사옥은 태양열 집열판과 특수보온유리를 사용하는 한편 특수 窓戶를

이용, 태양광선의 강약에 따라 실내조명이 자동조절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절약형의 특징을 고루 갖고 있다.

朴世振회원 建築展 열어

원주서는 처음으로 종합전시

강원지부소속회원인 朴世振(박진숙 설계사무소)회원이 마련한 건축예술전이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가톨릭센터에서 열렸다.

건축작품전을 비롯 초청강연회, 건축세미나, 자재전시회 등 일체적으로 이번 예술전은 원주에서는 처음 개최된 건축관계행사로 도내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원주시와 KBS 원주 방송국, 원주문화방송, 강원일보가 후원한 건축예술전을 마련한 朴世振은 인사말에서 "12년간 건축사로서 일해 오면서 지역사회발전에 건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름대로 미력하나마 힘을 쏟았다."고 말하고 "보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주거환경을 가꾸기 위한 시민들의 의식개발에 도움을 주기위해" 이번 건축예술전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첫날 있었던 세미나에는 많은 시민을 비롯해서 강원도청, 원주시 및 인근 행정관서의 건축직공무원들이 대거 참석, 박경호(강원대)교수, 최찬환(서울시립대)교수, 정현제(경희대)교수 등이 행한 건축 강연을 흥미있게 청취했다.

CIB 國際會議 안내

<자원의 결핍과 기존 건축물의 보호 및 사용>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오는 83년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열리게 될 CIB 국제회의는, 현재 우리에게도 절박한 자원의 결핍 문제,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새로운 모색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주목되는 바 크다.

참가 의향이 있는 회원들은 국립건설연구소 건축부(966-0951-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잠실운동장 주변 건축증지 미관기준마련때까지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의 건축이 지난 22일 일제 중지됐다.

서울시는 오는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의 무질서한 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축美觀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건축을 일체 불허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과 관련, 이날자로 江東구청의 관장업무인 이 지역

에 대한 건축허가를 서울시로 이관시켰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메인 스타디움이 들어설 이 지역에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선 경우 정비하기 어려워 사전에 이를 막기위해 취해진 것이나.

서울시 당국자는 앞으로 마련할 건축미관기준에 건축물의 색상, 재료, 외관, 지붕형태, 조정, 植栽기준을 삼아해 잠실종합운동장의 기능과 주위

의 미관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현재에도 서울시내에서 美觀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은 이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 내달말까지 건축미관기준을 마련해 3월부터는 신규건축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 실시

8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 특별전형시험일정이 결정되었다.

오는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건축사자격시험은 3월 20일 하루)에 실시되는 이번 전형은 다음과 같다.

건설부 공고 제 9 호

구 분	건축사자격시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1. 시험일자	○ 제 1 차시험 : 1982. 3. 20 ○ 제 2 차시험 : 추후개별통지	1982. 3. 20~3. 21
2. 시험장소	서울특별시 (수험표 교부시 통지)	과 동
3. 응시자격	건축사법 제14조 제 1 호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 14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시험과목	○ 제 1 차시험 : 건축구조 (필기) 건축시공 (필기) 건축법규 (필기) ○ 제 2 차시험 : 건축계획 (필기) 건축설계 (실기) ※ 제 1 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설계과목 통지	건축구조 (필기) 건축계획 (필기) 건축설계 (실기) ※수험표 교부시 설계과목 통지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나. 교부 및 접수처	1982. 2. 1~2. 15 서울특별시 · 직할시 및 각도청 민원실	과 동 대한 건축사협회 각시 · 도지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나. 수수료 다. 기 타	소정양식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 7 호 서식) 1 통 1,500원 (정부수입인지 첨부) ○ 사진 3 매 (3 cm × 4 cm) ○ 화선용봉투 2 매 (60원 우표첨부 · 우편번호 · 주소 · 통번 및 성명 기재)	소정양식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 7 호의 2 서식) 1 통 과 동 과 동
7. 수험표교부	1982. 3. 5 (예정) 개별우송	과 동
8. 합격자발표	○ 제 1 차 : 1982. 4월말 (예정)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 제 2 차시험시행발표시 예정일 통지	○ 최종합격자 : 1982. 6월중 (예정) 개별통지 및 정부종합청사 게시판에 게시

회원 설계작품 특집 원고모집

(마감 82년 3월 15일까지)

지난 해 9월호 원색 주택 특집으로 회지의 새 면모를 보여 주었던 본지는 올 해도 2회에 걸친 원색 설계작품 특집호를 발간하고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품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본지에 회원작품이 발표되면 —

- 널리 알려지므로 지명도가 높아지고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며,
- 작품에 관한 기록보존이 손쉽게 해결되고,
- 후진을 위한 교육적 가치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 회원간의 유대강화에 큰 힘이 되고,
- 본지에 발표된 작품만이 올 해의 협회대상 후보작품이 됩니다.

● 다 유 ●

1. 특집 대상 설계작품

원공된 모든 작품

(단, 1979년 이후 현재까지 원공된 본지 미 발표 설계 작품)

2. 구비도서 작성요령

1) 도면

(1) 배치도 (2) 평면도 (3) 단면도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특수한 경우는 추가할 수 있음.

2) 도면 작성 요령

- (1) 트레싱지에 점정색으로 잉킹 (트레싱지 규격 A1: 594×841)
- (2) 모자이크, 타일선 등과 같이 섬세한 부분은 생략
- (3) 연필선 등 불필요한 것은 깨끗히 지울 것.
- (4) 설명은 도면상에 연필로 번호를 기입하고 번호에 따른 설명은 트레싱지 우측 상단에 별도로 기입할 것.
- (5) 도면의 축척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중규모..... 1/100 - 1/200 정도로 하
대규모..... 1/200 - 1/300 정도면 크기에 적당히 안배할 것.

3. 사진

- 1) 작품사진: (1) 전경사진 (5×7 또는 8×10) 2매

(2) 내부사진 (4×6 정도) 4-5매

(3) 기타 (//) 매수 제한없음

★단, 전경사진 중 1매는 원색 인쇄판세로 반드시 슬라이드 필름으로 제작하고, 모든 사진은 가급적 흑백으로 인화한 선명한 사진이어야 함.

- 2) 인물사진: 설계자 인물 사진으로 스냅형, 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4. 기타 첨부 원고

- 1) 설계 개요: 200자 원고지 2-3매
- 2) 건축물 개요: (1) 소개지 (2) 대지면적(m²) (3) 건물 연면적(m²) (4) 구조 (5) 준공년월일
- 3) 설계자: (1) 설계사무소명 (2) 성명 (3) 설계자 최종학교, 대표작품 2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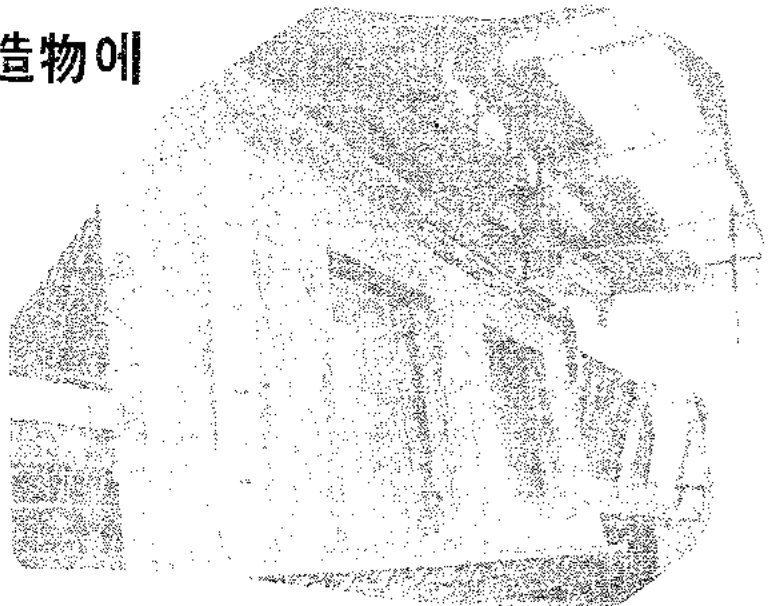
5. 원고 마감일 및 보낼 곳

- 1) 원고 마감: 1982년 3월 15일까지
- 2) 보낼 곳: 본회 출판사업부
(문의처: 723-9491-2)

★원고 작성요령은 본지 회원작품을 참고바랍니다.

輕量콘크리트를 P·C 構造物에 使用하였을 때의 經濟性

金 亨 杰 (前仁川大學長：工學博士)



여러 구조물에서 보통콘크리트 대신에 輕量콘크리트를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이 경제성은 구조체 상부구조의 自重이 보통콘크리트의 경우에 비하여 20%~30% 경감되어 이것이 일반적으로 기초설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 절약의 정도는 다음 사항들에 의하여 크게 달라진다.

- (1) 상부구조의 형식을 결정하는 대지조건
- (2) 경량골재의 이용가능성과 그 가격
- (3) 경량콘크리트에 있어서 簡縮(creep)과 收縮(shrinkage)으로 인하여 誘起되는 비교적 큰 도입력 손실을 감소 시키는데 필요한 고강도 강재의 가격(콘크리트가 프레스트레스 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경량콘크리트의 성질이 骨材源과 제조과정에 따라, 장소마다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설계자가 독특한 제품의 특성을 잘 알아서 익숙해져 있다면, 구조물을 설계할 때 경량콘크리트의 포복(creep)과 수축(shrinkage)의 특성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설계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에 비하여 더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구조물이든 예비설정 단계에서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토록 연구해 보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가 된다.

경량콘크리트로 현장타설로 시공한 구조물로서 경제성을 보여준 최근의 주목할 만한 例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Napa River 교와 Parrotts Ferry 교를 들어 보기로 한다.

경량콘크리트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경제적이고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프리캐스트(precast) 部材를 사용한 구조물이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매우 경제적이 된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P·C 콘크리트 구조물은 또한 기초 구조에서 경제성을 나타내지만 경제성의 대부분은 캐스트(cast)할 수 있다

는 것과, 운반과 그리고 큰 조각을 세울 수가 있어서 P·C 부재의 전 수량을 절약할 수 있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제성에 관한 한 예로서 1978년 런던에서 개최된 FIP 회의에서 보고된 것이 있다.

그 후 경량콘크리트와 보통콘크리트를 사용한 교량공사의 전적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 바 있는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 표 1은 post-tension을 한 box-girder 교의 P·C 부품의 가격전적을 요약한 예이다.

이 구조물은 span이 각 55m, 74.7m, 83.8m, 90.7m, 59.6m이고 높이가 다같이 4m인 예이다.

표 1. 가격전적의 총괄

항 목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재 료 비	\$ 2,496,024	\$ 2,495,180
생 산 설 비 비	\$ 406,000	\$ 451,000
생 산 공 입	\$ 1,453,603	\$ 1,032,259
생 산 자 경 상 비	\$ 1,453,603	\$ 1,032,259
생 산 자 이 익	\$ 290,720	\$ 206,451
운 반 비	\$ 203,220	\$ 150,000
부품의 현장도착가격	\$ 6,303,170	\$ 5,367,149
건 립 용 설 비 비	\$ 1,100,157	\$ 862,200
건 립 공 입	\$ 653,152	\$ 463,326
도 급 자 경 상 비	\$ 522,521	\$ 370,661
도 급 자 이 익	\$ 857,637	\$ 706,840
총 상 부 구조 체 비	\$ 9,436,637	\$ 7,770,176
1979년도하부구조체비	\$ 2,521,368	\$ 2,363,095
하부구조체비의21%가 격 인 상 분	\$ 529,487	\$ 496,250
합 계	\$ 12,487,492	\$ 10,629,521

표 1은 두 가지 형태의 콘크리트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경량콘크리트의 가격이 보통 콘크리트보다 약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큰 부재를 위한 대형형틀 때문에 제작비용과 생산설비 가격은 고가가 된다.

표에서 보면 여타 항목에 대하여는 전부 경량콘크리트의 경우가 저렴하지만 그것은 큰 부재를 쓰기 때문에 부재수량이 월등히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 조사로부터 각각과 교대 부재수는 24개로서 변화없이 그대로이며 정규의 부재수는 534개에서 374개로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P·C부재를 전립하는데도 경량콘크리트의 경우가 경제적이 된다.

즉 558개의 비교적 작은 조각을 전립하는데 260일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398개의 큰 부재를 전립하는데 단 199일이 소요되었다 한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표준이 필요한 것을 취급하였다.

경상비는 직접노임의 100%, 이윤은 재료대, 노임, 경상비의 10%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나라에 따라 다를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 지방에서 그 지방 환수에 맞도록 잘 배려를 한다 하면, 그 사업에 있어서 얼마간의 부재에 대하여는 역시 유리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량콘크리트를 써서 상당한 절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 북부지방에서는 경량골재를 교량구조에 사용하는 데만 찬성하려는 몇몇 회사가 있다.

이 기피의 이유로서 경량콘크리트를 특히 교량상판에 사용할 때, 내구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좀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시험을 하여 모든 구조물에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되었으면 한다.

설계자가 이 재료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ACI Committee report 213 "Guide to structural lightweight concrete"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또한 경량콘크리트에 관한 1970년 ACI Symposium에서 발표된 몇몇 논문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유익한 배경설명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북부의 어떤 지방에서는 장거리에 걸친 경량골재 운반에서 초래되는 가격상승이 또한 경량콘크리트에 관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제품을 다량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팽창성, 열암골재를 추가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운반비를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경량콘크리트가 수년간에 걸쳐서 때때로 사용되어 왔었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가 실제로 내구적이라는 것을 이 재료취급업자들에게 아직도 납득시킬

필요를 느끼게 하고 있다.

교량상판의 표면처리가 개량되어 감에 따라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싶은 욕망도 증진되어 가고 있다.

또 한 가지 경량콘크리트로 없게 표면 처리를 하고 보통 콘크리트를 써서 composite 상판을 현장타설로 이루도록 하여 부품조각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한 한 방안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 상술한 가격추정은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한 단 하나의 특수한 교량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여기서 지적된 기본적인 경제성은 다른 어떠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도, 그리고 특히 P·C부품으로 이루어 지는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될 것은 틀림이 없다.

上述한 가격조사와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 경량콘크리트는 자중이 적어지므로해서 기초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도 경량콘크리트가 경제적인 때가 많다.

(II) 경량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P·C구조물에 대해서 더욱 경제적이 된다. 왜냐하면 자유감소에 기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구조물에서도 부재요소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 들어서 고가의 생산품과 전립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III) 경량콘크리트를 토목구조물에 사용하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재료의 내구성이 보통콘크리트에 필적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만한 연구진의 충분한 시험과 또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IV) 경량콘크리트가 좀더 광범위하게 P·C구조물(특히 교량)에 쓰여질 수 있도록 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정보자료가 수집되어야 하겠다.

- 내구성에 관하여 좀더 과거와 현재의 시험결과 및 현장자료의 문헌.
- 각종 경량골재의 광범위에 준한 콘크리트배합의 개발.
- 여러가지 종류의 경량골재에 대하여 포복(creep)과 수축(shrinkage)의 영향을 좀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험계획.
- 표피재료와 콘크리트에 침적시키는 재료 및 도장재료의 개발.
- (V) 부분의 표준화는 가격을 더욱 절감 시키게 된다.

〈참고문헌〉

1. Bender Brice, "An Economic Comparison of a Segmental Precast Concrete Box Girder Bridge Designed in Lightweight and Dense Concrete", paper presented at Federation International de la precontrainte Congress, London, april 30 - may 5, 1978.
2. A.C.I Committee 213, "Guide for Structural Lightweight Concrete", ACI journal, proceedings vol. 64, No. 8, August 1967, pp. 433-469
3. ACI Committee 213 and 523, lightweight aggregate concrete, publication SP 29, American Concrete Institute, Detroit, Michigan, 1971, 320 PP.

瞻星臺의 機能에 대한 考察

姜奉辰
(국보건설단)

◆ 序 論

지난번 서울의 각 일간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첨성대가 天文臺나 祭壇이나> 하는 뜨거운 논쟁이 첨성대의 현장과 동국대 경주분교에서의 學術大會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이 회의에는 국내 각계의 학자는 물론 일본의 天文學者들도 참석하여 첨성대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였으나 확정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論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수년 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瓶과 같은 기묘한 형태라든가 方上下圓의 地天之義의인 구조, 그리고 출입문이 없는 이상한 구조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용도는 물론 조형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만은 사실이다. 때문에 첨성대를 신라의 神秘不可思議 중의 하나라고 보는지도 모른다.

◆ 討論의 概要

당시의 토론내용의 개요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天文臺였으리라고 주장하는 긍정적인 토론이 人勢를 이루었으나, 특이한 용도였음을 주장하는 일부 人士도 있었다.

羅逸星교수(연세대·천문기상학)는 <첨성대가 기능면에서 과연 천문대였던가 하는 論議에 대해서는, 우선 어떤 觀測器를 사용했는가, 또 무엇을 관측했는가를 입증해 줄 확실한 옛 기록이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자료를 물이하여 이를 뒷받침 할 수 밖에 없다>면서 <增補文

獻備考에 나타난 二國間の 口誣記錄 등 13종의 日·月·星變記錄을 분류해 볼 경우, 신라쪽의 數字記錄이 고구려·백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天文觀測臺가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李龍範교수(동국대·역사학)는 <첨성대의 형태가 불교의 宇宙觀인 須彌山說을 연상케 하며 종교적 상징을 안치했던 흔적도 있어 종교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醜態였을 것>이라는 이색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어 李교수는 첨성대에 대한 문헌기록에 대해서 <기록이 후세로 올수록 후세인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 되어 신빙성이 적어진다. 따라서 첨성대를 만들었던 당시의 前後記錄이 남아 있지 않은 오늘의 상황에서 볼 때, 첨성대의 天文臺說은 후대에 이르러 조작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閔泳珪교수(연세대·역사학)는 <삼국유사를 보면 景德王이 소생이 없어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해 달라고 중(僧)표훈을 2·3 차례 天界로 올려보내 호소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면서 <그러므로 첨성대는 당시의 천재지변, 왕실의 운명 등을 미리 알아내는 占치는 곳, 즉 하늘과의 對話通路로 삼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견해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리고 李基東교수(경북대·한국사)도 <첨성대가 만들어진 630년경은 신라가 고구려·백제와의 전쟁으로 생존경쟁에 한창 바쁜 때여서 天文觀測뿐만 아니라 祭壇用으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金善棋교수(명지대·언어학)는 <당시 동양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呪術로서 첨성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이색적인 풀이를 했다. 즉 중국의 漢民族과 알타이족(韓民族)이 동양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을 할 때, 임금이 하늘을 두려워하여 첨성대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일본인 학자 數內 清교수(京都大·天文学史)는 <현재로서는 첨성대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첨성대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신중한 견해를 밝히면서 <앞으로 첨성대와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다른 構造物을 찾아보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옛 구조물에 대한 數字놀이·數學的推定은 자칫하면 <耳懸鈴鼻懸鈴>식으로 문제 자체를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 학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 瞻星臺의 概要

첨성대는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839의 1번지, 月城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 국보 105호로 지정되었으나 1963년에 국보 31호로 재지정되었다.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서기 632~646) 시대에 건축한 것으로서 芬皇寺址塔과 아울러 현존하는 한국 석조건축의 最古의 유물이다. 또한 이 유물은 1면의 길이가 5.35m 인 4각의 2층 地臺石 위에 1단의 높이가 약 30cm되는 화강석 다듬돌 27단으로 축조한 것으로서, 삼국시대의 宮苑 내에 있던 天文觀測施設로 추정되어 온 것

이다.

평면은 圓形으로서 밑은 넓고 위로 갈수록 좁혀지다가 上部에 가서는 수직을 이루어 頂部에 이른다.

규모는 底部徑이 5.16m, 頂部徑이 2.57m, 높이가 9.10m 인 원통형으로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석재를 수평으로 築積하되 段形쌓기로 좁혀 가면서 쌓고, 頂部上端에는 긴 석재로서 方形의 2重井桁을 얹어 上方下圓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南面 중앙의 地臺石으로부터 높이 4.16m 되는 곳에 正南을 향하여 1번의 길이가 약 1m 인 正方形의 窓口가 설치되어 있고, 창구 밑에는 돌을 얹었던 흔적이 남아 있어 사다리를 놓았던 자리가 아닌가 추측된다.

前記한 築造年代에 대하여는, 三國遺事 善德王 知幾三事條에 〈……善德之創靈廟寺, 其載良志師傳, 詳之, 別記云, 是王代, 鍊石築瞻星臺〉라 적혀 있어 7세기 중엽의 축조임을 알 수 있으나 확정적인 년대는 알 수 없다.

◆用語에 대하여

瞻星臺에서의 瞻字의 字意는 〈우러러 볼 瞻〉字로 〈仰視〉라는 뜻이기 때문에 〈별을 仰視·觀望하는 臺〉, 즉 〈천문대〉의 기능을 표시한 용어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천문대〉라는 용어는 영어의 속어인 〈Astronomical-observatory〉를 直譯한 것으로서 學術用語로 보편화된 것이며, 이를 굳이 우리 말로 번역한다면 〈瞻星臺〉라고 해도 誤譯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첨성대란 천문대로서 1년 4계절의 변화, 달의 朔望盈虧, 晝夜反覆, 별의 위치의 변동 등, 天體의 주기현상을 觀望·測定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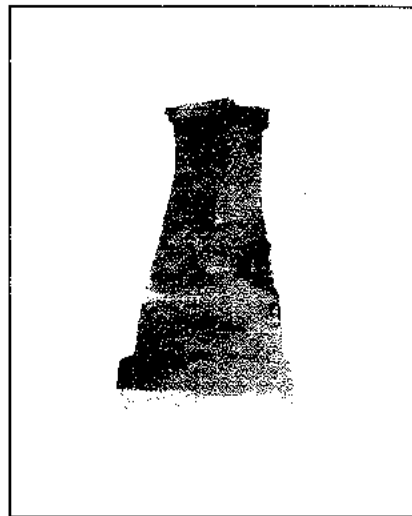
◆形態論

첨성대는 그 구조형태가 옛날 중국의 論天說을 상징한 것으로 天圓地方說에 의거하여 축조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27단으로 돌을 쌓

아 올린 것은 선덕여왕이 27대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前者의 論據에 대해서는 수긍할만 하지만, 後者와 같은 王代를 상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으며, 첨성대가 천문대임을 상징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 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27단이라는 수자에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첨성대의 南側面 지대석 위로부터 12단까지 쌓아 올리고, 그 위에 3단의 창구를 설치하여, 창구 위로 12단을 쌓아 올린 결과가 27단이 되는 바, 상·하의 각 12단은 12개월을 표시하고 상·하를 합한 24단은 1년의 24절후를 상징한 것이며 창구높이 3단은 춘추동 4계절을 각각 3개월씩으로 분할하여 축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正南으로 열린 창구는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출입하는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이 창구는 春分과 秋分에 태양이 南中할 때, 이 창구를 통하여 태양광선이 첨성대 내부 밑바닥까지 완전히 비출 수 있는 위치에 열려 있다. 그리고 동지와 하지에는 창구 아래부분에서 완전히 광선이 사라지게 되므로 分點과 至點測定の 역할도 할 수 있게 축조되어 있다.

◆祭壇論

첨성대의 외형이 天圓地方說에 의한 것이라고 概述하였는 바, 천문대가 아닌 제단으로서도 역시 天圓地方說에 의한 형태로 축조한 것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강화도 화도면 마니산 西上峰에 있는 聖城壇이다. 그러나 형태가 비록 天圓地方說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구조는 첨성대와는 판이하다. 그것은 첨성대와 제단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聖城壇은 단군 기원 51년(B.C 2,282)에 단군 왕검이 壇을 축조하고 홍익 인간과 國泰民安을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낸, 祭天壇이라고 전해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단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신라·백제의 왕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근세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이었다.

聖城壇은 높이가 5.10m로서 거칠게 다듬은 돌로 축조되어 있다. 上方은 제단으로서 1번이 2m이고 下圓은 基壇으로 그 지름이 4.50m이다. 그리고 단의 남측 중앙부에 제단으로 오르는 막돌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聖城壇은 단군조선과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원종 17년과 공민왕 때 각각 보수한 바 있고, 이조시대에 와서는 인조 17년과 숙종 26년에 修築했다고 한다(神檀實記).

聖城壇 상단의 제단은 제수를 차려 놓을 수 있도록 바닥을 평탄하게 고른 후 돌을 깔았다. 聖城壇은 하늘에 제사하는 전형적인 제단의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이조초에 축조한 서울의 社稷壇이나 구한말에 造營한 소공동의 關丘壇 및 팔각당 내의 제단 등에서도 볼 수가 있다.

社稷壇은 태조 3년(1394년)에 造營한 것으로서, 東側祭壇을 國社壇이라 하여 土神을 제사 지냈고 西側祭壇을 國稷壇이라 하여 穀神을 제사 지냈던 곳이며, 李太祖를 비롯하여 歷

代王들이 매년 음력 2월과 8월 및 葉月冬至 후의 각각 첫 戊일에 제사를 지냈었다.

또 圖丘壇은 광무 2년(1898년) 9월에 고종황제가 태조대왕을 太祖高皇帝로 推尊하여 6월 17일에 天神·地神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다. 圖丘壇 북측의 팔각당은 광무 5년(1901년)에 지은 것으로 내부에 제단을 설치하여 天神·地神과 함께 太祖高皇帝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社稷壇이나 圖丘壇도 塹城壇과 마찬가지로 塹壁을 석축으로 쌓고, 上端은 제수를 차려놓을 수 있도록 평탄하게 축조했다.

◆ 構造比較

이상과 같이 첨성대와 제단과의 구조 형태에 대하여 실예를 들어 논급하였으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敷衍하면 다음과 같다.

첨성대는 前通한 바와 같이 내부가 원통형 공간으로 되어 있어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建物構造임에 반하여, 제단은 어느 것이나 側壁을 돌로 쌓고 내부를 土

砂로 메꾸어 버렸으며, 上端의 바닥面은 土砂 또는 돌로 평탄하게 만든, 소위 壇構造로 되어 있다.

즉 제단은, 제수를 차려놓을 수 있는 평탄한 바닥면으로 된 구조인데 반하여 첨성대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文字上으로도 壇과 竈는 그 뜻이 다르며, 祭天壇·神壇·佛壇, 또는 須彌壇등과 같이 평지나 평면바닥보다 높게 築設한 구조물로서 하늘이나 신, 또는 佛에게 올리는 供物을 차려놓는 곳을 의미하는 데는 대개 壇字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竈라는 문자는 옛날부터, 예를 들면 瞻星臺·滿月臺·彈琴臺, 또는 義湘臺 등과 같이 字意 그대로 집이나 집터 등을 의미하는 데에 보통 竈字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첨성대는 제단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 結 論

첨성대의 기능이 천문대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또는 제단으로서의 구실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까지 문헌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前記한 바와 같이 삼국유사에서 첨성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筆者는 첨성대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천문대라는 용어와는 동의어라고 생각한다. 다만 오늘날의 천문대와 같은 거대한 觀測施設을 첨성대에도 설치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당시의 과학기술상황을 감안할 때 기계관측에 의하지 않고 肉眼觀測에 의했던 것으로 생각될과 동시 적어도 제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연세대의 토목과 柳福模교수님은 영남대에서 열린 大韓土木學會 81년도 학술발표회에서 첨성대가 북서쪽 15度 30分 32.6秒 방향으로 1度 2分 49.8秒가 기울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학계의 주목을 끌은 바 있다. 이는 微小한 경사도로써 당장 倒塌할 염려는 없지만, 이를 문헌상으로 남겨 놓고 앞으로 수시로 측정하여 傾斜進行度를 감시하는 것도 문화재 보존적인 견지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건설부 측량업 등록 제11호



대한측량설계공사

1급건설기사 · 1급측량기사 · 지적기사

대표 김 총 일

서울 · 성동구 구의동 252-15

Tel. 446-6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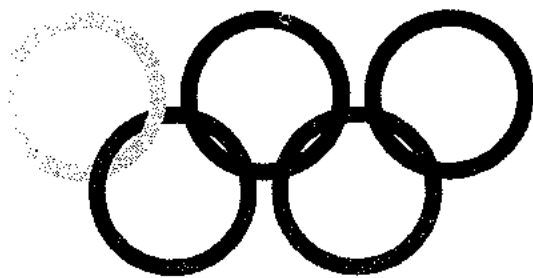
업무안내

측
량

1. 현황 측량
2. 토목 측량
3. 지형 측량 (고저 측량)
4. 중형단 측량
5. 시공 측량
6. 지적 측량 (상담)

측
량
설
계

1. 토목설계, 시공감리
 2. 구조물설계
 3. 토지형질변경 (지목변경행위) 허가수속
 4. 일단의 택지조성사업허가 수속
 5. 연립주택 (아파트) 건설입지측량, 설계
- ※ 측량, 토목설계 상담환영



“'88을 위하여”

올림픽은 나라와 인종차별이 없는 인류 최대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대회가 끝나면 당연히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기 마련이다. 실제로 IOC에서도 올림픽 개최 후, 개최국의 대회시설이나 운영에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동양적인 纖細性과 예의를 보인 동경올림픽, 독일인의 근면성과 과학성, 그리고 치밀성을 보여 준 뮌헨올림픽, 세계 첨단의 과학문명을 집결시켰다는 평을 들은 몬트리올올림픽 등.

회람시대부터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와 더불어 춤이 있고 노래와 詩가 펼쳐지는 문화의 祭典이었다. 근대 올림픽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IOC 헌장을 보면, 올림픽 조직준비 위원회에서는 수준 높은 예술전시, 즉 건축·문학·음악·회화·조각·사진·민속스포츠·우표수집·연극·발레·오페라·교향곡 등을 반드시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회운영과 조직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예가 멕시코이다.

1532년, 스페인의 탐험가 피사로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멸망한 잉카족의 오묘한 문화를 내세운 멕시코 올림픽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

기에 충분했다. 다른 대회보다 경비도 적게 들었고 운영 또한 영성했으나 그러한 모든 미비점은 잉카의 혼에 의해 흠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88서울올림픽—.

우리는 세계인들에게 강렬한 우리의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건축은 精神文化面에서의 최대의 예술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수도 서울과 지방도시와 마을들은 어떠한가. 일부 고속도로변을 제외한 부분은 한마디로 어수선했다. 그것은 한국적인 성격이 뚜렷하지 않은 건물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현대감각에 조화시켰거나 살린 그러한 건축물을 보여 주어야 한다.

어떤 외국인은 한국에 와서 여기가 서울인지 동경인지, 혹은 미국의 어느 도시인지 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우리의 自然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다. 지금은 북한에 있지만 금강산을 구경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물론 사회와 건축주의 의식구조 등, 근본적인 데에서부터 치유되어야 할 병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기왕 건립된 건축물은 도시계획과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건축에 대한 보존·보수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금이 죽죽 간 엔타시

스 기둥의 멧은 간데 없고 콘크리트의 차가움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

이끼 낀 기와, 퇴색하긴 했어도 선인들의 은은한 미적감각을 보여주는 단청, 찌리비 자국이 선명한 오솔길 등은 이제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페인트와 콘크리트에 의해 너무나도 인위적인 멧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보고 각국의 손님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이번 기회에 고전건축과 현대건축과의 조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건설부가 발표한 올해의 주요업무 내용 중에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항목이 들어 있어 눈길을 끈다. 건설부는 도시재개발공사를 설치하여 통령시스템方式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서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종로, 을지로 등의 건물에 대한 높이·크기를 규제한다는 계획도 있어 기대되는 바 크다.

이제 우리는 '88을 계기로 얼굴이 있는 서울, 자연과 조화된 都市美, 그리고 개성이 뚜렷한 지방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할 시기에 와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일을 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우리 모두가 지자는 것이다.〈*〉

氣溫變化로 인한 建物の 龜裂防止에 관한 研究

任 南 宰 〈大田工專 교수〉

目 次

1. 序 論
2. 콘크리트의 硬化乾燥收縮
3. 氣溫差로 인한 建物の 變形形狀
 - ① 溫度變化에 의한 建物の 變形形狀
 - ② 外氣溫도의 變化에 의한 建物の 變形
 - ③ 日射에 의한 建物の 變形形狀
4. 龜裂防止를 위한 伸縮줄눈
 - ① 氣溫差로 인한 龜裂防止를 위한 伸縮줄눈
 - ② 伸縮줄눈의 間隔과 位置選定
 - ③ 長大한 建物の 伸縮줄눈의 位置
5. 結 論



1. 序 論

건물의 용도에 의하여 건물이長大하게 길어질 경우, 또는 構造形式이 다른 경우나 부동침하가 예상될 경우, 건물에 유해한 응력발생이 생기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伸縮줄눈을 설치하는데, 이 때 構造設計의 미숙으로 건축물의 구조체를一體로 만들지 않고 콘크리트를 분리하여 시공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마무리 모르타르 등은 관계치 않고 연속적으로 마무리해서 준공 후 1년도 못가 보기 흉한 균열이 생기고 누수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사례가 허다하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발생하는 응력

으로는, 하중 및 외력에 의한 응력과 특히 온도변화와 부동침하 등의 변형에 의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고 사용상 지장이 없으며 局部的인 파괴가 생기지 않도록 接合部끼리의 相對變位가 없는 伸縮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伸縮줄눈의 위치는, 온도의 변화와 部材의 팽창수축의 원인에 의하여 微小한 변위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力學的인 관계, 그리고 意匠的인 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硬化乾燥收縮

콘크리트의 양생과정에서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수분을 잃을 때 콘크리트가 굳어지며 微小한 수축

을 일으키게 된다. 콘크리트製品의 工產品이 아닌 건축물은 수중에서 양생을 할 수 없으므로 수분이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없어지는 경우란 절대로 없다. 때문에 不均等한 온도의 변화가 不均等한 수축을 생기게 하며, 部材에 내부응력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균등한 수축때문에 생기는 응력은 대단히 클 수가 있다. 수축에 대해서 전혀 억제하지 않는 無筋콘크리트에 있어서는 균등한 수축은 억제능력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균등한 수축이란 실험실에서 쓰는 이론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

콘크리트의 양생과정에서 생기는 미

소한 수축량은 노출상태와 콘크리트
質에 좌우된다. 대기에 노출시키면 수
축율은 증가하고 습한 공기에서는 수
축을 감소시킨다. 收縮係數는 단위 길
이當 단축되는 길이로서 보통 0.0002
에서 0.0006까지이다. 鉄筋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수축이 균등하다라도 철근
에는 압축응력이 생기고, 콘크리트에
는 인장응력이 생기게 된다.

3. 氣溫差로 인한 建物の 變形形狀

① 溫度變化에 의한 建物の 變形形狀

건물의 온도변화의 원인은 자연온
도변화와 인공적 온도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변화온도는 외기온도로써 계절
적으로 4 계절에 의한 큰 주기를 가
지고 변화하며, 건물의 지붕面(단, 평
지붕) 및 각 外壁面이 받는 日射量으
로 여름철에 지붕面은 최대가 된다.
외벽에 있어서는 가을·겨울·봄에 南
側面이 높으나 그 절대치는 여름의 지
붕面에 비하면 1/2 이하이다.

그리고 인공적 온도변화로는 냉·
난방의 유무가 건물의 온도변화에 미
치는 영향과 공장 등에서 볼 수 있는,
고온을 발산하는 爐 부근의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콘크리트造의
건물에서 기온차로 인한 팽창수축은
콘크리트 내부의 평균온도변화에 의하
여 생긴다. 그러므로 外的要因의 온
도변화가 그대로 콘크리트 내부의 온
도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콘크
리트의 열전도율 관계로 인하여 약간
적은 값이 된다.

콘크리트 내부의 연간 평균온도
차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20℃ 내
외이며 地中에 묻힌 콘크리트의 온도
는 연간을 통하여 거의 변화하지 않
으므로 온도의 팽창수축은 무시할 수
있다.

鉄筋콘크리트構造에서 철근과 콘크
리트가 만측스러운 만큼 잘 일체가 되
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두 물질의
열팽창계수가 거의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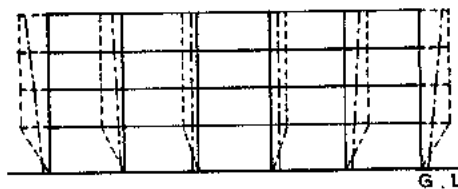
$$\alpha = 1.2 \times 10^{-5} / ^\circ\text{C}$$

로서 서로 같아 열변형 차이에서 오
는 균열이나 기타 다른 좋지 못한 결
과가 방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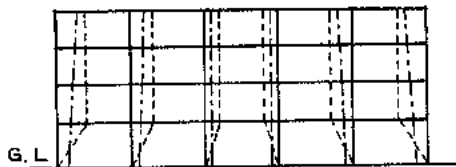
② 外氣溫도의 變化에 의한 建物の 變形

외기온도의 변화에 의한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변화는 건물의 地上部分
에 변화를 생기게 하며, 地中에 묻힌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을 통해 거의
변화가 없고, 건물의 용적변화는 지
상부분에만 생기고 지하부분은 변화
하지 않는다.

라멘構造物에서 외기온도의 변화에
의한 변형은 그림 1의 점선과 같이
1층부분에 큰 層間變化를 일으키며,
2층 이상은 거의 같은 양의 용적변
화이기 때문에 層間變位가 거의 생기
지 않는다. 이 변화는 건물의 兩端部
에서는 크고 중앙부에 접근할수록 적
어진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둥이
이 변형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림 1의
破線과 같은 형상이 된다.



膨脹의 경우



收縮의 경우

그림 1. 點線: 슬래브 自由溫度 伸縮의 경우
破線: 기둥의 拘束을 고려한 경우

③ 日射에 의한 建物の 變形形狀

건물이 받는 일사량은 지붕面이 외
벽面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
하여 팽창도 최상층에 많고 그 밑의
층 이하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외기온도의 변화에 의한 경우와 같
이 이 변형도 건물의 兩端部에서 커

지며 중앙부와 가까와 질수록 적어지
다. 그림 2와 같이 기둥의 變形拘束
을 고려하면 변형형상은 破線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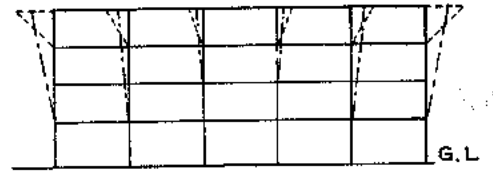


그림 2. 點線: 슬래브 自由溫度 伸縮의 경우
破線: 기둥의 拘束을 고려한 경우

4. 龜裂防止를 위한 伸縮줄눈

① 氣溫差로 인한 龜裂防止를 위한 伸縮줄눈

일반적으로 長大한 건축물과 옥외
중합경기장의 원형관람석(Stand)의
균열 발생 원인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한 응력 외에도 기온변화와 양생과
정에서의 硬化乾燥收縮에 의한 것이
있다.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응력으로
인하여 건물의 局部的 파괴를 일
으릴 수 있는 균열과 외관상 보기 흉
한 균열, 그리고 누수사고를 일으키
는 건축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최대한 예방키
위한 伸縮줄눈은 팽창·수축에 대한
방지 대책이며, 구조체의 팽창·수축
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생길 것이
라고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예방 또
는 균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설
치한다.

構造設計에서의 일반적인 균열방지
책은 다음과 같다.

1. 部材의 단면을 너무 줄이지 않
는다.
2.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계산
외의 여분의 철근을 더 넣는다.
3. 長大한 건물은 적당한 간격으
로 伸縮줄눈을 설치한다.
4. 균열이 퍼질 우려가 있는 곳에
는 部分的으로 伸縮줄눈을 설치
한다.

② 伸縮줄눈의 間隔과 位置選定

長大한 건축물 또는 옥외 경기장의
관람석 구조물 등의 伸縮줄눈의 간격
을 결정하는 요소는 열응력과 硬化乾

燥收縮應力에 의하여, 伸縮줄눈의 간격은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1. 건물이 건설되는 지방의 기온차
2. 건물의 重要構造의 종류
3. 콘크리트 施工時期(夏節・冬節)
4. 건물의 剛性이 큰 부분과의 위치 관계

기온변화에 의한 건물의 豫想變形量에서 콘크리트의 온도팽창계수는 그 배합・施工軟度・材齡에 거의 관계없이 常溫의 범위 내에서는

$$\alpha = 1.2 \times 10^{-5}$$

이므로 길이 60m의 건물에서 유효온도차가 20℃인 경우, 기둥의 拘束을 무시하는 건물의 온도차에 의한 변형량은 다음과 같다.

$$\Delta l = 6,000 \times \frac{12}{1,000,000} \times 20 = 1.44 \text{ cm}$$

위의 건물에서 콘크리트의 乾燥收縮에 의한 豫想變形量은 自由收縮率(註: 青山 博之—鉄筋コンクリート造建築物の自己歪應力に關する 研究・學位論文)을 5×10^{-4} 로 해보면 다음과 같다.

$$\Delta l = 5 \times 10^{-4} \times 6,000 / 2 = 1.5 \text{ cm}$$

이와 같은 수축량은 기둥의 剛性에 의하여 실제적으로는 좀더 적은 값이 된다.

이상의 결과를 비교검토할 때, 건물의 수평방향의 변형을 고려하여 60~70m의 간격으로 伸縮줄눈을 넣어야 한다.

③ 長大한 建物の 伸縮줄눈의 位置, 외기온도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内部의 온도변화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상부분에 생기고, 지중에 묻힌 부분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용적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또 地中에서 습윤상태에 있는 콘크리트는 수축되지 않고 오히려 팽창할 때도 있으나 그 용적변화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리하여 팽창수축에 대한 伸縮줄눈은 기초부분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림 3과 같이 基礎上部構造에만 설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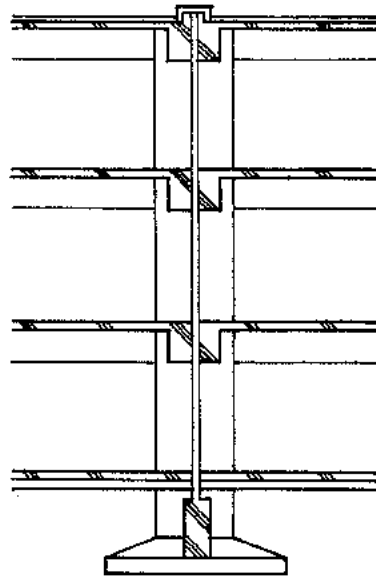


그림 3. 膨脹・收縮에 對處하기 위한 伸縮줄눈(基礎一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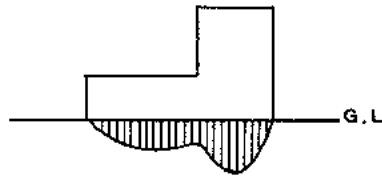


그림 4. 重量配分이 不適當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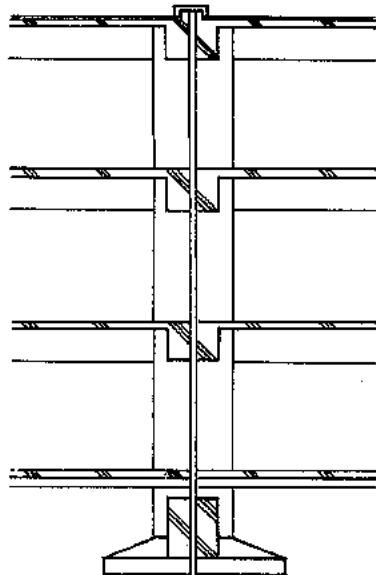


그림 5. 膨脹・收縮에 對處하기 위한 伸縮줄눈(基礎까지)

또한 건물의 重量配分이 부적당할 경우, 건물의 중량에 평면적으로 극단적인 차가 있으면 무거운 부분의 下

部の 地中應力 關係(그림 4 참조)로 부동침하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長大한 건물에 있어서의 伸縮줄눈은, 層高差가 3층, 이상의 경우는 평면적 위치 결정에서 다른 블록(Block)끼리의 접합부와, 지진 발생 예상지역에서는 地中の 기초부터 伸縮줄눈을 그림 5와 같이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진동특성을 고려하여 2차원적인 응력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5. 結論

일반적으로 鉄骨鉄筋콘크리트造, 鉄筋콘크리트造 및 組積造에 있어서의 外的荷重으로 인한 部材力과 剛性에 대하여는, 안전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構造設計의 미숙으로 인하여 長大한 건물, 중량배분이 부적당한 건물, 동일 건물 내의 지반에서 지내력에 차가 있을 경우의 온도변화, 콘크리트의 硬化乾燥收縮, 기초의 부동침하 등의 변형에 의한 응력으로 건물 자체에 수축・팽창 및 부동침하 등의 응력발생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건물의 局部的 파괴와 보기 흉한 균열이 발생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伸縮줄눈 설치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구조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1. 균열이 퍼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伸縮줄눈을 설치한다.
2.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계산 외의 여분의 철근을 더 넣는다.
3. 長大한 건물은 60~70m 간격으로 伸縮줄눈을 설치한다.
4. 부동침하가 예상되지 않는 건물은 地中까지 伸縮줄눈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5. 地耐力의 차가 있는 곳, 또는 중량배분이 부적당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건물은 기초까지 伸縮줄눈을 설치할 것(註: 현행 건축법에는 伸縮줄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서 말한 3항과 5항만은 반드시 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양통집의 平面에 대한 研究 (完)

金 鴻 植 (금성종합설계공사)

목 차

- | | |
|------------------|----------------|
| (1) 개 론 | (4) 8칸집 |
| (2) 전(田)자집 | ① 칸수만 증가된 집 |
| (3) 6칸집 | ② 한쪽 부엌집 |
| ① 영동형 | ③ 가운데 부엌집 |
| ㄱ. 마루집 ㄴ. 구들집 | ㄱ. 외양간이 있는 집 |
| ② 안동형 | ㄴ. 외양간이 없는 집 |
| ㄱ. 마구간이 있는 마루집 | ㄷ. 살림방을 놓은 집 |
| ㄴ. 마구간이 없는 마루집 | ④ 정주간이 있는 집 |
| ㄷ. 마루가 없는 집 | (5) 살림방이 증가된 집 |
| ③ 중간형 | ① 정주간이 없는 집 |
| ㄱ. 퇴 사람방집 - 중부내륙 | ② 정주간이 있는 집 |
| ㄴ. 정지방집 - 남부내륙 | ③ 근세형집 |
| ㄷ. 근세형집 | (6) ㄱ자 모양집 |
| | (7) 사방집 |
| | (8) 결 론 |

(4) 8칸집

① 칸수만 증가된 집

이 집은 그림 12(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백촌리 최 태호씨 태·75년 8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동형 마루집과 평면의 간살이가 거의 같으나 가운데의 마루와 안방이 좀더 크다는 점만 다르다. 이 집은 농가로서 부엌 앞에 <마구간>이 ㄱ자 모양으로 시설된다. 이것은 구조상 몸체의 서까래를 그대로 이어내려 만들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꿈은자집과는 다르며, 이러한 수법은 오래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집의 방위는 정남향이고(동해안에는 정남향집이 많다.) 구조는 3평주 3량집으로서 양통집의 특색을 보이며, 지붕은 초가이엉에 합작구조로 처리되었다.

정지간은 밭을 하는 부엌공간과 작업을 하는 봉당공간으로 이루어지므로 부엌마루가 안방 부분에만 시설된다. 바깥 측벽에 선반이 만들어 지고 출입하는 문들은 앞과 측벽, 그리고 뒷벽에도 시설된다. 마구간은 부엌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비껴서 만들어 지고 바른네모꼴 모양이다. 바닥은 봉당보다 낮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에서는 몸체의 용마루를 높게 하여 같은 높이로 이용하고 있다.

마루는 봉당쪽으로만 개방되어 있고 안방과 사랑, 그리고 바깥과는 외여닫이문으로 연결된다. 안방은 두 칸 크기의 마루보다 더 큰 반면 도장은 6칸 집에서의 크기보다 작다. 이 집 역시 영동지방의 특색을 보여 사랑이나 마루 앞에 쪽마루가 시설되지 않고 좁은 드럭만이 만들어 진다.

이 집은 조사 당시(1975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헛간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으나 뒤안공간이 잘 발달되어 있고 앞마당이 도로와 분리되어 만들어져 있어 농가의 특색을 보여 준다. 앞마당에는 담장이 없고 전면에 통로를 두어 출입하며, 그 옆에는 벤소간을 두고 있다. 마당에는 짚가리와 텃밭이 한쪽으로 놓여진다. 뒤안의 양 옆으로는 담장을 쌓고 뒤는 산자락과 연결함으로 해서 앞마당과 구분되는 폐쇄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에다 나무를 심어 외부로부터의 시선과 햇빛을 막도록 하였으며 가운데 뒤쪽으로는 장독대가 놓여진다. 이러한 집은 앞선 시대의 경우, 잘 사는 계층의 집으로 이용되었으리라고 추정되며 지금은 중농계층의 집으로서 중부 내륙지방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면구성이 태백산맥 서쪽으로 넘어 가면 보다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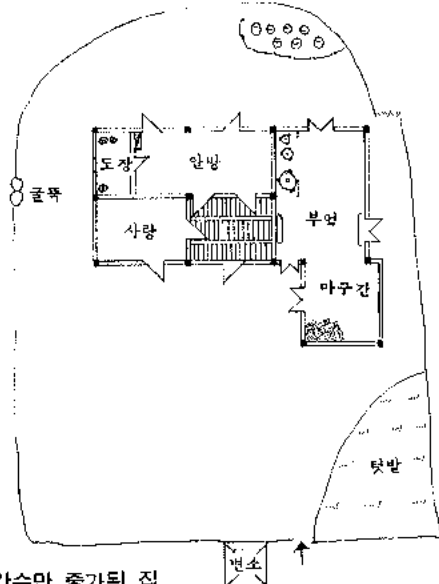


그림 12 : 칸수만 증가된 집

면으로 개방되는 경향을 보여, 가운데 마루가 꿈우자집의 뒷마루와 대청이 결합된 것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 그림 13(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암리 김 동선씨택·76년 11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 설명한 집과 똑같은 간살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4칸집이라고 부르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후자의 형태는 4칸 뒷집과 동해안의 양통집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평면의 간살이는 위에서 설명한 집과 거의 같으나 다만 다름과 같은 점들이 다르다. 그것은 부엌과 마루가 벽으로 막아져 있으며 두 공간의 연결은 부엌 대문을 통해서 외부와 통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엌은, 전자의 봉당기능이 마당으로 나가고 부엌 뒤쪽 부분은 취사공간으로, 앞쪽은 조리와 상보기 공간으로 쓰여진다. 안방과 부엌 사이의 부뚜막 상부에도 벽장을 만들었고 부엌의 바깥쪽 벽에도 벽장을 덧달아 나무의 저장과 찬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자는 안방이 마루보다 크지만, 이것은 안방이 조금 작다. 후자는 전자의 도장공간을 옷방이라 부르는데, 이곳은 도장과 용도가 비슷하긴 하지만 도장은 수장공간임이 강조되는 반면, 옷방은 잠자리를 겸용하는 예비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도장에는 외부로 직접 출입하는 문이 없지만 옷방에는 외부로 출입하는 문이 만들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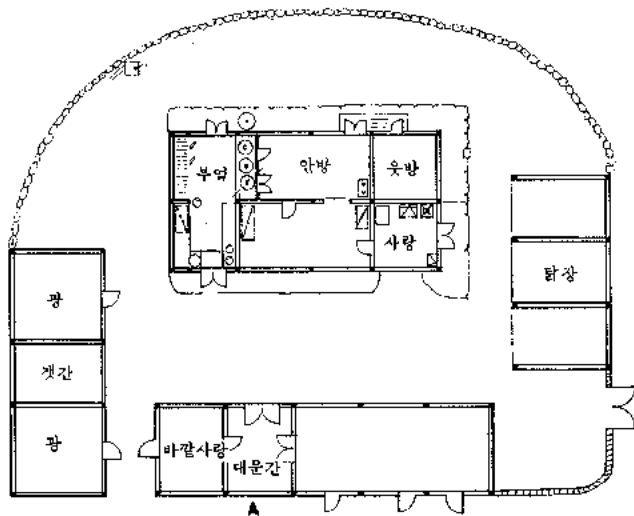


그림 13: 칸수만 증가된 집

뜨락(토방)은 영동지방의 경우 전면에만 시설하는 경우가 많으나 영서지방에서는 4면 내지 3면에 정확하게 만들어진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외양간을 부엌에 결달아서 짓는 경우란 드물며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사랑채에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 종합하면 평면 간살이는 영동식이지만 시설 및 설비는 영서지방의 다른 집과 연결되고 있다.

이 집의 마당 건너편에는 한일(一)자 모양의 행랑채가 두이(二)자 형식으로 나란히 배치되고, 그 모퉁이에 결채들이 지어져 있다. 행랑채에는 대문간과 바깥사랑, 그리고 한쪽으로 헛간이 만들어 지는데 현재는 잡사(雜舍)로 쓰고 있다.

구조는 맞걸이 3량 뱃집으로서 제치장 반자로 처리되었다. 마당 왼쪽 모퉁이에는 헛간채가 새로로 배치되어 광과 헛간으로 이용되고 오른쪽에는 닭장과 광이 만들어져 있다. 집 뒤에는 헛간채까지 담장이 둘러 쳐져서 뒤안이 놓여지고, 여기에 펌프를 시설하였다. 그러나 이곳의 뒤안은 앞마당과 서로 터져 있어 공간이 서로 이어진다. 사랑채 밖에는 바깥마당이 있고 변소는 이곳에 따로 놓인다.

안채의 구조는 3평주 5량집으로, 영동지방과 중부지역의

구조방식이 결합된 구조를 보이며 또한 덧서까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부 내륙지방의 한 특성이다. 방위는 동향이다. 이런 집들은 1950년대 이후, 현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3칸 겹집의 비좁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중부 내륙지방에서 중농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평면형태라고 한다.

②한쪽부엌집

최근에는 방을 크게 쓰는 경향이 있지만 전에는 방 하나를 한 칸 크기로 하는 수가 많았다. 설사 두 칸을 한방으로 쓰더라도 사이에 분합문을 두어 폐쇄하여 언제든지 한 칸 크기의 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물론 한 칸의 길이는 약간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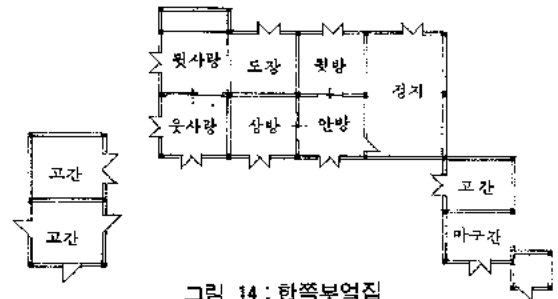


그림 14: 한쪽부엌집

다를 수 있다). 따라서 6칸 양통집이 규모가 큰 8칸집이 되었을 경우, 살림방을 증가시켜 부엌이 한쪽으로 가는 수가 있다.

이 때의 간살이는 그림 14(강원도 명주군 사천진리 박남규씨택·80년 6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6칸집에서 흔히 마려되는 마루는 살림방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되지 않은게 보통이다.

평면의 간살이는 오른쪽에 정지를 놓고, 그 옆의 앞쪽으로 안방·상방·옷사랑, 그리고 뒤쪽으로 뒷방·도장·뒷사랑의 순으로 배열한다. 정지간은 뒤의 부엌공간과 앞의 봉당공간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소여물 솔이 여기에 놓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출입문은 앞·뒤·옆에 나 있고 안방쪽의 셋문은 안방으로 연결된다. 안방에는 미닫이 혹은 분합문이 있어 상방과 뒷방으로 계속됨으로써 안방이 집의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도장은 뒷방과 뒤쪽으로 출입문이 나 있고 사랑방만은, 보통살림방으로 셋문을 시설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밖으로만 시설을 하여 사랑방의 외부지향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상방은 그 기능이 옷방과 비슷하여 우선적으로 결혼 전 아들의 거처방이며 뒷방이 여유가 없을 때는 딸의 방이 된다. 뒷방은 딸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신혼부부의 방이기도 하다. 도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장공간으로만 쓰인다.

이런 집은 규모가 큰 집이기 때문에 <마구간>이 바로 부엌에 결 달리는 경우란 드물고, 부엌 옆에 1자 모양으로 따로 결채가 배치된다. 이것은 다른 용도의 건물로 마련되지만 최근에는 건물에 덧 붙여서 1자 모양을 이루기도 한다(다음 참조). 이 결채에는 보통 <옷간>과 <마구간>이 놓이며 근래에 이르러서는 마구간이 부엌과 멀리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집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뒤안과 앞마당이 따로 마련되며, 뒤안은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시설하고 여기에 장독대와 나무를 심는다. 펌프는 부엌이 가까운 앞마당이나 옆에 놓이는게 보통이며 앞마당에는 담장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집의 구조는 3평주 3량이고 영동지방의 태백산맥 동쪽 원산에서부터 삼척사이에 적지않게 분포한다. 중농에서 조금더 잘사는 사농농 정도의 계층이 주로 이용하며 근래에 발생한

것으로 믿어진다.

③ 가운데 부엌집

집의 규모가 커질 때, 앞의 것은 살림방이 늘어 나는데 비해 이 집은 경리시설이 증가된 집이다. 따라서 부엌 한쪽에는 살림방들이 오고 다른쪽에는 외양간이나 고방이 오기 때문에 자연히 가운데로 부엌이 오는 집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양간이 판창로 나가기 때문에 그 대신 안살림과는 약간 관계가 먼 살림방—예를 들면 사랑방—등이 놓여지는 경향이 있다.

7. 외양간이 있는 집

이 집은 강원도와 경기도 내륙지방 및 황해도에 널리 분포하며, 특히 동해안쪽에는 함경도에서 울진지역, 경북 산간지대까지 분포한다.

경변의 간살이(그림 15)는 앞뒤 양통으로 나뉘어서 뒤쪽 중앙에 부엌이 오고 그 서쪽으로 아랫방과 웃방이 나란히 배치되며, 동쪽으로는 고방이 놓인다. 부엌 앞에는 아랫방당이, 아랫방 앞에는 웃방당이 배치되어 있고 아랫방당과 웃방당은 서로 개방되어 있는데 웃방당에는 흔히 마루가 깔린다. 아랫방당의 동쪽에는 외양간이 설치되고 웃방 옆에는 사랑방이 놓이며 사랑방 앞에는 전면으로 개방된 뒤탈마루가 시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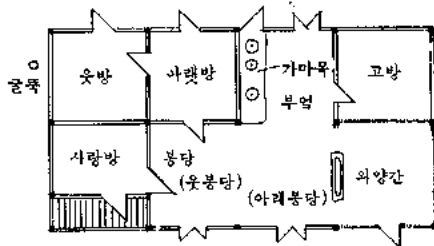


그림 15: 외양간이 있는 집

부뚜막과 아랫방의 부엌벽 사이에는 〈가마목〉이라 부르는 공간이 있다. 이것은 다른 지방의 주택에서 가마목이라 부르는 것과 비슷한 용도를 갖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더 크고 함경도 지방에 있는 〈정주칸〉보다는 훨씬 작아서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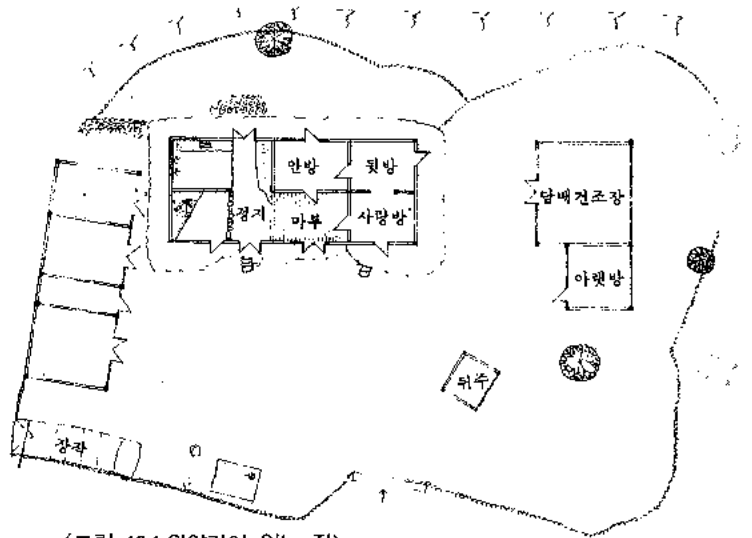
모든 방에는 앞뒤로 문이 나 있다. 뒤탈은 앞쪽보다 규모가 약간 작으며 울타리가 둘러쳐 지는데 이것은 양통집의 일반적인 특색이다.

광주산맥 동남쪽에 분포된 정주칸이 없는 양통집에는 안방과 웃방의 뒤탈에 〈뒤탈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집인 경우 부엌과 고방, 외양간·봉당 등의 외벽은 판자벽으로 되는 수가 많으며, 외양간은 7자로 꺾어져 트릭 아래에 만들어 지기도 한다. 또한 앞에서 말한 외양간 자리에 사랑방이 들어서고 원래의 사랑방은 〈판방〉이 되기도 하며 아랫방 앞의 봉당에는 안방마루가 깔리기도 한다.

이런 집이, 경북 산간지대에 이르르면 웃방을 뒤탈 또는 도장이라 불리우며 —동해안 지역에서는 모두 도장이라 함— 외양간 위에 다락이 시설되는 것이 보통이다(그림 16: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홍계동 임 태연씨택·81년 8월 조사)

이런 집의 경우, 살림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자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마루에서 고방까지 앞과 측면만 그렇게 하고 뒤탈은 흙벽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외벽을 판자벽으로 하더라도 민지널처럼 아랫부분인 정우리까지만 판자로 하고 상부벽은 역시 흙벽으로 한다. 물론 흙벽처리를 하고 있다. 북쪽에서는 고방과 부엌공간을 막는데 반해 남쪽에서는 개방하는 경향이 있다.

안방과 아랫방은 비슷하게 이용되며, 웃방과 뒤탈 역시 비슷한 기능이지만 웃방이 안방에 딸리는 것이 강조되는 반면



(그림 16: 외양간이 있는 집)

뒤탈은 사랑방에 딸리는 성격이 짙다. 반면 도장은 수장공간이 기능인데 고방이 따로 있음으로 해서 그 기능이 약화되어 같은 공간 위치에 다른 방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몸채 안에 경리시설이 들어와 있다 해도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집에서는 따로 헛간재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앞마당에 놓이며 보통 부엌쪽에 7자로 배치된다. 뒤탈은 외부와 폐쇄되어 따로 만들어지며 여기에 장독대와 감나무 등이 심어진다. 앞마당에는 뒤탈·샘·질가리 등이 배치되고 담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설사 담장이 있다해도 대문은 시설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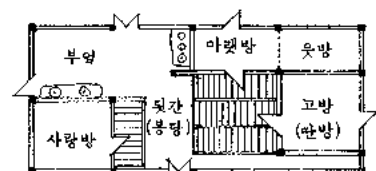
구조방식은 3평주 3랑식이며, 대공은 가운데 기둥이 서 있는 위치와는 별로 상관없이 종도리와 판련을 가지면서 세워진다. 한편 부엌·봉당·고방·외양간 사이에 세워지는 기둥은 통채기둥(高柱)으로서 바로 종도리를 받게 한 것도 있다.

이러한 집은 구조방식·간살나누기 등으로 비루어 추측할 때, 상당히 고전적인 양식의 집임을 알 수 있다.

산간지대에 분포하는 이런 집에는 봉당으로 봉하는 때문이 외에는 출입문이 거의 없으며 긴 살창이나 새살로 된 늘창문이 붙는게 고작이다. 이는 국가의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산간지대에서 도둑에 대한 방어를 고려했기 때문인 듯 하며, 이용하는 계층은 中上의 자영농 계층으로 비교적 잘 사는 집에 속한다.

L. 외양간이 없는 집

몸채에 외양간이 설치되지 않을 때는 외양간 위치에 사랑방이 놓이는 것이 보통인데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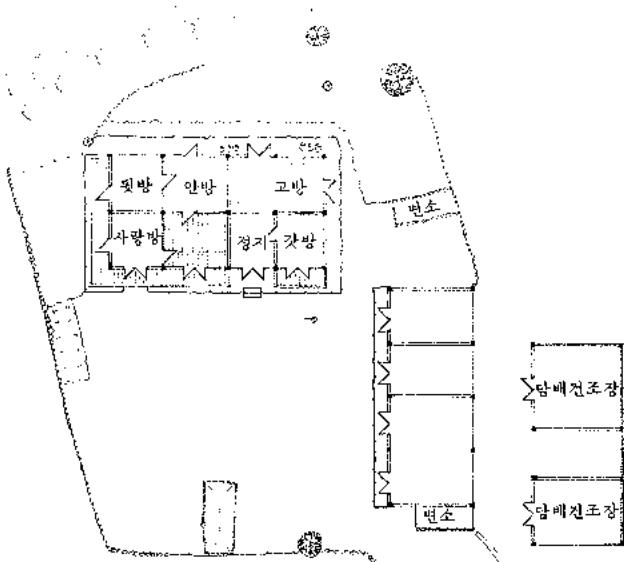
(그림 17: 외양간이 없는 집)

뒤탈 칸의 서편에 좌우 2칸으로 부엌이 만들어지고, 동쪽으로 아랫방·웃방이 놓이는데 흔히 이 두 방은 개방되어 통간으로 이용된다. 웃방 앞에는 고방(또는 판방)이 만들어진다. 전면의 중앙 좌우 2칸은 봉당으로 쓰여지며, 아랫방 앞에는 마루가 시설되는 수가 많고 안방마루 서쪽의 봉당공간은 헛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전면의 맨 서쪽, 즉 외양간의 위치에는 사랑방이 시설되며 헛간쪽으로 뒷마루가 놓인다. 따라서 모든 방의 이용이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봉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랑방과 판방에는 밖으로 통하는 문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으며, 대신 옆으로 긴 창살이나 세살로 된 들창문이 붙는다. 집에는 외부로 난 문이 거의 없고 헛간(봉당)에 대문 하나만을 설치하여 이것을 이용한다. 이러한 집들이 남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면구성을 보인다(그림 18:경북 양양군 석보면 홍계동 김 춘택씨백·81년 8월 조사).

이집에서는 부엌이 뒤쪽의 동쪽 2칸에 놓이는데 끝쪽 칸은 고방으로 이용된다. 고방의 앞으로는 갯방이 딸려있고 부엌의 서쪽에는 안방과 뒷방이, 그리고 상방 서쪽에는 봉당·마루·사랑방의 순으로 배치된다. 또한 쪽마루가 갯방 앞과, 마루 앞에서부터 사랑·뒷방의 앞과 열까지 죽 놓이게 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열거한 예보다 훨씬 개방적인 평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8 : 외양간이 없는 집〉

또한 살림방만이 흙벽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판자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흙벽보다 고전적인 방식인듯 하다. 갯방과 판방은 거의 비슷한 용도로서 건넌방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데, 사랑방과의 위치가 서로 바뀐 것은 남과 북의 가정 생활에 대한 관습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남쪽에서의 갯방은 식구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장공간으로 이용되는 수가 많다.

이집 역시 헛간채가 부엌쪽에 7자 모양으로 놓이는데 4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안 또한 외부와 폐쇄되어 정원공간으로 잘 가꾸어져 있고, 변소는 헛간채 뒤의 집 모퉁이에 시설된다. 마당에는 짚가리·땔감더미·텃밭 등이 만들어져 있다.

구조는 3평주 5량집으로 대단히 잘 지은 집이다. 따라서 양통집인 경우, 만가는 보통 3량으로 처리하지만 잘 사는 집에서는 5량집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위는 남에서 약간 동으로 돌아 앉은 임좌병향(壬坐丙向)이다.

이용하는 계층은 역시 11.1의 자영농 계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중상이라는 뜻이지 경제적으로는 타지역에 비해 풍족했으리라곤 생각되지 않는다.

㉔. 살림방을 놓는 집

양통집이 태백산맥 서쪽으로 넘어 가면, 그것의 일반적인

특색과는 전혀 다른 경리시설물인 헛간채를 따로 두며 몸개 안에 있던 고방과 막구간 대신 사랑방이 만들어 진다 (그림 19: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 2리 이 현범씨백·77년 8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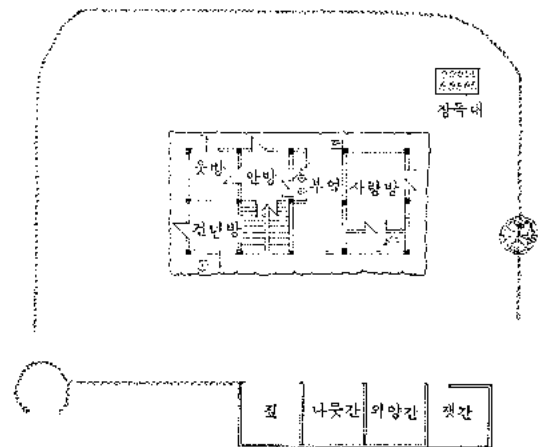


그림 19 : 살림방을 놓는 집

이러한 집은 경기도 내륙 산간지대에 분포하며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다.

구조는 3평주평 4량(三平柱平四梁)집으로 처리되어 중부 내륙지방의 일반적인 특색을 보여준다. 방위는 신좌을향(申坐乙向)으로서 북으로부터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양통집인 경우 안방이 뒤쪽에 있음으로 해서 있을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며 태백산맥 서쪽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평면의 간살이는 앞뒤 양통으로 나누어 뒤쪽의 가운데에 부엌을 놓고 왼쪽으로 안방과 웃방을 놓는다. 부엌 앞에는 봉당공간을 시선하며 왼쪽으로는 (대청마루)와 건넌방을 놓는다. 부엌과 봉당의 오른쪽에는, 상하칸을 통간으로 한 사랑방이 배치된다. 다시 말해서 외양간이 없는 집에서 사랑방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전면의 가운데 마루를 대청마루라 부르는 것은 서쪽의 대청과 동쪽의 마루가 개념적으로 합쳐져서 발생한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전면이 개방되는 대신 봉당쪽으로 막아진 것은 태백산맥 서쪽의 특징이다. 또한 안방으로만 출입문이 나 있고 건넌방으로는 개구부가 없어 이곳은 사랑방의 성격을 나뉘어 되고 있다.

부엌공간과 봉당공간은 개방되어 있고, 각각의 앞과 뒤쪽에 개구부가 있는데 창호가 시설되지 않는 것이 중부내륙의 특징이다. 또한 다른 방으로의 출입시설도 없어 식사를 봉당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봉당 전면의 드려를 통하여 마루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이 편리한 공간이용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사랑방 앞에는 아궁이가 있고, 그 위에는 벽장이 만들어져 있다. 출입문은 오른쪽 바깥에서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랑방으로의 동선이 안살림과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웃방에는 안방과 연결되는 갯문이 있으나 건넌방과의 사이에는 없어, 웃방이 안방에 소속되는 수장공간의 성격임을 말해 준다.

헛간채는 안채 맞은 편에 사랑방쪽으로 치우쳐서 안채와 나란히 놓여진다. 이것은 4칸 맞걸이 구조로서 갯간·외양간·나룻간·헛간으로 구성된다. 갯간은 4면이 토담으로 싸여 있고 오른쪽 측면에 출입구를 두어 짚으로 짠 <섬>으로 가리고 있다. 외양간과 나룻간·헛간은 전면이 개방되어 있어 안마당과 연결되며, 다른 벽돌은 간이시설로 막아져 있다.

이 집으로의 출입은 마당 동쪽에서 할 수 있으며, 내문시

설은 없으나 건물의 위쪽은 간단한 담장으로 둘러쳐 있다. 그러나 뒤안공간은 만들지 않았고 바로 앞마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독대는 뒤쪽에 놓인다. 또한 앞마당이 협소하고 집주위에는 대추나무와 밤나무 등의 유실수가 심어져 있다. 이러한 집의 발생은 20세기 초 이후라고 믿어지며, 이 용제촌은 중상농에 해당된다고 본다.

영동지방에서는 집안의 생활이 부엌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엌을 크게하고 평면의 배열을 달리하는 수가 있다. 즉 그림 20(강원도 평주군 사천진리 신 복수씨백·80년 6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동간의 앞쪽 가운데에 봉당을 놓고 왼쪽으로는 <큰구들>과 사랑방을 배치한다.

봉당 뒤에는 부엌이, 그리고 그 왼쪽으로 뒷방·도장의 순으로 배열된다. 이것은 영동형 구들집의 평면과 거의 같은데, 다만 오른쪽 앞으로는 마루가, 뒤로는 전년방이 마련된다는 점이 다르다. 여기에서의 마루방은 일단 식사공간이 되어 봉당쪽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출입구만이 있을 뿐이다.

<정주간> = (부엌+봉당)에는 앞뒤의 출입문뿐만 아니라 각 방과도 연결되는 출입문이 시설되어 있어, 이 집의 생활은 완전히 정주칸을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의 다른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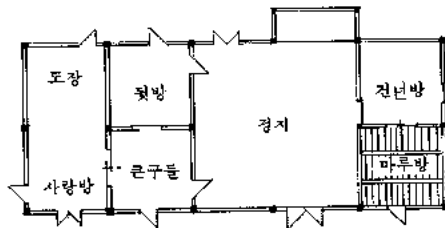


그림 20: 살림방을 놓는 집

④ 정주칸이 있는 집

이 집은 8칸집으로서 정주칸이 있는 것이 특색인데 남립산맥의 북쪽 함경북도 지방에 분포한다(그림 21).

집의 중앙 뒤편에는 부엌이 있고, 부엌 앞에는 부엌과 서로 개방되어 있는 <바당>이 놓인다. 이곳의 서쪽은 부뚜막이 되어 솔이 걸리고 안쪽으로는 이른바 정주칸이 만들어진다. 정주칸 앞쪽에는 작은방이 마련되기도 하는데, 요즘은(20세기 중반)에는 두지 않는 경향이 많다.

정주칸의 서쪽 뒤로는 안방과 고방이 차례로 놓이며 그 앞으로는 셋방과 웃방이 배치된다. 그리고 이들 방 앞으로는 전면이 개방된 뒷마루가 시설된다. 부엌의 동쪽에는 방앗간이 만들어지고 그 앞에는 외양간이 배치되며, 외양간과 마당 사이에는 구유가 놓여져 경계를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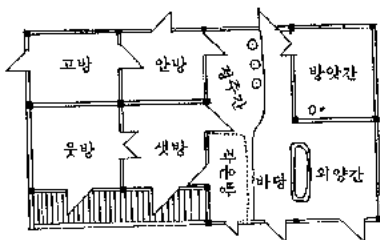


그림 21: 정주칸이 있는 집(함북)

이런 집들의 앞뒤로는 각각 뜰이 있으며 대개 부속사 없이 구성된다. 웃방과 셋방에는 쌍미달이인 이중문을 달고 고방의 굴뚝쪽에는 광창(光窓)을 시설하는데, 근태에 와서는 큰 출입문을 달기도 한다. 그리고 방앗간의 광창은 보통 동쪽으로 낸다.

이 집의 생활은 정주칸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식사와 잠자리, 가족의 모임 등을 갖는다. 그러나 남자 어른들은 거처하지 않고,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쓰는 방이라는 점이 다르다.

정주칸과 부엌 사이에 솔이 걸리고 정주칸 뒤편에는 <조왕간>이라 불리우는 시렁이 시설된다. 정주칸은 아궁이에 불을 뿜을 때 더워지는 실내온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주거공간이다. 따라서 부엌과 정주칸은 외부와 완전히 밀폐되어 있으며 집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정주칸이 있는 집에서는, 부엌과 정주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좌우에 방과 경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방의 벽이 가능한 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려한 것인 듯하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양통집은 방을 두줄로 배치함으로써 적어도 칸막이 벽이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셋방은 다른 지방의 사랑방에 해당된다. 웃방은 아들부부나 장성한 자녀들이 거처하며, 젊은 부부가 이 방을 쓰게 될 때면 신혼살림을 들여 놓고 아거자기하게 꾸며 쓴다. 셋방과 안방 사이에는 가품 셋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웃방과 고방 사이에는 <사랑방> (또는 사랑방이라고도 한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신주를 모셔 놓는다. 바당은 그 기능이 봉당과 거의 같다. 이 집의 특징은 방앗간이 집의 몸체 안에 시설된다는 점이다. 함경북도에 분포하는 이런 집에서는 중농 이상의 자영농들이 살고 있다.

8칸의 정주칸이 있는, 함경남도의 보편적인 주택평면은 다음과 같다(그림 22).

집의 중앙에 자리한 정주칸을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 아랫방과 웃방을 차례로 놓고, 이들 방의 뒤로는 대략 반칸 크기의 아랫고방과 웃고방이 배치되며, 앞으로는 전면이 개방된 토방에 마루를 깔다. 정주칸의 왼쪽에는 서로 개방된 부엌과 <바당>이 만들어지고 부엌의 왼쪽 뒤편에도 바당공간이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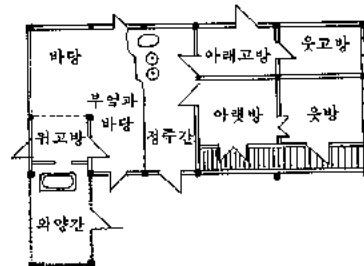


그림 22: 정주칸이 있는 집(함남)

되어 설치된다. 그것의 앞으로는 뒷고방이 배치되고 뒷고방 앞에는 본채와 덧대어 외양간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방앗간은 일반적으로 몸체에 시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채를 따로 두는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몸체의 칸 수를 늘려 나가는 것이 이 지방의 주거 풍습인 듯하다.

사랑채를 따로 두는 경우는 외통집의 통례이다. 사랑채를 옆채로 가질 경우엔 사랑방·사랑정주칸 및 바당·고방·수레간, 때로는 대문간으로 구성된다. 사랑채를 앞채로 가질 경우는 대문간을 반드시 두게 된다. 만일 대문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질 때는 지붕이 달린 대문으로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사랑채나 경리시설물을 가지는 경우와는 달리 몸체의 규모가 보통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즉 정주칸이 있는 양통집은 8칸집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보다 작은 6칸집이나 그 이하의 크기로 되기도 하는 것이다. 6칸집이 되면 8칸집에 설치된 (웃)고방과 웃방이 없어지게 되나 그보다 작은 4칸집이 되면 외양간과 방앗간마저 없어지게 된다(이것은 III자집 평면과 같다). 정주칸이 있는 양통

집이 4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더 줄어들게 된다면 그 때는 3칸이나 4칸 외통집으로 변한다. 이처럼 집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

(5) 살림방이 증가된 집

① 정주칸이 없는 집

정주칸이 없는 양통집은 8칸이 보통이나 확장될 경우에는 10칸이 되며, 확장된 부분은 살림방이 된다. 여기에다가 행랑방과 부엌·외양간 및 고방으로 구성되는 행랑채를 갖는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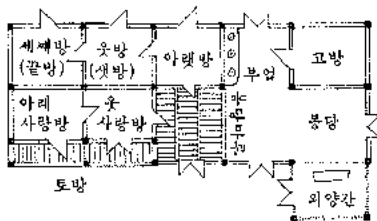


그림 23: 살림방이 증가된 정주칸이 없는 양통집(강원도고산지방)

평면의 간살이는 뒤쪽 중앙대 부엌을 두고, 그 서쪽으로 아랫방·옷방·세제방이 차례로 배치되며 동쪽으로는 고방이 시설된다. 부엌 앞은 불당이 되고 그 외쪽으로 <불당마루>와 옷사랑방 및 아래사랑방이 놓이며 사랑방 앞으로는 <외방>(벚마루)이 시설된다. 고방 앞에는 외양간이 시설되기도 하나 외양간이 몸채 앞쪽으로 나와 배치되고 외양간의 자리까지 불당을 넓혀 쓰기도 한다. 다만 앞에서 말한 8칸 양통집과 다른 점은, 집의 왼쪽 끝에 세제방과 아래사랑방을 더 늘려 지었다는 점이다.

여기가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끝방이 도장으로 이용되고, 대신 부엌 서쪽의 고방과 외양간의 위치에는 깃발들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살림방이 증가되는 것은 농가의 생활이 약화된 근래의 일이라 생각된다. 살림방의 천정은 고미반자로 하고 바루는 연등천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강원도 산간지대에서는 마루 위에도 서까래를 병으로 걸쳐 평반자를 하는 수가 자주 있다.

이런 집에 따로 결재로서 독립채를 가질 경우, 행랑채라 부르는데 행랑채는 행랑방·부엌·외양간·고방 등으로 구성된다. 뒷뜰과 앞마당이 따로 마련되며 뒷뜰에는 과일나무와 우물·장독대 등이 놓이고 변소는 집의 모퉁이에 만들어진다.

강원도 고산지대의 부유한 농민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은 그다지 많이 분포하는 것 같지는 않다.

② 정주칸이 있는 집

양통집은 경리시설물은 판채로 부설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이번에는 판채를 가진 양통집을 살펴 보자(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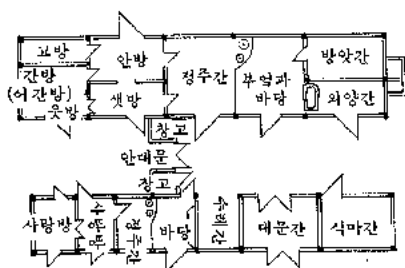


그림 24: 부속건물을 가진 정주칸 있는 양통집(함경도)

이 집은 본채와 사랑채가 두이(二)자 모양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에 안대문을 세로로 덧달아 넣으로써 집 전체의 모양은 ㄷ자 꼴이 된다. 이런 집에 부설되는 사랑채는 외통집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평면의 상세한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채 = (몸채)는 앞에서 얘기한 정주칸이 있는 양통집과 거의 비슷한데 집의 가운데에 부엌과 바당공간이 설치되고 여기에서 부뚜막과 연결되어 정주칸이 마련된다. 정주칸 왼쪽에는 앞으로 셋방과 뒤로 안방을 배치하고, 다시 그 왼편에 앞에서부터 옷방·어간방·고방 순으로 배치된다. 그런데 어간방은 따로 마련되지 않고 옷방과 고방만으로 된 집도 더러 있다. 부엌과 바당의 오른쪽에는 뒤로 방앗간과 앞으로 외양간이 배치되며 외양간과 바당 사이에는 구유통이 놓여져 경계를 짓고 있다.

사랑채에는, 부엌 맞은 편에 대문이 시설되고 그 오른쪽에는 석마간이 배치되며 왼편으로는 수레간이 안마당 쪽으로 개방되어 배열된다. 그리고 차례로 바당공간과 정주칸이 놓이고, 그 왼편으로 사랑방 2칸이 배열된다. 안대문은 몸채의 정주칸과 사랑채의 정주칸을 연결하여 주거공간과 영농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안대문간의 양편에는 창고가 시설된다.

함경북도 지방에는, 원래 정주칸과 셋방 사이에서 시작하여 몸채를 둘러싼 앞담장까지를 안대문이 달린 담장으로 연결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거공간과 영농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내외 풍습에 따라서 남녀자와 공간과 남성의 활동공간을 경계짓는 구실로 했던 것이다. 사랑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통집인 것이 통례이지만 몸채와 수식으로 앉아서 그자집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문이 사랑채 안에 시설되지 않을 때에는 지붕이 있는 별개의 건물로 시설된다. 이런 집은 함경도의 평야지대에서 부농의 집으로 이용된다.

③ 근세형집

20세기 초에 이르러, 조선조의 신분제에 의한 집의 규모 제한이 사라지면서 집을 크게 짓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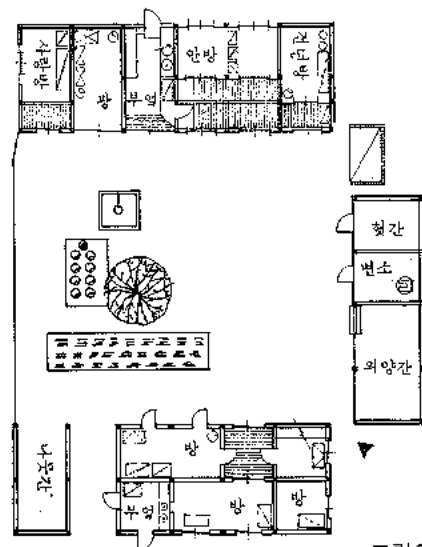


그림 25: 근세형 집

부내륙 지역에서는 결집과 유사한 양통집 형태가 크게 유행한다. 이 경우 주생활의 중심이 되는 부엌이 집의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한일자집이 지어졌던 곳에서 많이 쓰여졌다. 구조방식은 1고주평 4량과 3평주평 4량 덧서까래여서 중부내륙 지방의 특색을 보여준다(그림 25: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 2리 최 대영씨택, 77년 8월 조사).

평면의 간살이는 전면 6칸, 측면 2칸으로서 왼쪽부터 앞으로 뒷마루, 그리고 뒤에 사랑방을 두며 그 옆으로는 앞 뒤 칸을 개방하여 광을 둔다. 다음은 집의 가운데가 되며 앞 뒤 칸을 개방하여 부엌을 만들었다. 부엌 오른쪽 2칸은 전 후로 나누어, 앞쪽은 마루로 쓰고 뒤쪽은 안방으로 이용한다. 맨 오른쪽 칸에는 뒷마루가 마루로 연결되며, 뒤로는 건넌방이 놓인다.

마루 전면은 4짝 미서기 유리문으로 연속되었는데 이것은 20세기 초에 나타난 기법이다. 바깥 측면은 막아졌고 부엌과의 사이에는 섯문이 있어 밥상을 들이는데 이용한다. 안방 및 건넌방과 마루와의 사이는 창호지를 바른 4짝 미서기문이 계속되어 대단히 개방적인 면은 볼 수 있다. 뒤쪽으로도 채광을 위한 미서기창이 시설되는데 이런 수법들은 건물에 유리를 사용한 이후의 일이다.

부엌에는 앞으로 미서기문과 뒤로 미닫이문이 만들어 진다. 부뚜막은 안방쪽에만 시설되고 상부에는 벽장을 설치하여 부엌 상부는 다락으로 이용된다. 광에는 전면에만 출입문이 있고, 사랑방에도 전면에 미서기문이 중복해서 놓여지며 측면에 채광창이 나 있다. 이런 집은 대단히 큰 집으로서 보통 3~4채로 구성되며 안채 맞은 편에 도로와 면해서 사랑채가 배치되고 마당을 중심으로 동쪽에 헛간채가 놓인다.

사랑채 또한 양통집으로서 정면 4칸 측면 2칸집이다. 맨 동쪽 앞뒤 칸은 온돌로 꾸몄고 이 방 서쪽 옆의 마당쪽으로 마루가 설치된다. 마루의 서쪽 옆에는 좌우로 긴 방을 만들고 있다. 마루 남쪽에는 다시 가로로 긴 방이 양통으로 배치되며 이 방의 서쪽에 부엌이 놓인다.

헛간채는 안채와 사랑채의 모에 놓이며, 크기는 3칸이고 맞길이 3방이다. 남쪽 두 칸은 외양간으로 만들었고 외양간의 북쪽에 번소가 배치된다. 외양간의 구유통은 중앙칸에서 안마당쪽으로 놓여지며 번소의 출입문도 안마당쪽으로 나 있다. 번소칸의 북쪽에는 헛간채의 벽에 의지해서 헛간을 붙여 달고 있다.

사랑채의 서쪽에는 2칸의 나무청을 배치했고 안채의 동쪽에 헛간채와 한줄로 돼지우리가 만들어져 있다. 대문은 헛간채와 사랑채 사이에 있으며 출입을 위한 시설물은 없다. 안마당의 부엌 앞에는 펌프가 시설되었고 주변에는 양회로 만든 배모 난 샘터가 있으며 그 앞으로 장독대가 놓인다. 안마당의 서쪽은 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장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건물의 외벽이 담장 역할을 하며 다만 안채와 헛간채 사이에 짧은 담장이 설치된다.

이 집은 20세기 중엽에 지어졌고, 한옥 기와지붕으로(반)쪽 소로를 붙인 소로수상집이며 대지주의 부농집이라 할 수 있다.

(6) ㄱ자 모양집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집의 규모가 커지자 한일자 모양집으로는 집의 길이가 길어져 주부의 동선이 길어지므로 이를 막기 위해 집을 ㄱ자로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되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중부 경기지방의 구조방식이었으나 평면의 구성방법은 이 지역의 생활관습과 연관을 가지면서 발전하였다. 즉 중부지방에서는 집이 안방에서 구부러진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부엌에서 덧달아 가는 형식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이다.

즉 6칸집이나 8칸집의 평면에 부엌 바깥으로 경리시설을 덧붙이는 종래의 방식과는 달리, 이것을 ㄱ자로 구부러진 곳에 덧달아 가는 방식으로서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6: 강원도 명주군 사천진리 박 문씨택·80년 6월 조사).

부엌은 왼쪽에 상하칸으로 두고, 오른쪽의 앞쪽으로는 안방·옷방·사랑방이, 그리고 뒤쪽으로는 뒷방·도장·꼴방이 차례로 배치된다. 부엌의 앞으로는 ㄱ자로 구부러진 모양의 공간이 배치되는데 보통은 <마구간>·<곳간>의 순으로 놓인다. 물론 근래에는 외양간이 단채로 나가고 이곳을 <곳간>이나 <헛간>으로 대신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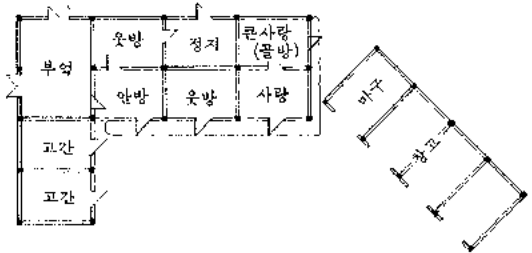


그림 26 : 강원도 명주군 사천진리 박씨집

이런 경리시설은 원래 단채로 부엌 앞에 지어졌던 것이나 근래에 와서 ㄱ자 모양의 구조 방식이 가능케 되므로 해서 발생한 것이라 믿어진다. 이런 집이 규모가 커질 때는 헛간채를 단채로 둔다. 이는 중농 이상의 부농들이 이용하는 집이며 보통 대가족을 수용하는 경우 안방은 부모, 옷방은 신혼부부, 뒷방은 딸, 사랑방은 아들의 방으로 이용된다.

(7) 사방집

사방집은 세집집이라고도 부르는데, 집이 사방 어디에서 보아도 똑 같다는 의미에서 사방집이라고도 하고 방이 3집으로 되었다고 해서 세집집이라고도 한다. 한편 이것은 까치구멍을 부엌 위에 시설하므로 까치구멍집이라고도 부르나 후자는 안동지방의 양통집(까치구멍집)까지를 모두 포함하므로, 전자가 집의 평면 구성에 의한 분류라 한다면 후자는 구조적 형태에 따른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집은 정주간이 없는 양통집과 함께 광주산맥 동남(철령 이남)지방에서부터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경기·강원울 거쳐 충북·경북의 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적은 수자가 분포한다. 또한 이것은 오래된 양식의 집인듯,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가계 등의 특수용도에 자주 이용된다. 농가로서는 큰 집으로 산간지대에서는 부농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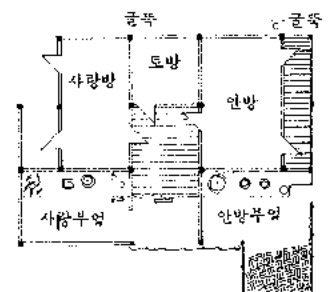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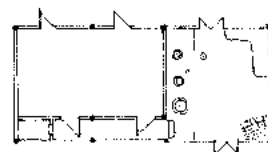


그림 27 : 9칸 사방집

평면구성은 3칸×3칸의 9칸집과 4칸×3칸의 12칸 집이 있는데 집의 모양은 전자가 바른메모꼴이고, 후자는 긴메모꼴이다. 대문은 짧은 변쪽으로 내고 있어 우리나라 민가에서 유일하게 옆으로 들어가는 건물이다. 까치구멍(합각)도 대문쪽을 향해 있어 옆으로 들어 가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나 마당은 방 앞에 있어서 뒤뜰처럼 대문 앞의 공간과 구별된다.

9칸집의 평면구성(그림 27: 충북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74년 7월 조사)은, 원편에서 앞으로부터 큰방부엌·큰방·옷방이 놓여지고 중앙에는 봉당·공청·고방의 순으로 배열되며 우측으로는 사랑부엌·아래사랑방·웃사랑방이 차례로 배치된다. 큰방과 옷방의 좌측면 및 아래사랑방과 웃사랑방의 우측면에는 뒷마루가 각각 깔려 있다. 사랑부엌에 덧붙여져 앞으로 외양간을 만드는 수가 있는데 이처럼 외양간이 몸채로부터 나오는 것은 정주간이 없는 양통집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처마만 길게 해서 그 아래에 만드는 것이다.

이런 집이 남쪽으로 오면 안방과 옷방을 터서 크게 한방으로 쓰며, 사랑방도 그렇게 하고 고방을 꿩이라 불러 헛구들(불이 들지않는 구들)을 놓기도 한다. 봉당은 드럭이라고 하기도 하며 대문없이 전편을 개방하고, 사랑방 옆에는 마루를 시설하지 않고 흙바닥으로 쓰기도 한다.

봉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대문이 주출입문이며, 나머지 보조 출입문으로는 판자로 된 사랑부엌문과 외양간문이 있다. 모든 살림방에는 외부에서 직접 들어 갈 수 있는(지계)문이 나 있고 옷방에는 광창도 시설되어 있다. 일단 집안의 주출입문인 대문을 들어서면, 봉당을 지나 <공청>—(대청)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각 방으로 통하는 문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봉당과 공청 사이는 벽이 없이 개방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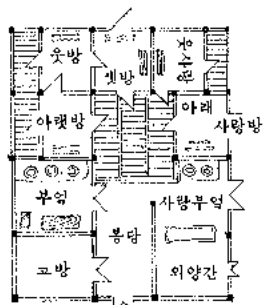


그림 28: 12칸 사방집

고 사랑부엌과 외양간은 구유가 놓여져 구분되고 있다. 뒷마루 앞은 여느 집과 같이 개방되어 있다. 부엌과 봉당은 흙바닥이고 공청에는 마루가 깔려 있으며 각종 방은 구들로 되어 있다.

12칸 사방집(그림 28)은 기본적으로 9칸집과 같으며 전면에 3칸이 덧붙여 진다는 점이 다르다. 덧붙인 3칸은 집의 앞에 붙어서 몸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된 오른쪽의 외양간과 왼쪽의 고방 및 기존의 봉당으로부터 이어져 확장된 봉당으로 이루어진다. 대문 옆에 설치되는 원래의 고방은 <셋방>으로 바뀌어서 살림방이 된다. 사방집에 있어서의 공청은 외통집의 대청과 그 형태와 기능면이 매우 유사하다.

집의 구조는 대부분 전면과 양측면의 외부에만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 뼈대식 방법을 쓰며, 나머지는 토담이나 귀틀을 둘러서 그 위에 도리만을 얹는 절충방식을 쓰고 있다. 지붕틀의 구조법은 2고주5량(二高柱五樑) 방식과 같으나 다만 퇴보(개보)가 한 칸 크기로 긴 것이 다르고 종도리 끝에 까치구멍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사방집은 6칸 양통집(특히 안동형)에 3칸 외통집의 방 배열방법을 결합하여 발전시킨 형태라고 믿어진다. 이러한 집은 그 규모가 크고 건설 공정이 복잡하며 좋은 건설자재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짓는다. 그러나 채광과 통풍이 잘 안되어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치안능력이 미치지 못하던 산간지방에만 분포되어 있다.

(8) 결론

민가에 있어서의 양통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토의 거의 반인 태백산맥 동쪽의 주민들의 집이며 대단히 오래된 양식이란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6칸 양통집은 고대에 완성된 평면이라고 추측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외형이 가야(伽倻)의 가형토기(家型土器: 지붕이 기와이고 외벽에 창과 문이 그려진 것)와 똑같이 때문이다. 이것의 구조방식은 3평주3량으로, 종도리는 내밀보 방식의 구조기법을 쓰고 지붕의 모임부분에는 소위 <까치 구멍>이라고 하여 합작 처리한 것이 구조방식에 있어서의 전혀 빈틈이 없는 완성기같은 느낌을 준다. 이 부분의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나른 구조면에서 설명되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붕의 합작(까치 구멍-부엌의 연기가 빠지기 위한 구멍)의 구조처리가 절묘해서 완벽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평면의 구성도 실내에서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되었으며 앞마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서부지역 주택의 평면구성과는 구분된다. 이들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안동지방의 것, 또 하나는 영동지방의 것, 그리고 세번째로는 함경도의 것이 있다. 첫째는 경리공간과 살림방이 앞뒤로 나뉘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들이 좌우로 나뉘며, 세번째는 부엌과 살림방 사이에 <정주간>이 놓이는 형이다(III자집과 사방집은 엄밀하게 양통집과는 구분되나 그 줄기는 같은 것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포함했다). 오래된 집에서는 집안의 가운데에 마루(대청)가 있기 마련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공간이 구들로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마루는 남방·구들은 북방」이란 설은 상당히 근거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구려의 살림집 자리에서는 자주 온돌시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토성리유적), 동시에 고구려 벽화에서는 마루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미천왕릉, 약수리 벽화무덤, 안악 2호무덤, 흙무덤 등). 따라서 구들의 연원도 오래지만 마루의 연원도 그 이상으로 오랜 것으로 보인다. 마루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평상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좌식(坐式)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양통집의 평면에는 서북지역의 외통집 평면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안동형의 마구간 있는 마루집(그림 3)에서 경리시설인 마구간과 봉당을 없애면 바로 곱은자(ㄱ자) 집이 됨을 알 수 있고, 영동형의 마루집(그림 3)은 제주도의 3칸집(작은방 없는)과 유사하다. 또한 8칸 가운데 부엌집의 외양간이 없는 집(그림 16)은 삼남지방에서 널리 이용되는 4칸 퇴집 또는 4칸 겹집과 유사한 평면형태를 갖는다. 더구나 6칸 양통집은 전면으로 살림방이 증가되어 사방집(세마루집)이 되고 이것은 파리집·모자집과 그 평면형태가 연결된다. 필경 양통집의 평면은 우리나라 민가의 고전적 양식으로서, 여기서부터 많은 갈래가 나왔다고 믿어진다. (한국민속대관 2, p. 651 참조) (*)

□ 말은 일에 대한

공정적인 行動指針

가르샤將軍에게 보내는 메시지

엘버트 후버드



모든 쿠바事件에 있어서 화성처럼 내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스페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폭도들의 지휘자와 조속한 연락을 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가르샤將軍은 쿠바섬의 요새지인 어느 곳인가에 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우편이나 전신으로도 그에게는 연락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조속히 그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말했다.

“아무라도 좋으시다면 자기가 나서서 가르샤를 찾아 내겠다는 로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로완은 가르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쿠바섬으로 떠났다. 로완은 그 편지를 주머니에 넣어 가슴에 품고 보트를 저어 나흘만에 쿠바섬 해안에 상륙했다. 그리고 도보로 전국을 횡단하여 — 숲속으로 숨어서 — 3주일만에, 그 섬의 반대편 해안으로 가 드디어 가르샤將軍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다.

그가 가르샤將軍에게 편지를 전

해 주기까지의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것이다. 맥킨리는 로완에게 편지를 주었다. 그리고 로완은 그 편지를 받고 “가르샤將軍은 어디쯤 있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다.

이 나라는 작 대학에다 그의 동상을 세워 영원토록 그를 기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책만을 보고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학문을 강의하고자 함이 아니라 로완이 가르샤將軍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간 것과 같이, 청년들로 하여금 온 정력을 다해 맡은 바 임무에 성실을 다하도록 교훈하기 위함이다.

지금 가르샤將軍은 고인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른 가르샤들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우선 그들의 무능력과 일을 하기 싫어하는 성벽에 놀랄 것이다. 주작없는 조력, 바보와 같은 부수, 무관심, 그리고 성의없는 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통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 주도록 매리거나 위협하거나 뇌물을 쓰거나 또는 하나님 이 기적을 행하여 협조자를 보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나움과 같은 것을 실현해 보십시오.

당신이 6명이나 되는 사원 중에서 아무나 한사람 불러 이렇게 요구하여 보십시오.

“백과사전을 찾아서 <코리기오>의 생애에 대한 간단한 배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원은 “네”하고 대답한 후 곧 그 일에 착수할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당신을 쳐다 보며 나움과 같은 질문을 반드시 한 가지 이상 할 것이다.

“그는 누구입니까?”

“어떤 백과사전입니까?”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까?”

“비스마르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합니까?”

“그는 죽었습니까?”

“빨리 해야 합니까?”

“그 책을 당신 자신이 보도록 가져 올까요?”

“그것을 알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 질문에 대답하고 백과사전을 찾는 법과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 사원은 물러갈 것이다. 그 사원은 다른 동료와 함께 <코리기오>를 찾아 본다. 그런 다음 당신에게로 돌아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물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

만일, 당신이 현명하다면 다시 그 사원에게 <코리기오>는 K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C난에 있다고 알려주지 않고 친절하게 웃어 보이며 “괜찮소” 하고 말한 후 당신 자신이 백과사전을 찾아 볼 것이다.

아 독자적인 행동의 무능력, 어리석음, 의지의 박약, 일하기 싫어하는 성벽,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순전한 사회주의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만일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 한다면,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자신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저기 부기계원이 있지요? 하고 어떤 큰 공장의 감독이 나에게 말했다.

“네, 저 사람이 어떻게 말입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계리삽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는 곧장 가기는 합니다만, 가는 길에 술집엔 네 군데나 들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자기가 무슨 심부름을 왔는지 잊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르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최근에 종업원을 착취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린당한 사람들과 정직한 직업을 얻기 위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눈물겨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다. 그리고 돈 많고 세력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비난의 말도 많이 들어 보았다. 그러나 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발뺌태들을 구하느라 헛된 고생을 하여 일찍 늙는거나 고용주가 돌아서는 즉시 놀기만 하는 사람들의 조력을 얻기 위하여 오래 참는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지금 각 상점과 공장에서는 인원정리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주들은 자기네 사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능력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리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경기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는 것이며, 경기가 나빠 일거리가 드물 때는 이런 정리가 더욱 격심해 지기 때문에 무능력하고 가치없는 사람들은 영영 쫓겨나고 만다.

현대는 적자생존의 시대이다. 모든 고용주들은 자기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가르샤將軍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만을 고용한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고용주가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는 광적인 의심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을 경영할 수 없었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만일 가르샤將軍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그에게 준다면 그는 아마도 “당신이 가지고 가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오늘밤도 그는 찬바람이 스며 드는 넓은 코트를 걸치고 알자리를 찾아 밤거리를 헤맨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상습

적인 불평의 선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론에 대한 이해력이 없다. 그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창이 두꺼운 장화의 발굽뿐이다.

물론 나는 그와 같은 도덕상의 불구자가 육체적인 불구자 못지 않게 가엾다는 것을 안다.

내가 너무 지나친 과장으로 말했나?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빈민들을 동정할 때에, 나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후에도 남아 빠진 테이블과 천 옷가지 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정의 말을 해주고 싶다.

나는 밥통을 운반하는 품팔이도 해 보았다. 노동자마도 고용되어 보았다. 때문에 고용주와 고용인 양측에 대해 무엇인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난, 그 자체에는 탁월성이 없다. 누더기는 편할만한 것이 못 된다. 그리고 모든 빈민이 다 선량하지 않듯이 부자라고 해서 모두 욕심 많고 억압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감독이 없을 때에도 자기 집에서 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르샤將軍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무런 어리석은 질문없이 그것을 받아 드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까운 시궁창에 처 놓거나 그 외에도 그것을 전하지 않기 위해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일을 중지하고 노동임금을 올리기 위하여 동맹파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깊은 찬사를 보낸다.

문명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오랜 동안 추구하여 왔다. 그러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허용된다. 모든 도서와 농촌, 그리고 회사·상점·공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세상은 가르샤將軍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절규하여 부르고 있는 것이다.



대만·홍콩을 거쳐 방금 서울에 도착했다. 서울의 눈부신 발전상과 개발되고 건축되어 가는 현장을 직접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

앞으로 내가 얘기하려는 내용은 현재 독일에 있어서의 현대건축의 동향에 대해서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독일의 본격적인 현대건축운동(Modern Architecture Movement)은 〈바우하우스〉운동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우하우스 운동은 국제적인 운동으로 변저, 그 운동의 주체였던 미스 반 데르 로오에나 모호리, 마이어 등은 시카고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브로야 등의 건축가들은 미국 동부에서, 그리고 월터 그로피우스는 교육자로서 하바드大學에 몸을 담기도 했으며 나아가서는 협동사무실을 조직하여 건축활동을 펴기도 했다.

지금 우리는 뿌리를 잃어가고 있다. 흙냄새를 맡으면서 살 수 있는 주택이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대신 초고층화 되어 가는 삭막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존해야 할 건물과 새로이 축조되는 건물에 대한 조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무겁게 압박하고 있다.

앞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두 가지 형태이다. 예를 들면 헌것과 새것, 또는 늙음과 젊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슬라이드를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 보고자 한다.

내가 그로피우스를 볼 때, 그는 사치를 모르는 소탈한 사람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국의 오래된 램브라라고 하는 허름한 자동차를 손수 물고 다녔다.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의 선구자이며 하바드大學의 설계대학원에서 오랜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사람의 특징은 창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정평이 나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의 특징이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우하우스校舍는 1925년, 독일의 Weimar에 세워진 건물이다. 교실·실습실·기숙사의 용도를 가진 건물들이 한 개의 통일된 건물 속에 담겨져 있다. 이 건물은 그로피우스 자신의 설계이며

다름슈타트工科大学의 건축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1962년, 하바드大學에서 건축석사학위를 받은 독일의 저명한 아르놀트 괴르테(Arnold Körte)교수 초청 강연회가 지난 2월1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남산에 위치한 독일문화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화와 주한 독일문화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나 상 기교수(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의 통역해설로 진행되었으며, 본 회 회원 및 건축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괴르테교수의 강연을 관심있게 경청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아르놀트 괴르테교수는 종래의 건축과 현대의 建築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오늘 날의 건축가들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했다.

다음은 슬라이드를 이용해 강연을 이끌어 나간 괴르테교수의 말을 옮긴 것이다. / 편집자 /

크기는 내략 7백80여평 정도이다. 이 그림은 동독에 계신 나의 선친께서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카드를 찍은 슬라이드이다. 이 카드는 독일의 중류 이상의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간단한 커피와 케익을 놓고 앉아 있는 장면이라든가 텔레비전이 아닌 피아노와 함께 즐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현대주택의 평면구성을 보자. 이는 외부의 발코니, 왼쪽의 침실, 그리고 부엌, 아래층의 거실이 있는 방법으로서 이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나 같은 추세이다.

또한 1929년에 그로피우스가 설계한 중층의 집합주택과 오늘 날의 초고층화된 아파트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초고층화로 인해 현대도시들은 그 뿌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조그마한 토끼장 안에서 살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울〉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 모든 나라의 대도시에서는 單獨住宅 등의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집장사의 집도 아니면서 이상하리만큼 획일적으로 그 모양이 동일하다.

내용에 있어서도 인간 본연의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空間構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의 선전화라는 냄새가 물씬 풍기게끔 유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스케일에 맞는 공간구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와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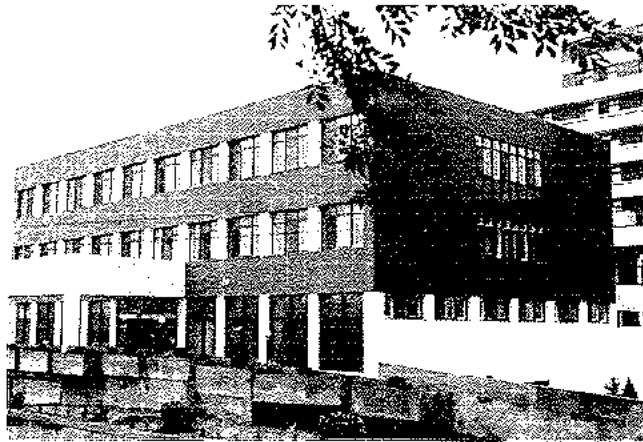
현재 독일에서는 보존해야 할 기존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인구 20만 이하의 소도시의 경우, 독일의 전통적인 建築樣式을 가진 건물 옆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구건물과 신건물의 균형있는 조화,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안고 있는 오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방법 건축법 등의 여러가지 제약을 무릅쓰고 인간과 자연을 위한 건축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건축가들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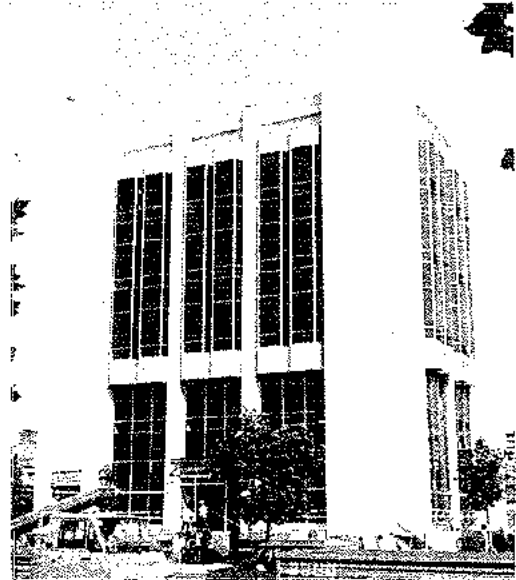
- 전주에수병원 증축공사 / 朴 商 浩 (석림건축연구소)
- 중소기업은행 마포지점 / 公 日 坤 (공일곤건축연구소)
- 광일빌딩 / 俞 天 濤 (공신건축연구소)
- K씨주택 / 申 雄 政 (동서건축연구소)

①



- ① 전주에수병원 증축공사
- ② 중소기업은행 마포지점
- ③ 광일빌딩
- ④ K씨주택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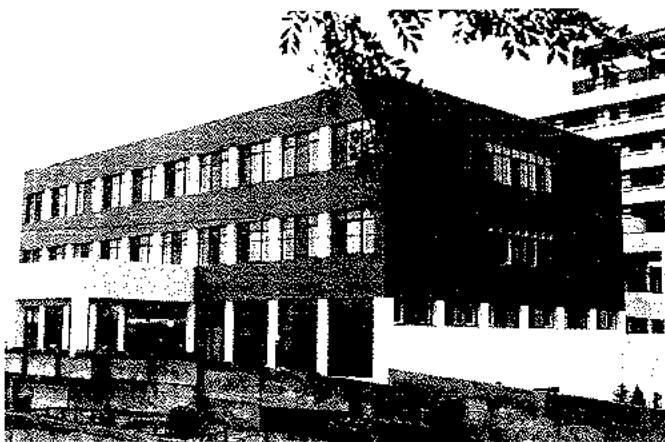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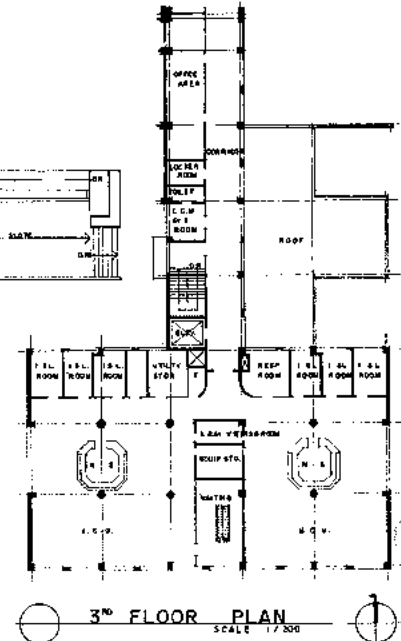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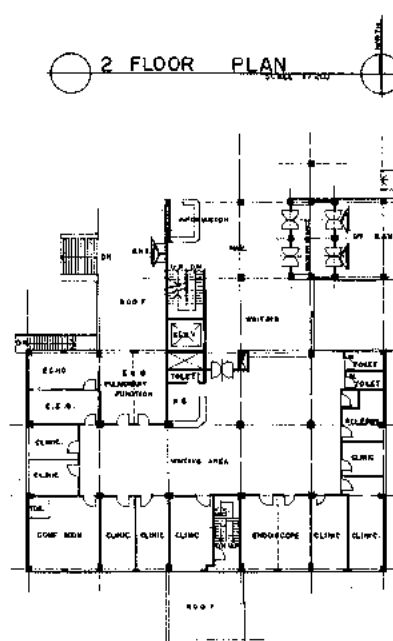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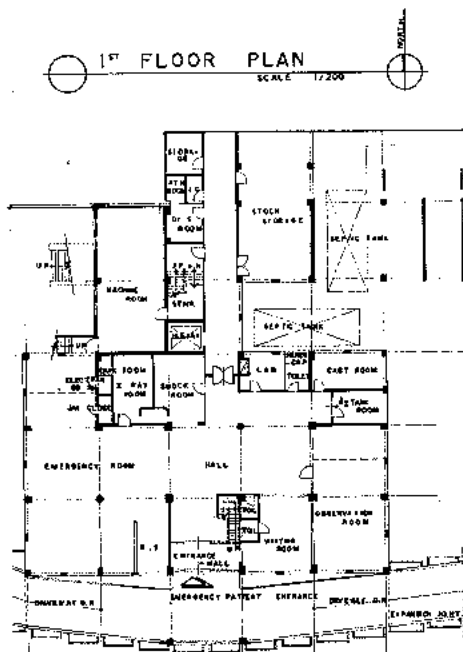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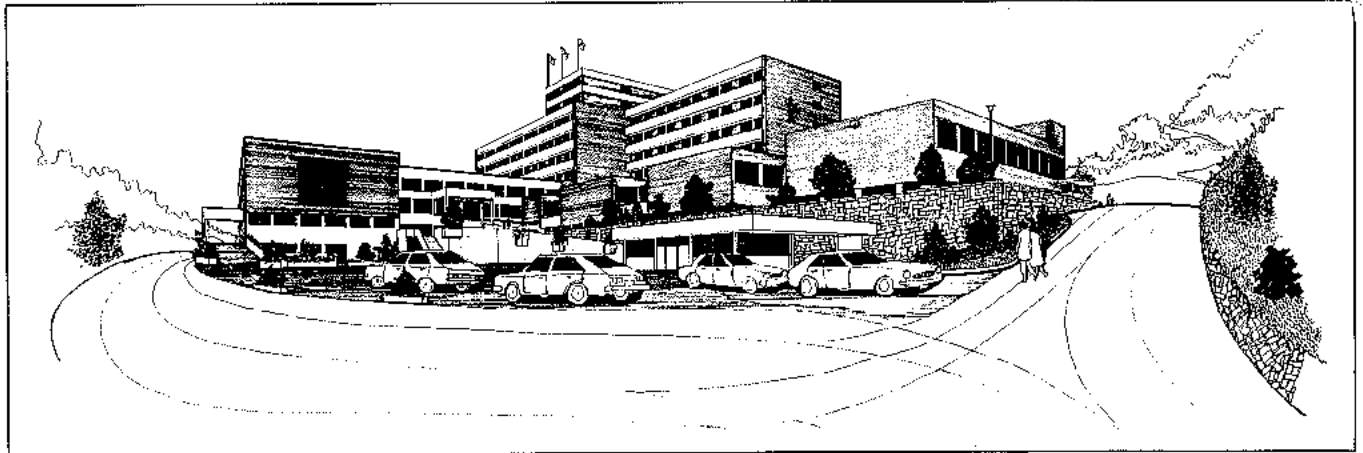
④



전주 예수병원 증축공사

朴 商浩(석림건축연구소)

소재지 : 전주시 중화산동
 건축면적 : 1,000m² (기존 4,932m²)
 연면적 : 3,438m² (기존 19,402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수용병상수 : 52베드 (응급환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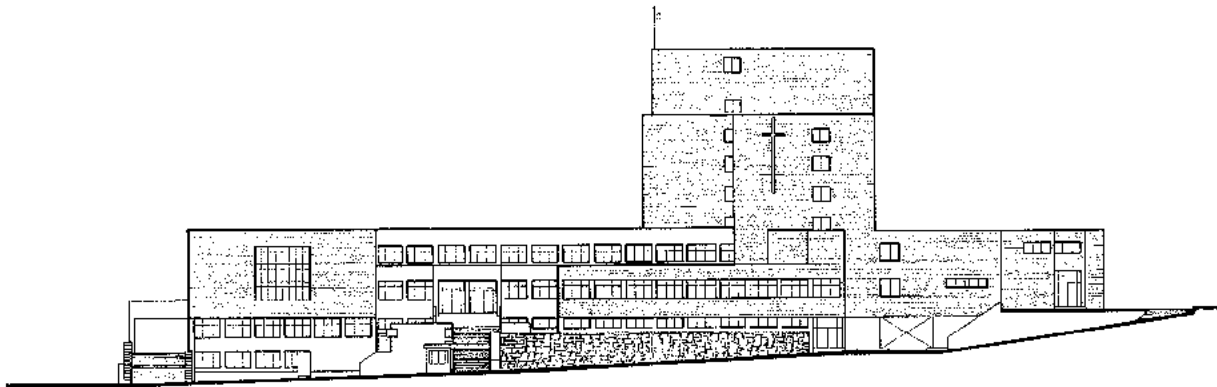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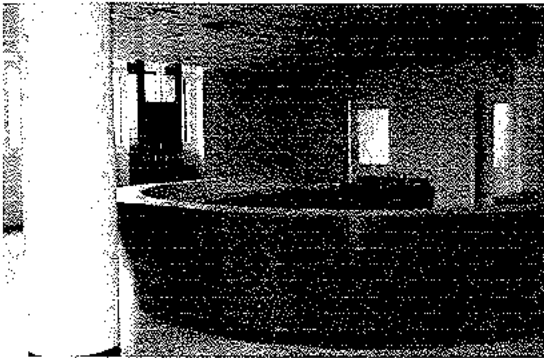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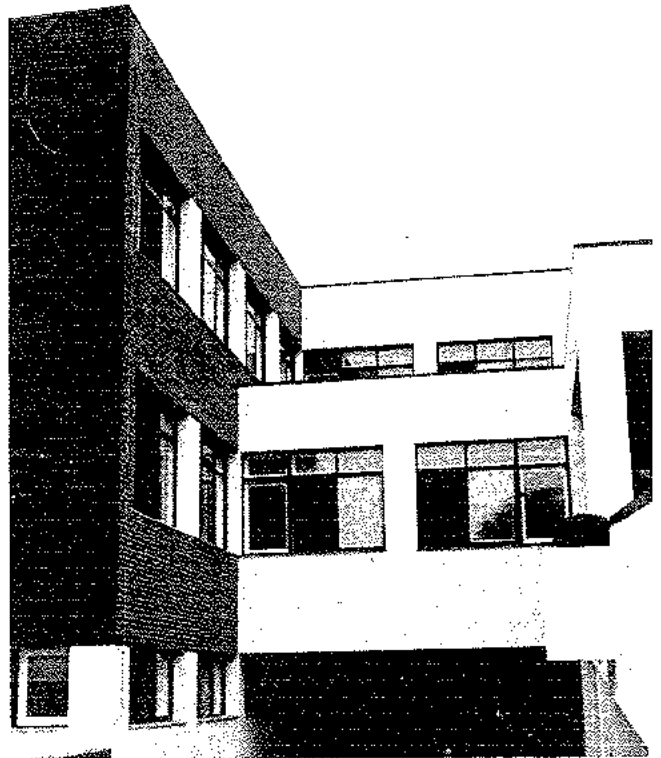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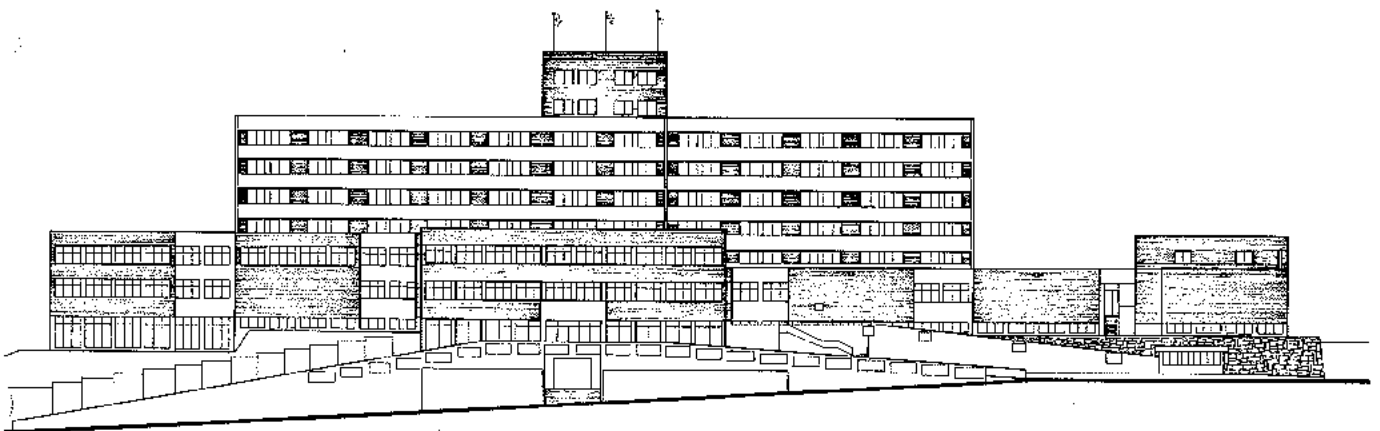
기존 병원과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을 백하였다. 그리고 동서와 남북의 외장타일이 주는 컬러 농도가 리듬이 되어 살아나도록 노력하였다. 연결 복도와 샷기동 등은, 백색의 기하학적인 직선으로 간결화시켰다.

본 건물은 본관에 대한 별관이다. 따라서 주목적이 응급실 환자 및 중환자용의 별관이므로 최선의 의료장비시설을 갖추어 간호원이 중앙에서 한눈으로 전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의 침대 등이 쉽게 출입·회전할 수 있도록 내부기동을 원형으로 처리하였으며, 복도에서 중환자실에 이르는 입구의 벽면에도 역시 폭로를 주어 이동동작이 편하도록 설계세부면에 주의를 기울였다.

기타 ICU·MCU실용의 환자용 설비 유니트도 최선시설로 하였다.



○ SIDE ELEVATION SCALE 1/200



○ FRONT ELEVATION SCALE 1/200



중소기업은행 마포지점

公 日 坤 (공 일곤建築研究所)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지면적 : 642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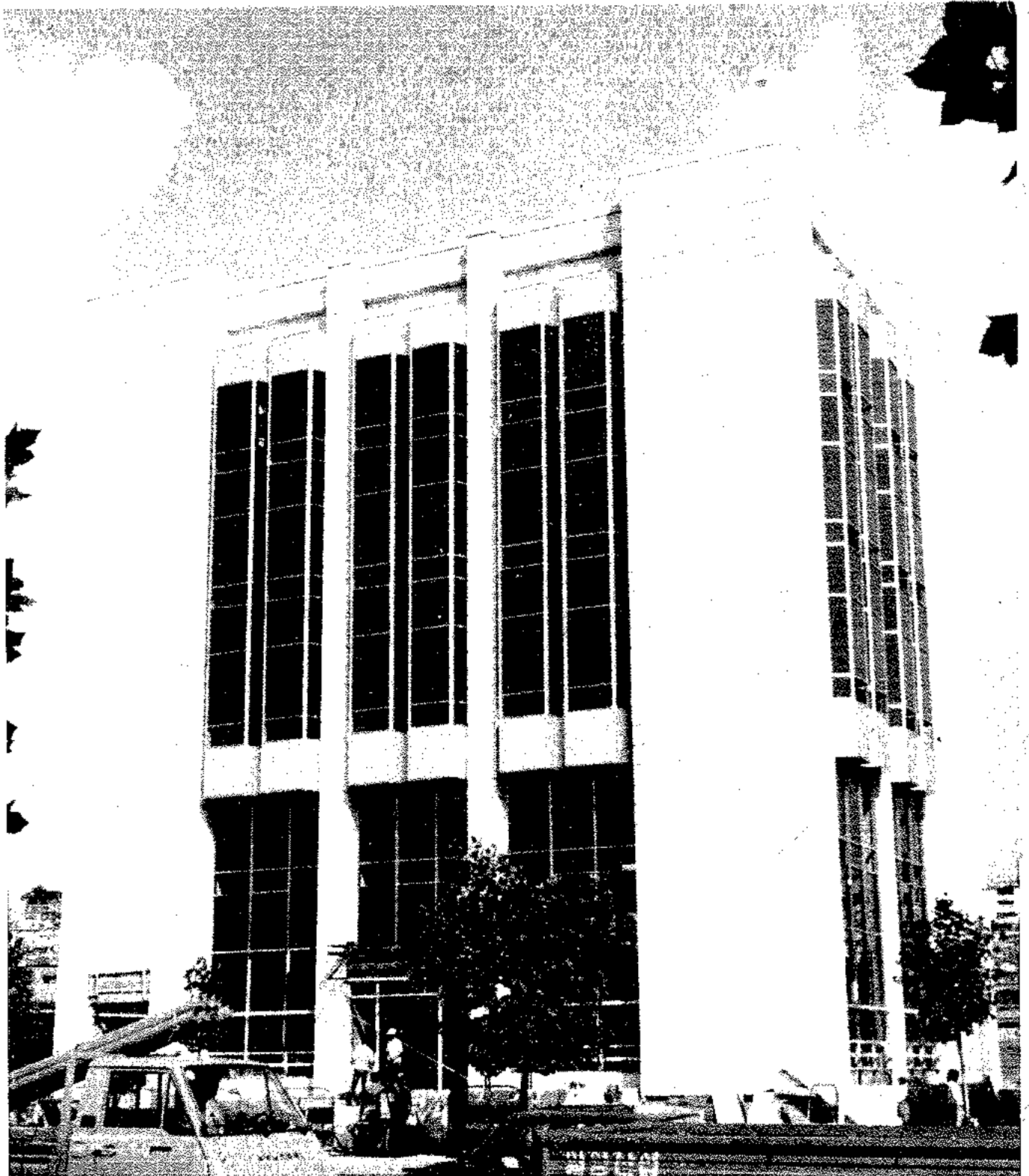
연 면 적 : 2,249m² (지하 2층 · 지상 5층)

지하 1 · 2층 = 각각 358m²

지상 1층 = 309m²

지상 2 ~ 5층 = 1,224m²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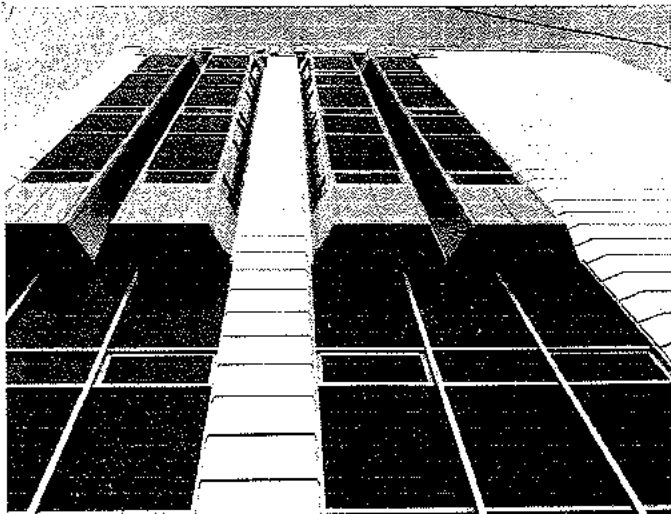
- 지하 2층
 - ①-기계실
 - ②-전기실
 - ③-탱크실
- 지하 1층
 - ①-주차장
 - ②-기사 대기실
- 1층 및 2층
 - ①-은행홀구
 - ②-은행객정
- ③-영업장
- ④-금고
- ⑤-응접실
- ⑥-건물종업구
- 3, 4, 5층
 - ①-회의실
 - ②-식당
 - ③-주방
 - ④-여비실
 - ⑤-사무실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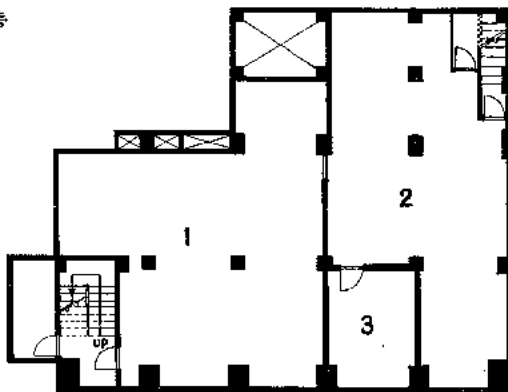
은행의 업무와 운영문제들은 일반 사무보다는 보수적인 경향이 짙은 것 같다. 설계과정에 建築主가 관계하는 한 위와 같은 인상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는 이러한 요소들이 建物에 반영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 건물에서는, 工事費用이나 건물의 용도·규모 또는 基地가 갖는 조건때문에 설계나 시공상 특출한 방법은 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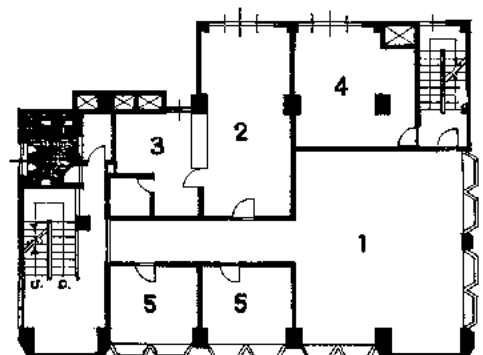
(2층영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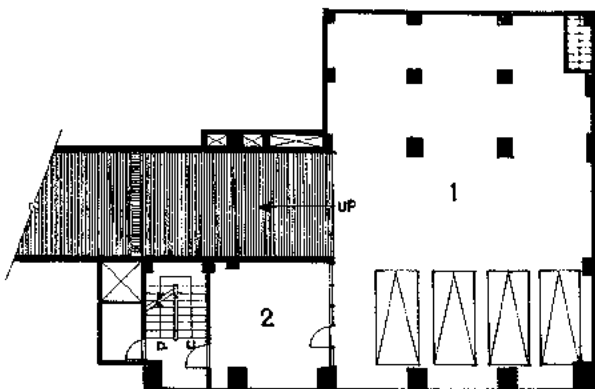
지하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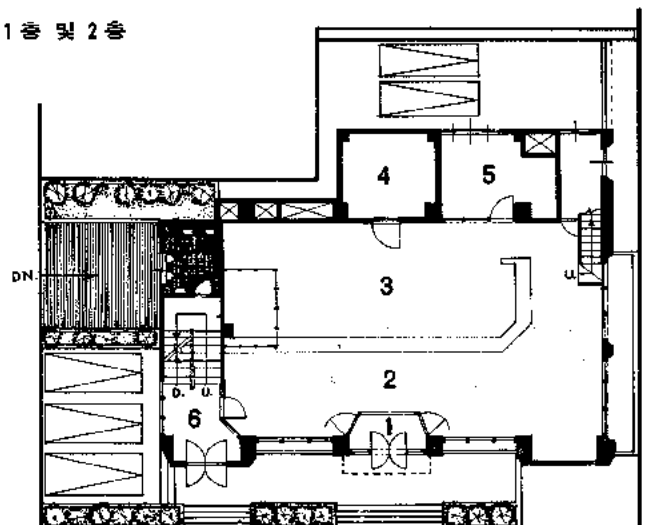
3, 4, 5층



지하 1층



1층 및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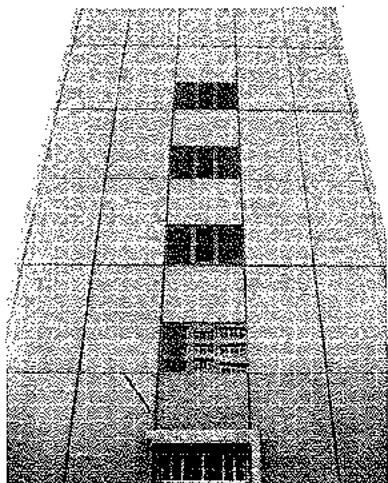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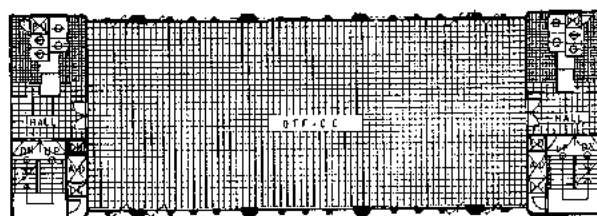
광 일 빌 딩

俞 天瀟(공신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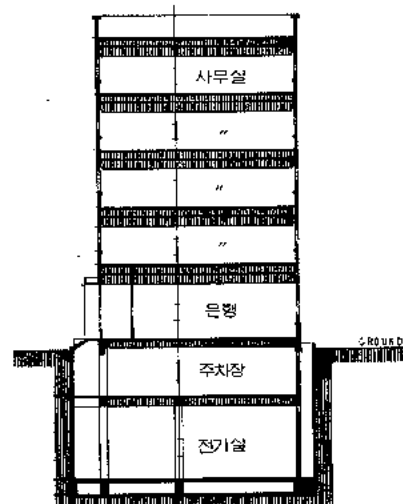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효제동 315의 16
 대지면적 : 1,161.08 m²
 연면적 : 3,791.55 m² (지하 2층 · 지상 5층)
 외벽마감 : 유색외장타일
 구조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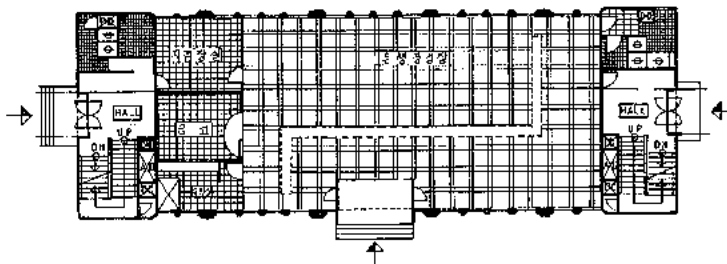
〈배면〉



기준층 평면도



일반 단면도



1층 평면도

■ 設計概要

● 계획——이 전물이 들어 설 대지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 도로 방향으로 좁고 길며, 美觀地區 안의 대지로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대지의 협소함으로 인한 工事條件上의 문제로 인하여 工法을 아울러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프리캐스트 構造시스템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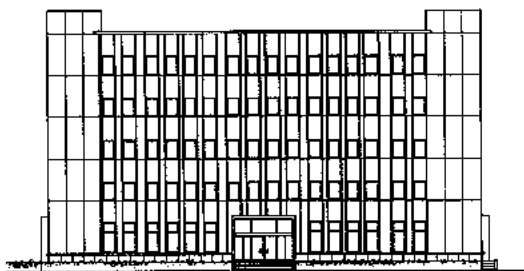
● 평판——양쪽으로 코어를 분리시켜 중간기둥을 없애고 스펀의 중앙공간을 넓게 잡아 임대사무실로서의 효

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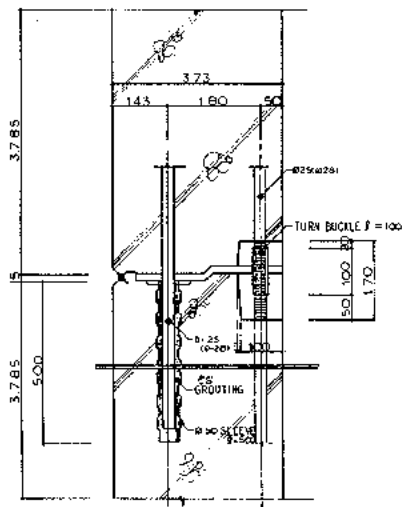
● 구조——P.C構造物로서, 콘크리트構造와 다른 점은 공장에서 제작된 각 조립부재를 접합·집성시켜 전체적으로 일체화를 이루게 하는 構造시스템이다. 따라서 P.C구조물의 구조 안정은, 바닥판의 隔膜作用과 내력벽의 부속작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의 평면계획에 있어 적절한 구조요소의 배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였다. (우림콘크리트 제조)

본 P.C構造시스템의 주요 구조요소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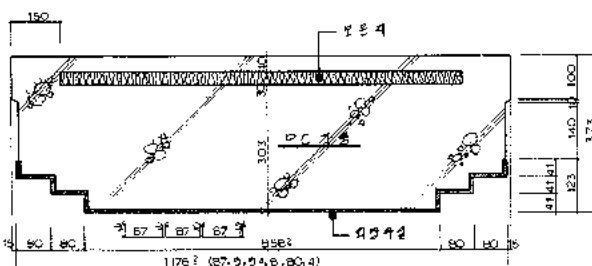
- a. 바닥 및 지붕판 (Span 13m)
Prestressed Precast Double Tee Slab
- b. 전·후면 Frame
Precast Concrete 기둥 및 스퀘어 컬럼
- c. 좌·우측 코어 내력벽
Precast Concrete 벽판 (두께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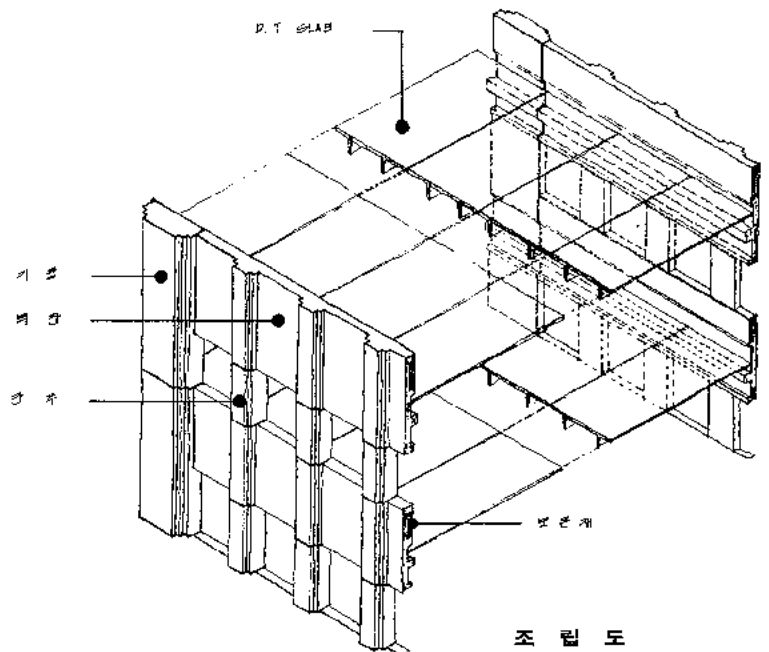
입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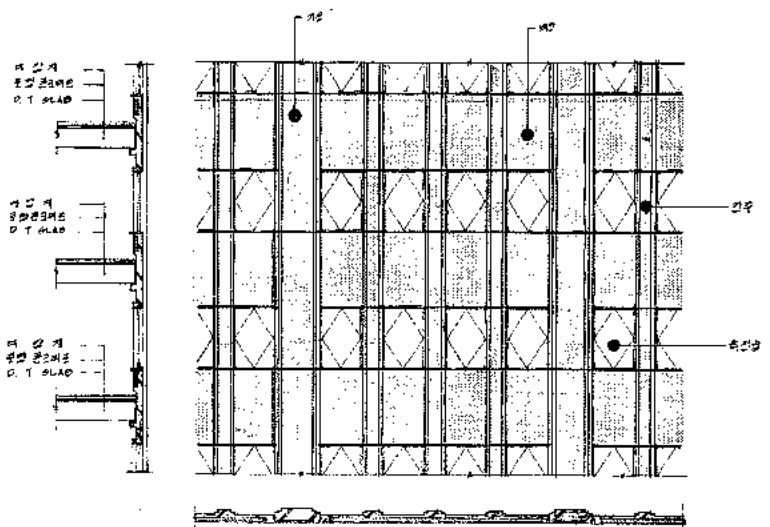
ANCHOR DETAIL 5:1/5



P.C COLUMN DETAIL SCALE=1/8



조 립 도



평면 상세 및 입면도 축척 : 1/50



K 씨 주택

金 雄 政 (東西建築研究所)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지면적 : 271.99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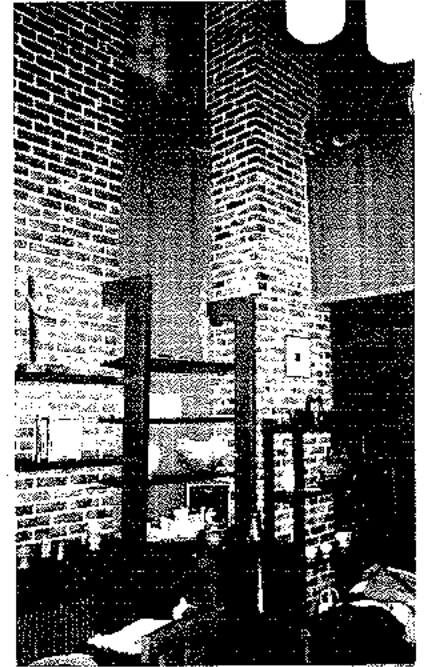
건축면적 : 98.97 m²

연면적 : 209.64 m²

바닥면적 : 지하 53.92 m²

1층 87.12 m²

2층 68.55 m²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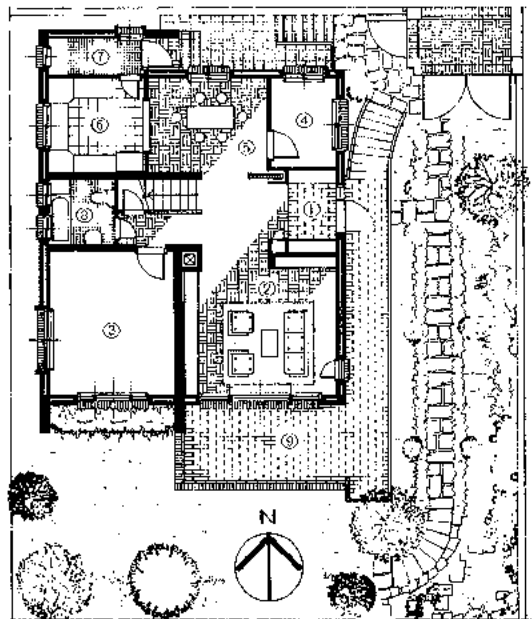
북측이 도로에 면한 대지로서 비교적 조용한 위치라 住宅地로서는 적합한 곳이다.

住宅의 모든 처리는 주부의 가사생활의 動線을 중심으로 한 계획에 초점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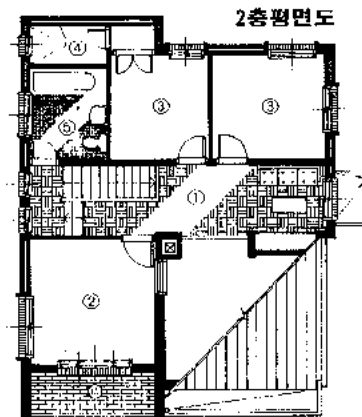
거실의 천정은 open이 되도록 하였다. 그것은 가족 서로간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에서이다. 또한 내부는 외부로부터의 자연적 순리를 흡수시켜 空間分離를 감

소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휴식처를 얻을 수 있도록, 치장 벽돌을 노출시켜 그것 특유의 소박함과 자연미를 좀더 근접하게 두었다. 그리고 동·남측으로 펼쳐진 경원의 open space에는 自然空間의 밀도를 높여주기 위하여 힘썼다.

외관은 치마가 없는 형을 택하였으면서도 전체구상에서는 接續空間으로 구성하여, 주택의 Box概念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表現方法을 시도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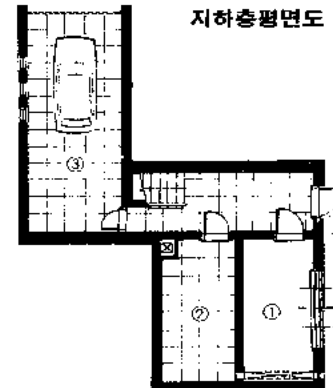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 ① - 전관
- ② - 거실
- ③ - 안방

- ④ - 기침부방
- ⑤ - 식당
- ⑥ - 주방
- ⑦ - 다용도실
- ⑧ - 화장실
- ⑨ - 테라스



● 2층 평면도

- ① - 복도
- ② - 노모침실
- ③ - 학생방
- ④ - 물탱크실
- ⑤ - 화장실

● 지하 평면도

- ① - 운전수방
- ② - 보일러실
- ③ - 차고

老弱者를 위한 住居設計

李 在 玉
(國立建設研究所 建築部)

1. 序

本稿는, 최근 미국의 <노약자를 위한 주택설계>의 방법과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약자를 위한 주택설계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平面과 配置計劃過程에 주목할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노인 居住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주택들을 조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근래 들어 미국에서는, 기능만을至上主義로 하는 딱딱한 건물보다는 차라리 가정과 같이 아늑하고 친밀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住居生活의 패턴은 복지정책의 개선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주택설계를 개선하거나 再考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전체인구에 대한 老人人口의 급격한 증가를 놓고 보면 미지않아 노약자를 위한 주택의 設計方法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는 65세를 넘는 노인이 2천 2백 만명이나 되며, 이는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평균수명이 70세를 초과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그 이상으로 평균수명이 증대해질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노인문제, 특히 노인들의 거의 90%를 점유하는 노약자들을 위한 주택설계의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관심대상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에는 노약자만을 위해 설계된 주택이, 間易施設과 병원시설을 포함하여 약 300만 세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뉴욕에만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100만 이상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단한 부족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별다른 대책이 적극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노약자를 위한 주택들은 施工 중에 있거나 최근에 신축된 주택들로서 노약자를 위해 많은 연구와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설계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노약자 專用住宅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2. 老弱者를 위한 住宅設計의 例

㉔ Monument East Apartment

Monument East Apartment는 매릴랜드州 발티모어의 都市再開發地域에 위치해 있는 노인 전용의 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는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 居住해 온 노인들만을 입주시켜 시도의 친밀한 접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公共住宅이다. 187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아파트는 절반 이상이 침실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노약자들로부터 일반 가정보다 거주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는 노인들의 오랜 친구들이 전부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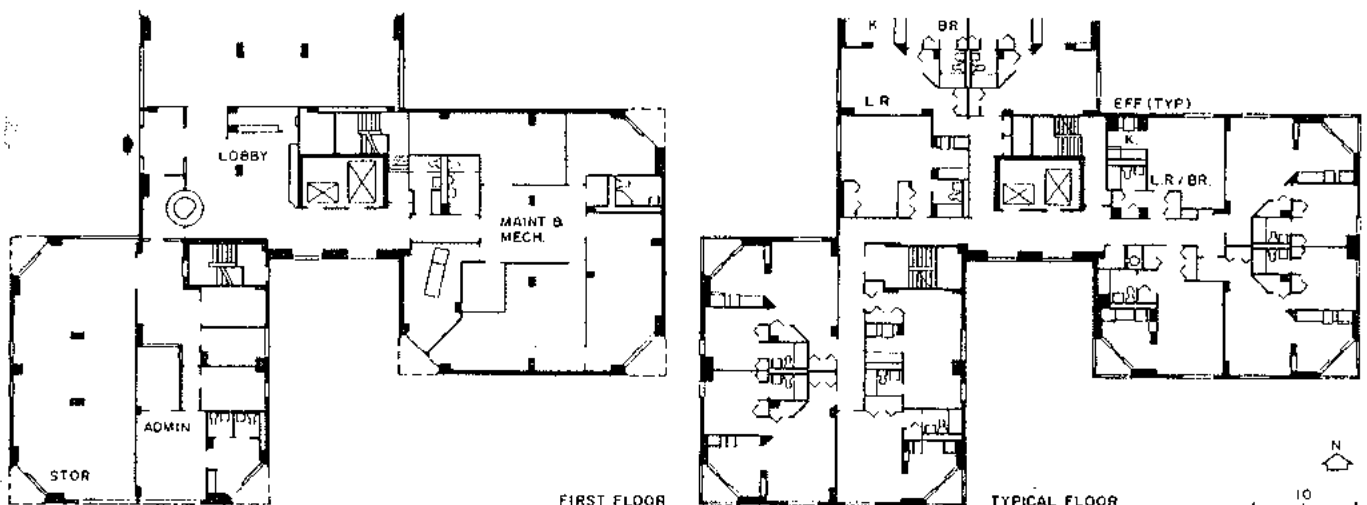


Fig 1 : Monument East Apartment의 First Floor와 Typical Floor

일한 아파트 내에 살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住居生活가 독립된 세대 내에서 이루어져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노약자를 위한 아파트는 발티모어의 住宅局 및 近隣住居開發局의 후원으로 Conklin & Rossant가 설계한 작품이며 시공은 Leimbach 建設會社에서 담당한 것이다. 아파트의 내부에는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 전용의 리크리에이션 센터를 체계화 시켰고, 의료시설과 기타 노인 전용의 便益施設을 완비하고 있다.

Conklin & Rossant는 기본설계 당시부터 이 아파트 주위에 살고 있던 노인들을 설계의 자문위원으로 하여 노인들의 의견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시켰다. 平面의 크기는 매릴랜드 州政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충분한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부엌은 Fig 1의 Typical Floors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들이 중매의 생활관습을 그대로 지속시킬 수 있도록 코너에 발코니를 둔, 완전한 하나의 독립된 방으로 처리하여 애선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이 이 아파트의 平面計劃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노약자를 위한 주택의 설계에서 부엌이나 침실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開口部의 처리이다. 이를 위하여 Conklin & Rossant는 Fig 2에서와 같이 모든 발코니에 보통의 일반주택의 것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의 둥근형 窓을 설치하였다. 이는 노인들이 약간은 靜의이고 또 圍繞된 느낌이 드는 공간 속에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락함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설계에 깊이 반영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家具配置 또한 건축가와 노인자문위원회 사이에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결과이며 대부분의 노인들 의견을 集約시킨 설계로서, 노약자를 위한 주택으로서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④ Florida Christian Home Apartment

Florida州的 잭슨 빌에 있는 이 아파트는 Freedman과 Rumble 및 Clements에 의해 설계된 작품으로서 6층이며 180세대를 수용하고 있는 노인 전용의 아파트이다.

이 아파트의 특징은, 비록 아파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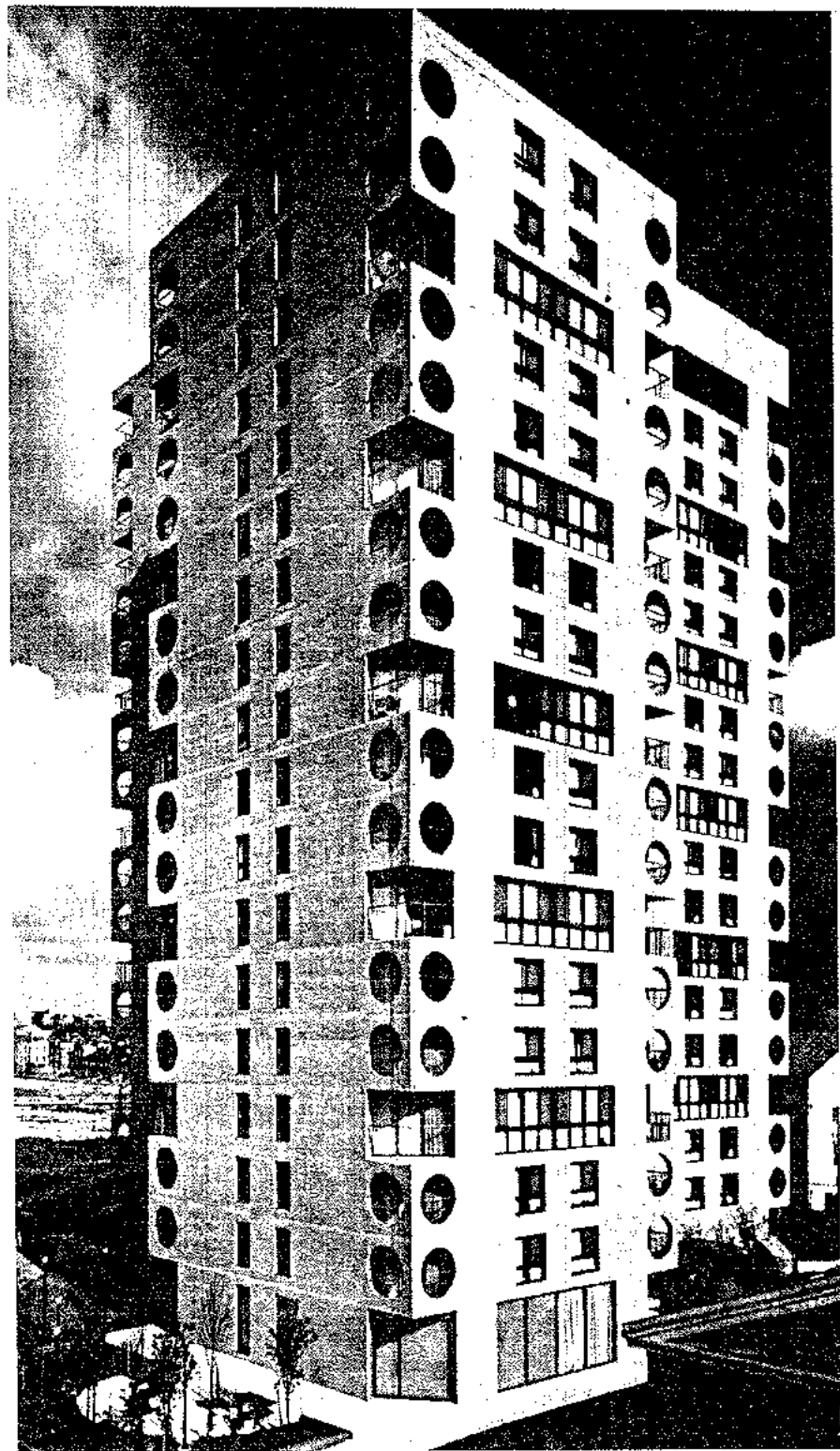


Fig 2 : Monument East Apartment

긴 하지만 單獨住宅 못지않은 여건을 노인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Fig 3의 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이 마치 양날개를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基地의 형상 때문에 이같은 배치를 택하게 되어서이기도 하지만 채광과 통풍을 위해 더 이상 평면을 확대하려 하지 않은 건축가의 의도가 깊이 작용한 때문이기도

하다.

처음 이 아파트를 설계할 때, 설계자의 한 사람인 건축가 Peter Rumble은 이 아파트가 노약자를 위한 아파트라는 것을 감안하여, 미국의 대부분의 아파트들과 같이 Ground Floor에 간호전용의 완전히 독립된 室만을 배치하는 식의 실제방법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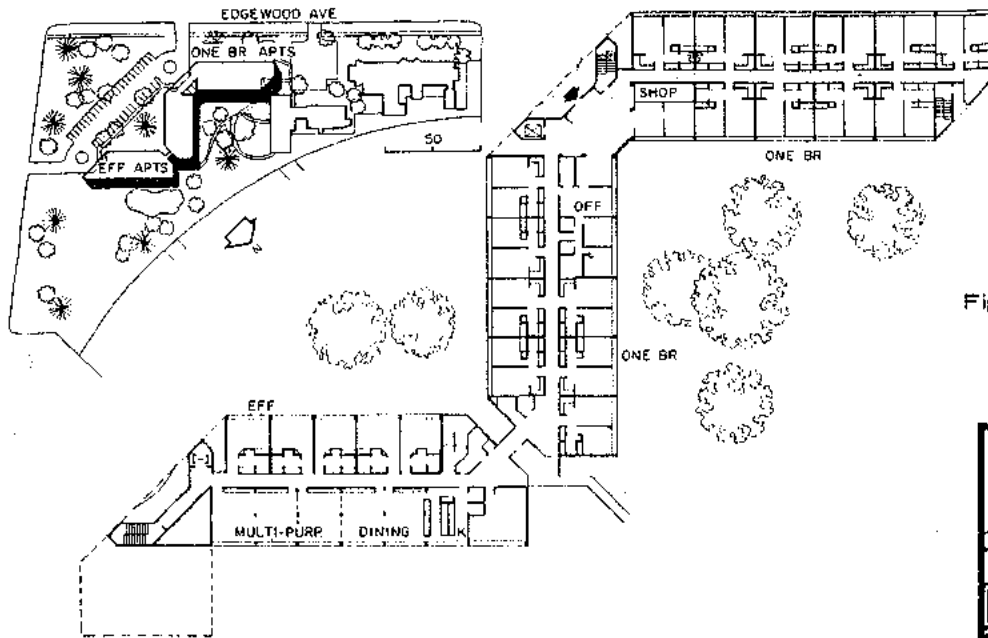


Fig 3 : Florida Christian Home
Apartment의 배치도

Fig 4 : High Land park Apartments
의 Typical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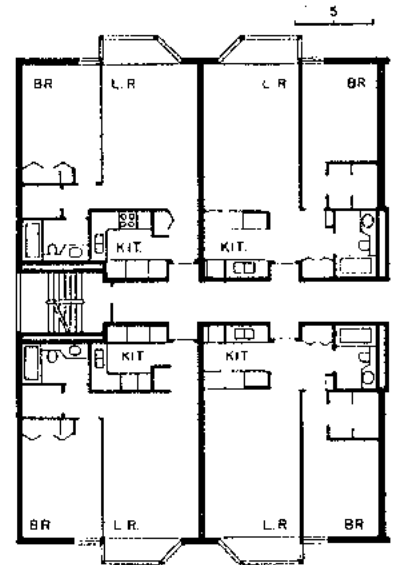


Fig 5 : High Land park Apartment
의 Ground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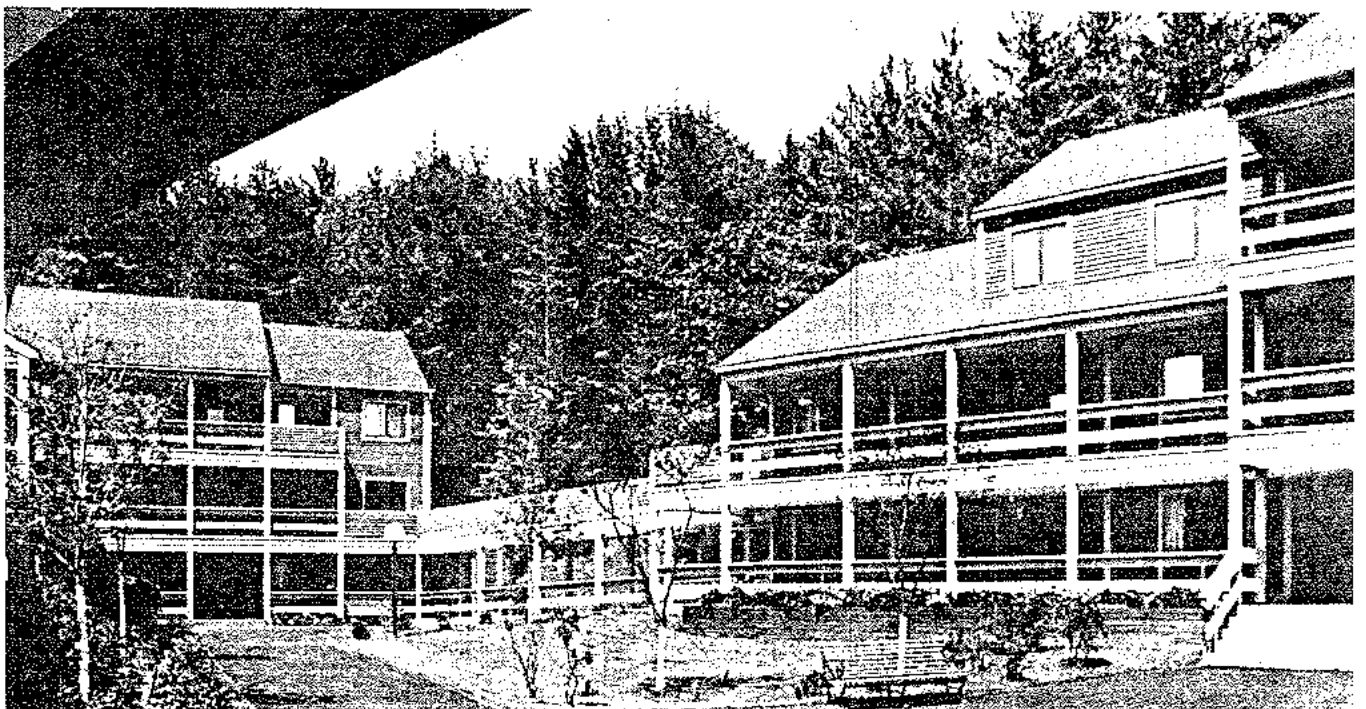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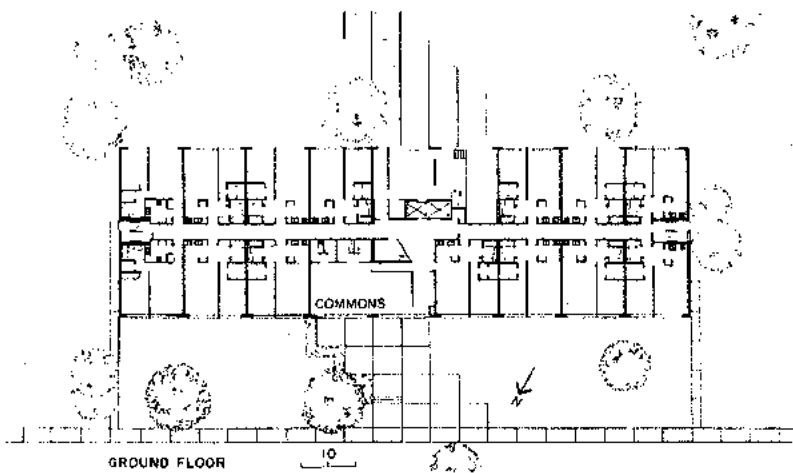


Fig 6 : Heaton Court Housing

여 그는 Fig 3의 배치도안의 점선 부분에서 Ground Floor의 간호전용실과는 별도로 老人病의 전문의와 전문치료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증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中産階 소득자들이 노후에 저렴한 住宅費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였다는 점과 복도에서도 충분한 일광욕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 등이다. 또한 이 아파트는 상점과 교회, 그리고 공공의 교통시설을 노인들이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노약자에게는 대단한 便益을 주는 아파트가 되고 있다.

④High Land Park Apartments

이 High Land park Apartments는

시카고에 있는 노인 전용의 아파트로서 건축가 Booth Nagle & Hartray에 의해 설계된 작품이다.

이 아파트는 老人住宅의 건립계획에 의거하여 건축되었기 때문에 건축가인 Booth Nagle과 Hartray의 혁신적인 협조에 의해 저렴한 건축비로 완성된 것이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코니가 돌출되어 있어 발코니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거리를 조망할 수도 있고, 좌우 상하의 바깥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해 아주 이상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68개의 Town House로 되어 있다.

이 Town House는, 바닥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板을 사용하였고 壁체는 耐力의 조적벽으로 시공하였는데

이는 가장 저렴한 건축비를 고려한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된 모든 건축재료나 구조는 노약자들에게 충분한 차음성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들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복도는 아주 짧게 만들어진 반면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동선을 단조롭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内裝材料는 미국의 노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재료들로 마감하였다. 그것이 이 아파트의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④Heaton Court Housing

이 Heaton Court Housing은 보스턴에 있는 50세대의 노인들을 위한 共同住宅으로서 건축가 Goody & Clancy에 의해 설계된 작품이다. 지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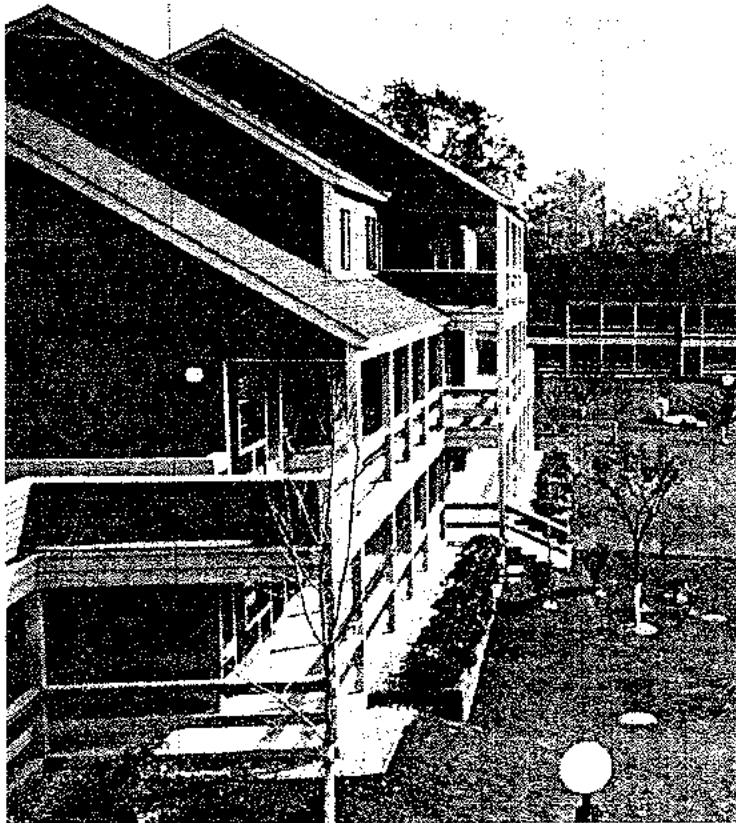


Fig 7 : Heaton Court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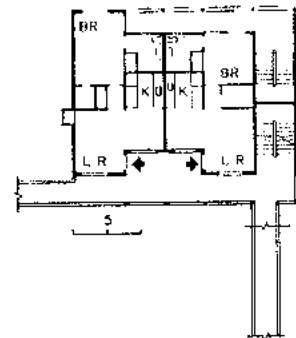


Fig 8 : Heaton Court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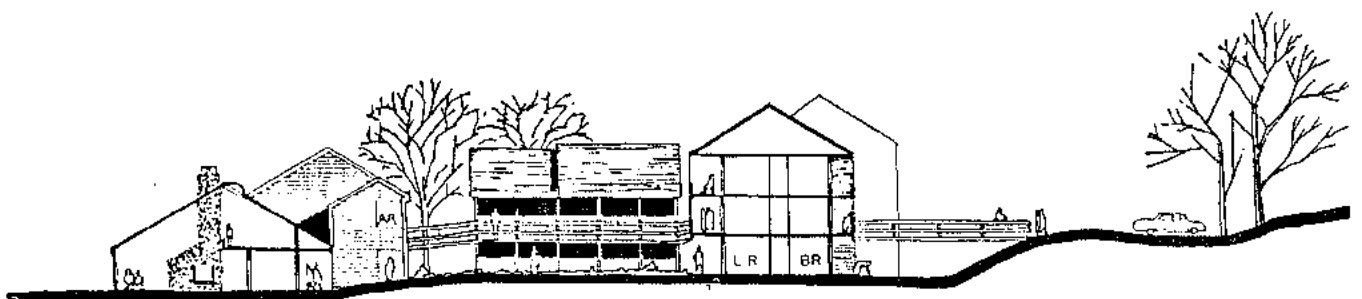


Fig 9 : Heaton Court의 단면 및 주차 시설

자 소개한 노인용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이 Heaton Court Housing은 그 위치가 조용한 산책로를 중심으로 하여, 호텔이 서 있던 지역에 50세대가 독립주택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환경이나 여건이 대단히 양호하며 또한 충분한 쾌적성이 확보되어 있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Housing은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넓은 정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주위는 울창한 森林에 의해 둘러 싸여 있어 휴양지같은 느낌을 준다.

특히 이 Housing은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전통적인 지붕樣式인 뽕죽지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모든 포치와 갤러리가 전부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 합리적인 동선계획에 의해 노인들이 서로 긴밀한 접촉을 갖게 하였다. 또한 内庭은 아주 아늑하고 幽靜된 느낌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건축가의 훌륭한 감각 덕분에 노인들이 옛날 미국의 오래된 호텔을 연상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

더우기 이 Housing은 Fig 8에서와 같이 모든 住居單位를 갤러리로서 연결시키는 거실과, 뒤 쪽 포치에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주는 침실과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차장은 Fig 9와 같이 2층과 연덕이 연결되는 부근에 설치함으로써 방문자와 居住客이 한꺼번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하게 할지도 모르는 소음과 혼잡을 가능한 한 피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Housing은 内庭에 충분한 햇빛을 쬌어 들이기 위하여, 북쪽에는 3층 주택을 배정했으나 남쪽으로는 1층 주택을 배치하였다. 그 결과 内庭에서도 아름다운 Berkshire Mountain을 마음껏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⑤ Heritage Gardens 와 Winthrop Housing

이 Winthrop Housing은 매사추세츠州의 Winthrop에 있는 노인 전용의 주택으로서 건축가 Goody와 Clancy에 의해 설계된 작품이며, 노인들 중에서도 주로 서소트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주거와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한 주택이다.

약 5년 전, 매사추세츠州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주택에 있어서 노인들의 욕구와 여가선용의 選好度 등을 충분히 하고도 합리적으로 반영한 노약자를 위한 주택설계의 현상모집을 하였는데, Goody · Clancy & Associates 會社가 1등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자 주당국은 이 회사로 하여금 세대당 17,800\$에 시공까지 완성토록 하여 이 Housing이 건립된 것이다.

그러나 이 설계를 거의 주관하다시피 한 건축가 Goody는, 노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최대한으로 고취시키고 또 유익한 여가선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비 등에 대한 물리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노인들의 주거와 여가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그 형태에 따라 주택의 設計方向이 확정지어져야 한다고 판단, 그 일을 추진하였으나 그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 중의 하나였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 주택은 Fig 10의 Typical Floor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개의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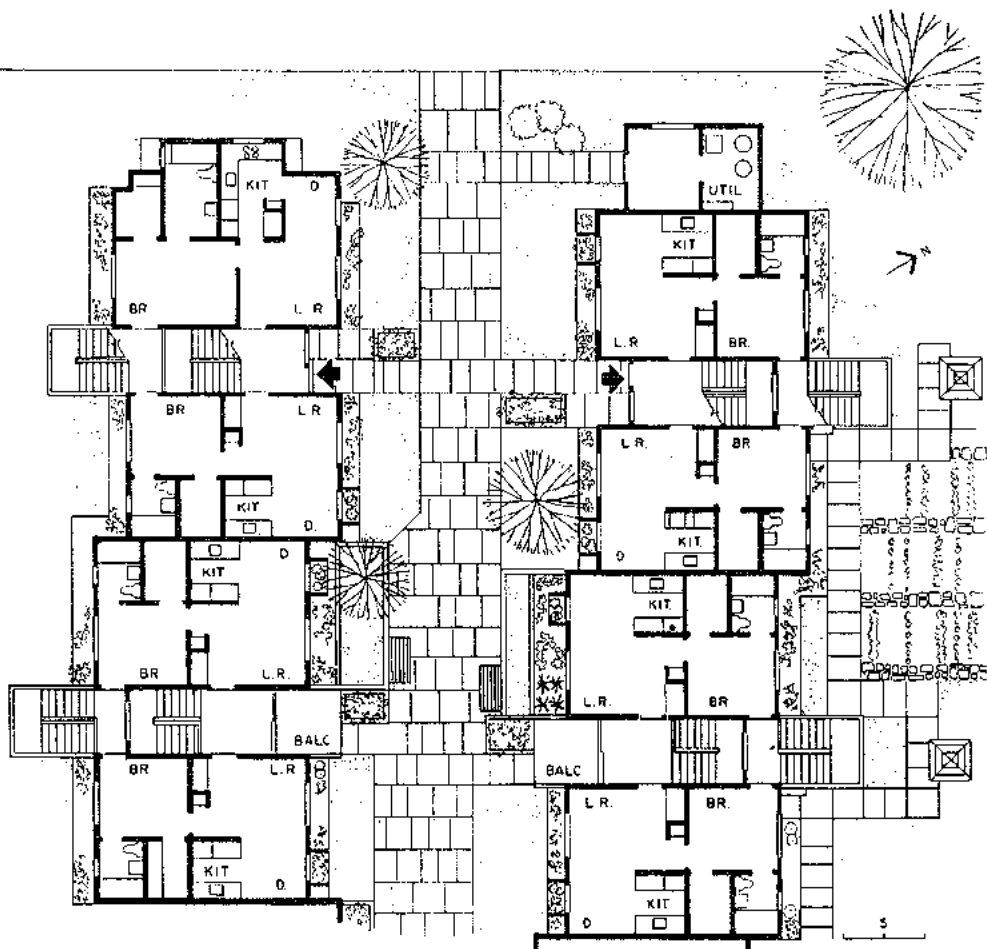


Fig 10 : Winthrop Housing 의 Typical Floor

을 가지고 있는 2층의 연립주택으로서 100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주택에서는 노인들의 주된 관심사나 걱정에 대한 상호위로·외로움·친구들의 타계에 대한 우울함 등을 서로 현관에서 조우하여 대화로서 해소시키도록 하기 위해 4개의 세대를 연결하는 주택의 현관을 대단히 중요한 공간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노약자를 위한 주택으로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거실과 Dining Room을 주택의 正面 쪽으로 배치하여 거실에서도 집안의 Mall이나 사람의 왕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으며, 2층의 계단실을 발코니와 겸용토록 하여 이곳에서 전면의 Mall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침실과 욕실은 건물의 후면 쪽으로 배치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주당국은 100세대 중 5%인 5세대를 저채부자유 노인들에게 할당토록 하였으며 저채부자유 노인용은 1층으로 배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출입구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 이외에도 이 주택에서는 土地利用計劃 또한 노인들의 사회와의

접촉을 쉽게 하여주기 위해 수립되어져 있다. 원래 이 부근의 토지는 Heritage Garden의 관계자들의 단독주택으로 점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Mall은 Garden과 단독주택 주민들의 통로 역할 밖에는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이 Mall을 따라 식품점과 일용품상점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이 Winthrop Housing과 Heritage Garden을 Mall에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노인들이 이곳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들 나름대로 사회적 접촉과 취미생활 등을 개발해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한 가지, 이 주택에서 주목할만한 노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는, 모든 욕실과 침실에 비상연락신호망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위급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벨을 눌러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든 시설은 노인을 위한 안전제일주의이며, 사용된 재료는 주거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노인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 미국의 전통적인 재래식 재료로 거의 사용하고 있다.

⑧ Maple Knoll Village

이 Village는 오하이오州的 스프링 데일에 있는 노약자 전용의 住宅團地로서 Gruzen & Partners에 의해 설계된 작품이다. 노약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대가족제도의 쇠퇴에 따라 Gruzen & Partners는, 노인의 주거문제를 새로운 방향에서 해결해 낼 수 있는 代案을 찾고 있었다. 그가 고려하고 있던 것 중 문제가 된 것은, 노인들만의 共同社會에 있어서 공통점에 대한 배려의 문제였다.

노인들에게는, 우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심리적 외로움과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 등, 여러가지 대동소이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Gruzen은 노약자의 주택이 그들의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병원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주택으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Maple Knoll의 설계시에 여러가지 형태의 복합주택이 들어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건강한 노인은 일반주택과 같은 주택에서, 그리고 병들었거나 행동이 부자유스러운 노인들은 단지 내의 독립된 세대에서 별도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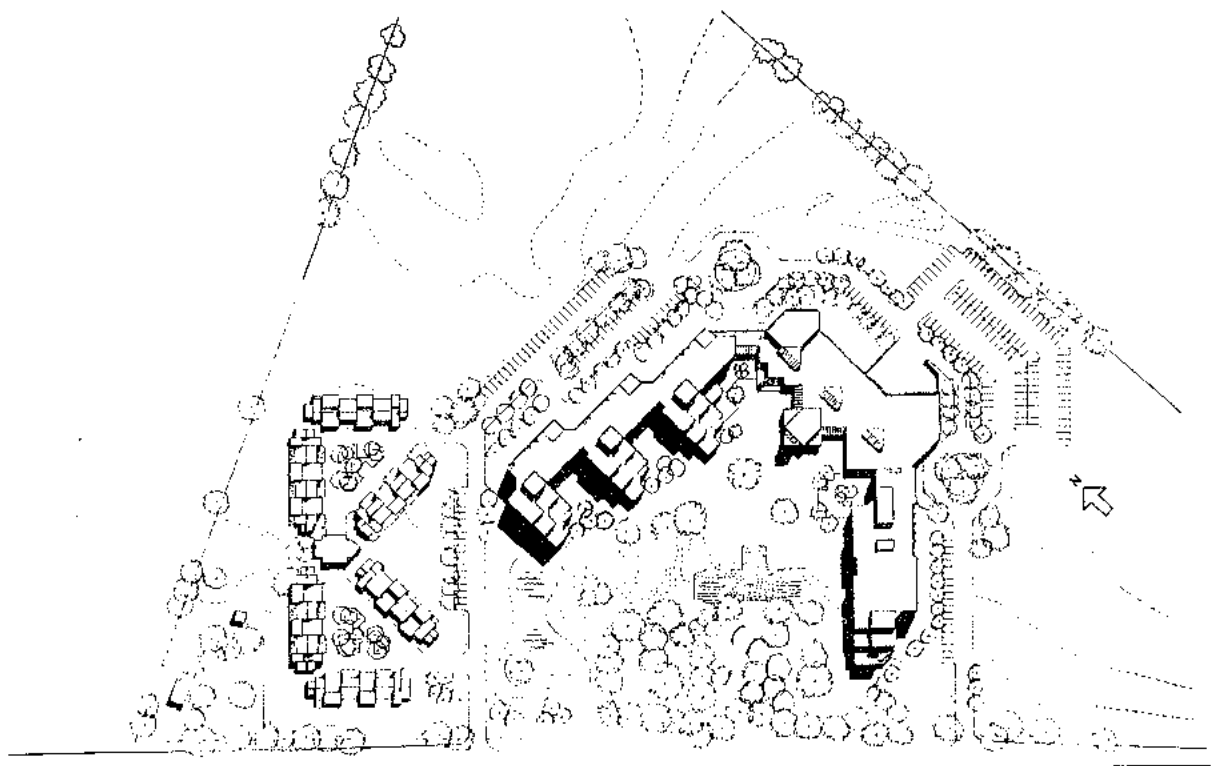


Fig 11 : Maple Knoll의 배치도

호. 받을 수 있도록 老人住宅을 배치하여 건강한 노인과 지체부자유 노인의 주거를 분리시킴으로써 상당히 이상적인 노약자 주택을 설계했던 것이다.

Fig 11의 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ple Knoll에는 4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건물이 3가지의 서로 다른 목적으로 노인들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독립된 형태의 주택인데, 이 주택은 단지의 맨 북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이 주택은 한 개 또는 두 개의 침실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의 都市型住宅과 전혀 다르지 않다. 때문에 건강한 노인들을 기

거하도록 하여 이들이 일반인과 조금도 차이없는 분위기 속에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다른 형태의 주거로는, 아파트 형태로서 완전한 독립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세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공동시설과 위락시설 및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물을, 단지의 중앙에 별도로 배치하였다. 물론 이와 같이 계층의 구분에 따른 老人住宅의 분리는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지 내에 노인을 위한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제 공함으로써 서로 갖은 접촉을 통해 친밀하게 되어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건축가 Gruzen의 노인에 대한 수 년 간의 체험과 연구결과에 의해서 계층에 따른 주택의 분리문제와 차별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의료혜택 시설을 갖춘 점, 또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건물에 어린이들의 학교를 배치한 것은 노인들이 어린이들과 같이 있기를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깊은 배려임을 알 수 있다.

㉔ Walnut Hill Apartments

이 아파트는 뉴욕의 북쪽에 있는 노약자를 위한 주택으로서, Smotrich & Platt에 의해 설계된 작품이며 18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 2층 8세대의 연립주택을 시발로 하여 지형에 따라 거의 평행선을 이루며 주택이 배치되어 있다. 경사진 지형을 따라 내려 오면서 모두 2층으로 된 주택이기 때문에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주택에서나 허드슨江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한, 노인을 위한 이상적인 住宅園地가 되고 있다.

이 연립주택의 2층은 지형상 Fig 9에서와 같이 Bridge Entrance 처리가 가능하였으며, 아래층에다는 정원을 만들었다. 정원의 꽃이나 수목은 거주 중인 노인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住居單位는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한 주택이 반복됨으로써 주게 되는 단조로움을 인공적인 造景의 변화로서 커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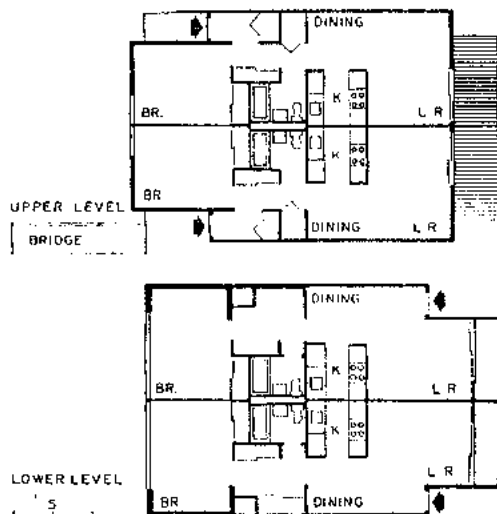


Fig 12 : Walnut Apartment의 평면 및 배치도

참고문헌

Schmertz, Apartments, Townhouses & Condominiums, 3rd Edition, 1981.

韓國 大學 建築教育의 問題點

목 차

林 忠 伸

(울산공대 건축학과 교수)

- I. 序 言
- II. 建築教育의 범위
- III. 問題點의 추출
- IV. 結 言

I. 序 言

建築教育에 관한 논의는 이미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建築學會 주관으로 1970년 이래 7자에 걸친 全國 建築學 科教授세미나가 있어 왔으며, 그 외에 各 分科委에서도 分野別 建築教育을 논의하여 왔다. 또 그 밖에도 많은 建築教育 관계 論文, 報告, 리뷰, 기타 資料들이 學會誌에 실려 온 것으로 보아 이 점에 대하여 우리 建築人들이 소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共同的 대화로서 建築教育을 논의하여 온지 십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研究, 제안, 비평, 助言 등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 만큼의 行動的 結果를 보았는가 하는 점에 이르러서는 한 教育 당사자의 입장에서 저자기 당혹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學會誌의 관계자료들을 살펴 보면 그 논의의 목이 建築教育의 제반사항에 걸쳐 ครอบคลุม을 갖추고 있으며 또, 建築教育의 개선에 관한 한 높은 意見一致度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行動缺如의 원인이 흔히 있을 수 있듯이 아이디어의 빈곤이나 意見不一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建築教育의 문제를 文教行政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면 이는 建築人 스스로의 主体性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非行動을 반복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文教行政은 建築教育만을 다루는 機構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 그것을 기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建築教育의 문제를 建築教育者들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면 이는 建築人 전체의 책임을 그 일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며 이 또한 지난 十餘年의 非行動을 반복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建築教育者들의 行動能力은 文教行政 및 大學行政의 갖가지 레드테이프에 묶여 지금까지의 것 이상의 行動을 기대할 별다른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建築教育은 建築人 모두를 위한 것이다.

設計, 施工, 行政, 教育 어느 分野에 종사하든 모든 建築人들은 後世代를 위한 建築教育에 共同的 責任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本 論文은 이러한 관점에서 現在 우리의 建築教育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추출하고 英國과 美國의 建築教育과 비교·검토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구하고자 하였다. 문제점 추출에 있어서 이미 國內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가급적 반복을 피하였으나 그 論點이 불충분하였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은 다시 다루기로 하였다.

II. 建築教育의 범위

建築은 人間活動을 담는 그릇이다.

建築人은 人間活動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建築空間創造를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建築은 建築家에 의하여 設計되고, 施工者에 의하여 施工되며, 建築의 社會性 때문에 발생하는 제반 法에 의한 절차를 관장하기 위하여 建築行政을 필요로 한다. 建築教育은 예비 建築人들의 기초교육을 담당한다.

設計, 施工, 行政, 教育은 建築界를 이루는 네 기둥인바, 人類를 위한 建築空間創造라는 同一 目的을 共有하는 建築界의 組織要素인 것이다. 이들 組織要素들은 分業의 屬性을 띠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곧 人的構成要素는 아니다.

建築人은 이들 組織要素間에 水平的으로 교류될 수 있으며 또 이들 要素間의 水平的 정보교류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 의미에서 이들을 水平的 組織要素라 부르고자 한다. 建築界의 水平的 組織要素는 建築教育의 對象設定에 필요한 要素다.

建築空間이란 量的으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과 이

들로 한정되는 빈 곳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質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바람, 열 등도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建築空間이라는 포괄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사람에게 有用한 建築空間을 創造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狹義의 建築分野 외에도 여러 專門分野들의 協力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專門分野들이란 構造力學, 設備, 造景, 土木, 都市計劃 等이며 경우에 따라 그 協力の 목이 다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앞서 논한 建築界의 水平的組織要素들에 共通的으로 필요한 專門分野의 協力을 의미하며 편의상 建築의 垂直的構成要素라 부르기도 한다. 建築의 垂直的構成要素는 建築教育의 內容設定에 필요한 要素다.

建築空間은 그 機能의 다양성에 따라 住居建築, 事務用建築, 公共建築, 宗教建築, 教育研究用建築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규모의 大小에 따라 작게는 一點에서 시작하여 一室, 多室, 建物, 建物群, 團地, 都市, 地域, 國土, 더 나아가서는 地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宇宙空間까지도 개념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 및 규모의 體系는 建築教育의 프로그램 設定에 필요한 體系다.

建築空間은 人間活動을 담는 그릇이며 建築空間認識의 主体는 사람이다. 사람을 모르고 사람을 위한 建築空間을 創造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建築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建築教育에서 人文社會科學分野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以上 建築과 建築人을 定義하고, 建築教育對象設定에 필요한 建築界의 水平的組織要素를, 建築教育內容設定에 필요한 建築의 垂直的構成要素를, 建築教育 프로그램 設定에 필요한 機能의 다양성 및 규모의 體系를, 그리고 建築空間認識의 主体로서의 사람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이러한 分析의 接近은 建築教育의 범위를 設定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分析에도 불구하고 建築教育을 시행함에 있어 建築의 大前提인 目的性은 항상 온전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建築의 目的이 人類를 위한 建築空間創造에 있다는 것이다. 建築教育이 자칫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空想空論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建築空間創造라는 建築의 目的性을 잃어 버린 데 기인하는 것이다.

Ⅲ. 問題點의 추출

1. 建築教育 後見機能의 不在

建築教育의 문제에 先行하는 國內 建築界의 문제점이 있으니 이는 建築界로서의 一體性 결여에서 오는 水平的組織要素 간의 무관심이다. 그 構成員 및 機能의 합리적 分化 자체가 애매한 建築三團體가 鼎立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으나 실은 그 중 어느 團體도 建築界의 총체적 대표기능을 할만한 包括性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더 큰 문제다.

아마도 建築團體의 包括性으로는 英國의 RIBA(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RIBA가 1년에 한 차례 갖는 총회에는 建築各界의 수 백명 회원들이 참석하여 3~4일 동안 머무르면서 研究發表討論, 建築材料展示, 建築界 共同關心事項 討論 등 理論과 實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교환은 물론, 자유시간을 이용한 각종 문화, 오락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建築人의 團合을 과시한다.

RIBA는 또한 英國 建築教育의 後見團體로서의 傳統적인 역할을 한다.

즉 RIBA는 英國에 建築教育 定規大學過程이 생겨나기 전 徒弟教育 당시에 建築家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3단계의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建築家의 質的 수준을 직접 관리하였다. 3단계의 시험은 제 1부 건축 보조원 시험(Architectural Assistant), 제 2부 보조건축사시험(Assistant Architect), 제 3부 건축사시험(Architect)이며 제 3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 경력은 7년이었다.

1894년 리버풀大學의 建築學科 창설을 시작으로 英國 建築教育의 中心은 차츰 大學으로 옮겨져 1972년 현재 英國에는 RIBA가 인정하는 39개의 建築學科가 있다. RIBA가 인정하는 建築學科란 종전 RIBA가 실시하던 3단계 시험을 自体에서 실시할 권한을 위임받은 建築學科를 의미한다.

따라서 現在의 英國 建築教育은 徒弟教育 당시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自律性을 위임받은 셈이나 그렇다고 하여 RIBA의 建築教育에 대한 後見機能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RIBA와 NCAA(The National Council for Academic Awards)는 5년에 한번씩 각 建築學科에 심사위원을 파견하여 그 建築教育의 수준을 심사한다. 수준이 미달되면 RIBA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위의 심사위원은 RIBA의 교육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實務者, 教育者들을 포함하여 7명 가량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각 建築學科에서 매년 실시하는 최종심사에는 内部심사와 外部심사가 있어 이를 결과를 RIBA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外部심사는 他大學 教授 및 實務分野 인사들이 맡는다. 이렇게 해서 각 建築學科의 教育內容, 방침, 그리고 그 質的 수준은 RIBA뿐 아니라 모든 建築人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後見機能이 英國 建築教育의 質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現在 國內 建築教育은 이러한 後見機能을 갖고 있지 않다. 形式상으로 본다면 文教行政과 大學行政이 그러한 機能을 맡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十餘年間 그 實質的 効力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도 그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다. 이제 學生定員과 이에 연관된 문제를 살펴 봄으로써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1980年度 UNESCO 통계에 의하면 1978년 現在 韓國의 專門大 以上の 建築 및 都市計劃係 專工 學生數는 2만 4천 33명에 이른다. 이는 같은 해 英國의 1.67배, 스위스의 11.5배, 스웨덴의 15.7배, 노르웨이의 42.8배, 그리이스의 16.3배, 덴마크의 9.3배, 인도네시아의 8배에 해당한다. 美國의 경우 직접 비교할 통계자료가 없으나 다른 통계를 인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2.75배에 달한다.

以上 통계들을 검토할 때 韓國 建築係 學生數는 1976년

품에 이미 英國의 學生數를 능가했으며, 1978年 以前에 美國의 學生數의 1/3線을 넘어 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建築專攻 大學生 定員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문고통계연보에 의하면 國內 大學 建築係 學科의 入學定員은 1976年 30個 學科 1천 2백 10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55個 學科 3천 1백 2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80年度 入學定員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1983年度에는 國內 大學 建築係 學生定員 1만 2천 4백 80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5年 경부터 建築專攻 大學卒業者는 3천명에 이를 것이다.

이는 1976年度 卒業者 7백 9명의 4 배를 넘는 수자이며 1980年度 卒業者 1천 76명의 3 배에 가까운 수자이다. 참고로 1980年度 卒業者 나 취업자는 6백 94명이었으니, 이 정도의 취업율을 유지하려 해도 1985年 경에는 매년 2천여명의 일자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學生定員의 문제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에 따른 敎授의 부족, 圖書 및 資料의 부족, 施設의 미비 등 부수적인 문제들을 고배 풀린 말처럼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며, 大學설치 기준령이 定하고 있는 교원 배치기준, 시설기준 등法令이 그 實質的 拘束력을 상실하였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다.

國內 建築敎育의 後見機能을 文教行政이나 大學行政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建築界의 後見機能이다. 그런 의미에서 建築界의 3團體 鼎立이라는 현상을 탈피하는 것도 급선무라 하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3團體의 협의 아래 建築敎育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共同委員會를 設置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2. 建築敎育의 自律性 결여

國內 建築敎育의 敎科過程은 소속 大學의 學則으로 정해지는 사항인 바, 이 역시 建築敎育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힘든 제도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國內 建築學科들은 대부분 工科大学에 속해 있으며 그 교과과정 수립은 물론 크고 작은 敎育政策들은 대부분 非建築人들로 構成되는 議事決定 과정에서 정해진다. 建築敎育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없는 非建築人들은 필경 建築敎育을 一般 工學敎育과 同類視하며, 설명 이해한다 하더라도 建築敎育이 工科大学에 속해 있음을 탓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의 建築敎育은 주로 非建築人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우리의 建築界는 예비 建築人들의 기초敎育을 전혀 他人의 손에 맡겨 버린 것이다.

물론 이 점에 있어 建築敎育의 一線을 담당하는 建築敎育界는 그 1次的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近年에 大學 卒業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技士試驗에서 建築專攻 卒業班 學生들이 선택할 수 있는 技士종목은 施工, 構造, 設備 등 3종목이었다. 이 중 施工技士 시험과목에 建築設計라는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당연히 建築計劃으로 불리어야 할 과목으로서, 말하자면 建築專攻 卒業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

가시험에서 정작 建築敎育의 주축인 設計가 제외되었던 것이다. 이제 建築專攻 學生들은 4學年이 되는 학기부터 定規 敎科過程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저학년 學生들도 기사검정과목 이외에는 냉담하게 되어 버렸다. 한 마디로 建築敎育界는 그 자체가 주도하여야 할 方向舵를 전혀 남의 손에 넘겨 준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1919年 Gropius가 Sachsen-Weimar-Eisenach 대공작을 만나 Bauhaus 교장직 수락의 조건으로 맨 처음 내세운 것은 學校 再改編을 위한 全權이었다. 그는 이 全權을 가지고 近代建築의 요람으로서의 Bauhaus를 성숙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1938年 Mies van der Rohe가 IIT의 建築學科長職 수락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새로운 建築敎育 프로그램의 채택이었다.

당시 Heald學長과 Cunningham理事長은 이를 이의 없이 받아들였고 Rohe가 IIT 建築學科長으로 부임하여 他意에 의하지 아니한 建築敎育을 실시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IIT뿐만 아니라 Harvard, Cornell, Columbia, California, Princeton, MIT 등 美國의 建築大學들은 入學, 제적, 敎科過程, 학위수여, 예산판계, 교직원채용 등 建築敎育의 學事, 敎務, 財務行政에서 온전한 自律性을 행사하는 建築敎育機關들이다.

우리 나라 建築敎育의 自律性 결여의 一次的인 책임이 建築敎育界에 있다는 말은 工科大学行政의 레드베이프에 얽매어 지극히 소극적인 建築敎育을 감속하여 온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많이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建築敎育을 建築人의 책임 아래 수습하여 나아갈 수 있는 自律性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 첫단계 行動은 아마도 建築學科를 工科大学에서 분리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 같다.

3. 建築設計敎育 輕視

建築敎育에서 設計敎育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번 있어 왔고, 우리 나라의 設計敎育이 현재의 미중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 國內 建築人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設計敎育이 당연히 지녀야 할 包括性(Comprehensiveness)에 대한 理解度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으며, 또 設計敎育이 建築敎育의 中樞的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명제에 있어서도 아직은 충분히 납득이 안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設計敎育의 중시가 建築敎育 他分野-構造, 設備, 建築史 등-에 대한 상대적인 輕視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設計敎育의 包括性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이며, 또 設計敎育 강조가 建築敎育을 디자인으로서의 建築家敎育 일면도로 끌고 갈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設計敎育의 目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이다.

建築設計敎育은 建築空間創造라는 建築人 모두의 사명을 실천에 옮기는 包括的 敎育의 場이다. 따라서 設計敎育은 單一科目이 아니라 연관 專門分野(建築의 垂直的 構成要素) 일체를 포함하는 複合科目이다.

英國 設計敎育의 특성은 그 包括性에 있다. 그들은 연관 專門分野 거의 모두를 設計敎育에 동원한다. 예를 들

면 設計案의 構造模型으로 構造力学實驗을 하기도 하며, 風洞에 넣어 바람에 대한 반응을 알아 보기도 한다. 또 사용 材料로 試片을 만들어 그 熱伝達特性을 實驗하기도 하며, 照明實驗, 音響實驗을 기치기도 한다. 따라서 設計教育은 여러 分野의 여러 教授들이 담당함은 물론, 그 場所도 設計室뿐만 아니라 各 專門分野의 實驗室, 圖書室, 模型製作室, 写真室 등이 다양하게 이용된다.

適當 20여 時間에 달하는 設計教育을 이렇듯 多岐的으로 進행시키기 위하여는 매우 組織的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英國의 建築学科들은 오랜 經驗에 의하여 축적되어온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英國의 建築教育教科過程은 設計教育을 주축으로 짜여지며 理論講義科目들은 設計教育을 보조하는 양상으로 進행된다.

美國의 경우 設計教育에 보통 適當 12時間을 할당하고 있다. 이 점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包括性的인 심도가 英國의 경우에 못 미친다. 즉 여러 專門分野의 教授들이 設計教育에 동원되지도 않고 또 各 專門分野의 實驗을 거치지도 않으며 그 場所도 대체로 設計室과 圖書室에 국한된다. 美國의 設計教育은 「問題中心」(Problem Method)으로 운영되며 이는 실제 혹은 가상의 問題를 設定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어프로우치(Approach)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1947年 CIAM 총회에서 행한 Gropius의 발언에 그 의미가 잘 표현되고 있다.

“建築教育에서 技術을 教育하는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프로우치 方法을 教育하는 것이다. 包括的인 지식과 經驗의 습득은 建築教育 初期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學生들은 事物의 全体性을 마음 속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教育方法은 設計, 構造, 경제성, 社會性을 同時に 包括하는 創造的 活動으로 學生들을 유도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英國과 美國의 設計教育을 비교한다면 英國은 行動的인 設計教育을, 美國은 思考的인 設計教育을 한다고 조심스럽게 一般化하여 볼 수 있다.

실제로 英國의 경우 設計 프로그램이 매우 상세히 작성되어 있어 學生들은 그 프로그램을 따라 주어진 과제를 차근 차근 수행해 나가는 편이다.

한편, 美國의 경우 設計 프로그램이 비교적 간단하며 學生들은 자유롭게 개성적인 어프로우치를 시도한다. 따라서 個人差가 많음은 물론이며 연관 專門分野 研究가 英國의 경우만큼 包括的인 아님도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그 教育原則을 어찌든 두드란에 設計教育이라 組織的이고 計劃的인 實驗爲主의 教育인 점은 英國이나 美國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다면 設計教育은 設計技術을 연습하기 위한 教育이라기 보다 建築的인 思考力을 기르기 위한 教育이라는 점이다. 設計教育 과정에서 設計技術을 습득한다면 이는 有用한 副産物로서 또한 환영할만한 것임은 물론이다.

設計教育時間이 適當 6時間에 不過한 우리 나라의 경우 設計 프로그램은 不在하며 設計課題는 建築類型(Building Type)과 규모를 定해 주는 정도이다. 절대 시간이 부족하고 一個班 50餘명의 學生들을 한명의 教授가 담당하므로 個人的인 지도시간이 매우 제한된다. 設計教育 담

당시간은 實時間 1/2로 以下計算되므로 그 輕視를 조장하는 셈이다. 그나마 일부 뜻있는 建築教育者들이 뒤늦게 設計教育을 강조하려 시도해도 결국은 부딪치고 마는 벽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學生들 자신의 設計教育 輕視 풍조이며 그 직접적 동기가 技士檢定科目에 設計가 不在하는데 있음은 이미 전항에서 언급한 바 있다.

國內 建築教育의 이러한 設計教育 輕視 풍조는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卒業生들이 실제로 社會에 나가 建築界의 실제 問題에 부딪칠 때 과연 學校에서 해온 것 以上の 思考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대답은 否定的이다. 그들은 아마도 建築空間創造라는 建築人의 사명 자체를 파소 평가할 것이며 이 세상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들의 思考過程에서 建築의 科學性, 藝術性, 社會性, 人間性 등 어휘는 거추장스런 것이 될 것이며 한 마디로 建築이 尙유해 오던 일체의 文化的인 가치는 퇴색하여 갈 것이다. 결국 創造的이어야 할 建築人의 이미지는 한낱 피동적인 注文生産者의 그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언제 부터일지는 몰라도 우리 建築人들 사이에는 이러한 굴욕적 立場에 차츰 익숙하여 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4. 建築空間 輕視

Bruno Zevi는 일찍이 「Architecture as Space」에서 빈곳(Void)의 有用性을 강조한 바 있다. 人間活動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建築의 有用性은 바로 建築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빈곳, 無, 즉 空間에 있다. 물론 空間은 無가 아닌 바닥, 벽체, 천장, 지붕 등 有形物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建築의 有·無 二元論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우선 有의 表面을 보도록 만들어졌으며 우리의 言語는 우선 有의 이름을 입에 올라도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는 有의 안티테제인 無를 등한히 할 思考的 弱點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事物의 겉 껍데기에 집착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즘의 建築教育의 教科過程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建築構造, 建築施工, 建築材料, 構造力学, 建築製圖等은 완전히 有를 다루는 과목들이다. 建築史는 空間을 다룰 수도 있는 과목이나 흔히 樣式史에 치우치므로 역시 有를 다루는 과목이다. 建築計劃原論은 建築環境의 物理的인 現象들을 다루므로 一見 有形物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빛, 열, 소리, 습기 등은 역시 有로 보아야 한다. 建築計劃各論은 空間을 다룰 수 있는 과목이나 흔히 物理的인 機能論, 所要面積, 등에 치중하므로 역시 有를 다루는 과목이다. 이제 無, 즉 空間을 다룰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과목으로 建築設計가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오늘의 建築設計教育은 어떠한가. 기본평면을 짜면서 벽체가 아닌 빈곳을 위주로 하는가, 창을 내면서 샷슈 아닌 빈곳을 생각하는가, 천정 높이를 정하면서 그

밑의 빈곳을 생각하는가, 지붕을 덮으면서 그 위의 빈곳을 생각하는가, 건물을 배치하면서 그 빈곳에 눈을 두는가, 나무를 심으며 그 그늘을 생각하는가, 침탑을 울리며 하늘을 생각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시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여 建築教育過程의 대부분은 오직 有를 위하여 쓰여질 뿐이다.

建築의 無, 즉 建築空間은 그것이 건축의 第一 目的임에도 불구하고 教育過程에서 경시되고 있는 것이다.

5. 人間 輕視

建築空間은 人間活動을 담는 그릇이며 그 認識의 주체는 사람이고로 建築空間創造는 사람에 대한 理解를 전제로 한다. 위 명제에서 '人間活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空間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人間活動을 전혀 物理的(Physical)인 것으로 본다면 결국 建築空間이란 物理的 人間活動을 담는것이 되므로 이는 바로 機能主義가 추구하던 바이며 機能主義는 이미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제목이므로 구태어 더 論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人間活動의 精神的(Mental) 측면이며 이는 人間이 육체와 精靈의 二元的 存在임을 인정한다면 굳이 反論할 성질이 아니다.

1981년 여름 美國建築學校協會(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 of Architecture)의 총회에서 Lawrence B. Anderson 씨가 행한 기조연설에서 建築界가 처한 '위기'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行動心理學者(Behavioral Scientist)와 새로운 발견들에 대한 建築人들의 無識을 지적하는 귀절이 있었다. 실제로 現代心理學界에는 環境心理學(Environmental Psychology) 分野가 이미 확립되었고 매년 수많은 論文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 예를 들자면 W. R. Finigam의 「住居環境에서 프라이버시의 역할에 대한 실험적 관찰」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住居環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천정 높이가 사람에 미치는 心理的 영향을 연구하기도 한다.

近年에 建築心理學에 관한 국제적 모임의 보고서가 종종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建築人들 사이에서 이미 建築心理學研究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아직 建築教育界가 여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는 기색은 없다.

Bauhaus 建築教育은 Gropius의 명쾌한 合理主義的 論理에도 불구하고 前近代의인 모든 것에 대한 反動的인 思考의 결과로서 하나의 맹점을 안고 태어났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人間不在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精神의 人間不在이다. Bauhaus의 교과과정에는 自然과 材料의 研究는 있었으며 人間 心理研究는 없었다.

Gropius, Mies, Breuer 등 Bauhaus를 中心으로 한 現代建築의 家수들의 작품은 'Pure Form'을 추구하였으니 그것은 추상예술에 가까운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가 감동할 만한 작품을 남겼으나 그들보다 훨씬 덜 천재적인 평범한 많은 建築家들은 오늘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건물들로 現代都市를 채워왔고 또 지

금도 채워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現代建築教育의 論理的 弱點인 人間不在, 더 구체적으로는 精神의 人間不在가 초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Bruno Zevi는 Wright, Aalto 등에 의해 대표되던 소위 '有機的 建築'이 機能 해석을 物理的인 기능뿐만 아니라 心理的인 기능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후의 機能主義 後期建築과 相通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有機的 建築'이 비평가들의 말대로 非論理的인 낭만적 운동으로 해석될 성질이 아니라 近代心理學에 바탕을 둔 科學的 論理의 산물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면 1940년대까지 有機的 建築이 천대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당시의 建築의 思考가 物理的 機能 이상의 기능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Wright는 그의 천재성에 의하여 心理的 機能을 設計에 적용은 하였으며 이를 설명할 論理를 가진바 없었고 또한 Gropius처럼 教育機關을 통하여 펼쳐나갈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막연히 '有機的 建築'을 언급하였을 뿐이었다.

그후 20여년이 지난 1957년에 Zevi가 「Architecture as Space」에서 心理的 機能을 언급하였고 60년대에 들어와 建築心理學이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建築教育은 이에 무관심한 상태이다. 本項의 人間경시의 문제점이라 함은 바로 이 內面的 人間의 경시를 두고하는 말이다.

6. 理論과 實際의 유리

1930년대 후반 Gropius, Mies 등 유럽의 建築家들이 美國 建築教育界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을때까지 美國의 建築教育界는 實務와 관계없는 教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Giedion은 美國 建築教育의 아카데미즘을 타파한 것을 이들 유럽 建築家들의 큰 공로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신념에 의하면 젊은 建築學徒들의 創造的 能力은 創造的인 教授들과 접촉함으로써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Giedion의 생각은 굳이 같은 범주는 아니더라도 美術教育, 音樂教育등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거의 反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美術의 미디어가 作品이요 音樂의 미디어가 소리이듯이 建築創造의 有一한 미디어가 建築空間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 創造能力의 직접적 원동력이 理論的 배경에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다만 理論의 배경은 思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建築學科 教授들의 實務경력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1970년대 까지는 그나마 그동안 實務에 익숙했던 教授들에 의하여 建築教育의 理論과 實際의 균형이 유지되어 왔다고 보자. 그러나 1980년대 부터는 그 균형이 유지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각 大學의 建築學科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거치고 實務界와는 거리가 먼 理論家들로 자리를 채워갈 것이다.

물론 建築學科들은 實務界의 인사들을 教授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教授의 자격인정에 관한 우리나라

의 文教法令은 實務경력을 경시하고 있으며 個人設計事務所 경력이라면 아예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教育界와 實務界의 유리현상은 필연적으로 建築教育에 있어서 理論이나 實際의 유리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오래 계속할수록 그 정도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IV. 結 言

以上 建築教育이 처하고 있는 현황에 입각하여, 6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설명하였다. 이 중 1, 2, 3, 6항들은 우리 나라의 建築教育에 해당하는 문제점들이고 4, 5항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建築教育에 해당한다기보다는 英·美등을 포함한 建築教育의 경향에 대한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체로 필자의 과거 10년간의 建築教育界에서의 경험, 1974년도 3개월간에 걸쳐 英國建築教育界를 돌아보고 얻은 것, 1981년도 文教部 선발 研究教授로 美國의 Columbia 建築大學에 머물며 살펴본 바, 그리고 同大學 도서관에서 찾아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추출해낸 것들이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반드시 建築教育 전

반을 包括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 建築教育 개선의 첫 걸음이 문제점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建築界는 모든 組織要素를 포함한 모임에서 共同關心事로서의 建築教育을 論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해결방안 모색은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보며 本論文에서는 構體的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과정이란 반드시 論理的 과정이 아니며, 非論理的 측면을 수반하는 과정이므로 공연한 個人的 의견의 난무는 오히려 편견을 낳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論文의 結論으로서의 하나의 제안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對話의 시작이다. 이 對話란 앞서 언급한 建築界 各 組織要素를 포함한 對話를 말함이며 그 形式은 大韓建築學會, 大韓建築士協會, 韓國建築家協會의 建築三團體가 인정하는 小委員會의 성격으로 합의 좋을 것이다. 그 다음의 모든 것은 그 委員會에서 協議됨이 우선의 순서일 것으로 본다.

建築界의 전반적인 저원없이 建築教育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음은 이미 本文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 저원이 가능해 질때까지 우리 教育界는 지금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다만 가능한 한도의 研究, 教育에 전념할 수 있을 뿐이다.

1981년도 문교부 해외파견연구교수 보고논문.

〈참고 문헌〉

- 東亜年鑑 1979, 東亜日報社 1979
- 文教部 통계연보 1980, 文教部 1980
- 李熙奉, 建築設計教育의 理論과 方法에 관한 研究, 울산공대 연구논문집 제10권 2호 p.57~68, 1979
- Anderson, L. B., Excerpts from the Keynote Address, ACSA Annual Meeting, Asilomar, 1981
- Ansell, W. H., Architectural Education, Journal of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April 1936, p. 565
- Bosworth, F. H., Jr. et al, A Study of Architectural Schools, Charles Scribner's Sons, N. Y. 1932
- Giedion, S.,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ninth printing,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1980
- Grant, W. V. et al,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1980,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980
- Gropius, W., The New Architecture and the Bauhaus, the seventh printing, the M. I. T. Press, Cambridge, Mass. 1979
- Jenkins, M., 영국에서의 건축교육과 실무와의 관계, 建築 17卷 52號 73年 6月, 大韓建築學會 1973
- Swenson, A. et al, Architectural Education at IIT 1938 - 1978, IIT 1980
- UNESCO, Statistical Year Book 1980, UNESCO.
- Zevi, B., Architecture as Space, Horizon Press, N. Y. 1957

現代建築에 있어서의 五大이즘 (完)

〈다음은 英國태생으로 현재 美國콜롬비아
대학교수로서 과거 설계 실무를 거쳐 지금
은 건축평론가로도 활약 중인 케네스·후람프
턴(Kenneth Frampton) 교수가 지난해 7월
8일 일본 동경대학 건축과 대학원에서 행
한 강연 내용을 A+U誌 81년 10월호에서
보고 옮긴 것이다. / 편집자 /

이번 세 이즘은 構造主義(Structurism)이다. 이 이즘의
발단은 네덜란드이며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알도·
반·아이크를 들 수 있다. 다만 구조주의의 경우는, 다른 이
즘의 경우와 같이 教科書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권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도·반·아이크에 의한
1950년 중반 경부터의 일련의 小論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이 문화적으로 사회에 받아 들여지기 쉬운 반면,
프로덕티즘이나 네셔널리즘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것은
여러분도 느낄 것이다. 그것들과 비교해 볼 때 알도·반·아
이크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人類學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단순히 西洋的인 思考에만
그치지 않고 서양 이외의, 예를 들면 이슬람文化나 아프리카
文化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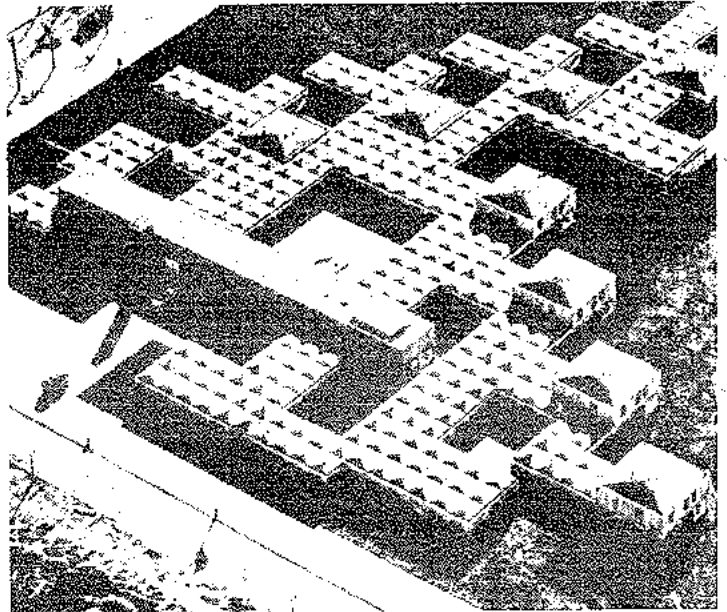
반·아이크의 문장에 〈迷路〉, 〈迷路가 가지는 明晰〉이라고
한 말이 있다. 예를 들면 그에 의한 파빌리온이나 아이들의
집(1958년)에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들의 집은 大小의 공간이 다양하게 組合되어 있어, 말하자
면 正面이 없는 건축이며 平面 또한 대칭형이 아니다. 그러
나 극히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명확한 場을 가지고 있다.

이 場이라는 개념의 강조는 네셔널리스트(Nationalist)들
에게도 돋보이게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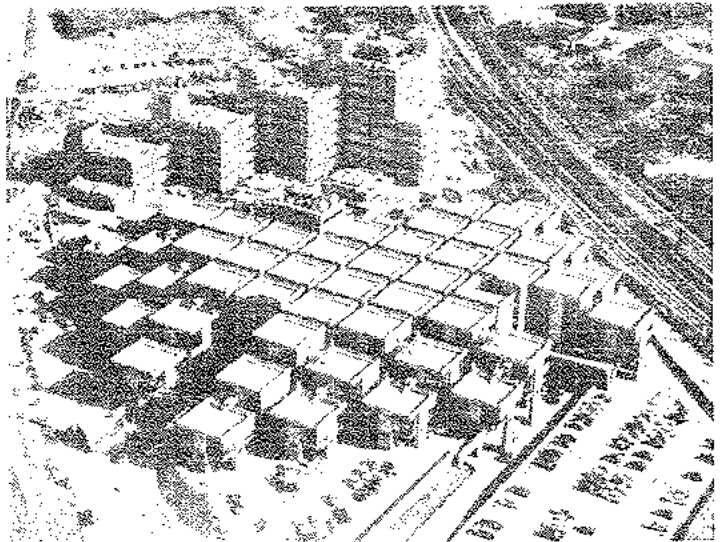
반·아이크의 제자들 또한 迷路·場이라는 개념을 내포하
고 있는 건축을 디자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에트·부룸
의 學校프로젝트는 이슬람建築의 場의 요소를 지닌 안이였
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아이크의 思考를 가장 명쾌하게 표
현해 준 예를 든다면, 역시 반·아이크의 제자인 헬만·헬스
벨하의 보르네사建築物를 들 수 있다. 이 건축은 불명예는 迷
路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作品과, 프로덕티즘으로 처리한 포스터의 보원
회사建築物를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공간의
構成方法은 전혀 대조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構造의 건축가들은, 건물은 인간이 그 속의 場을 소유하고
이용함에 따라 처음으로 그 건물에 대한 깊은 의미가 이해되
고 인간과 環境을 맺게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포퓰리즘의
사고와는 정반대의 말이다. 포퓰리즘적인 건축가들은 건물을
항상 시각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공자방이 시
설되어 있으면 그곳이 입구라는 類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構造의인 사고로 만들어진 건축은 迷路의構成을 가지고 있
긴 하나 자세히 보면 構造시스템이나 施工시스템을 노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헬스벨하의 작품은 이러한 점



알도·반·아이크/ 암스테르담의 市立孤兒院 · 1955



헬만·헬스벨하/ 센트럴·비하이·오피스빌딩 · 1972



헬만·헬스벨하 / 센트럴·비하이·오피스빌딩 · 1972

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건물의 기치를 강조할 수 없을뿐더러 건물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일도 어려워진다. 램프렐하의 건물을 보고 기가 어디라는 것을 즉시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바로 이 점이 앞서 말한 포스터의 작품과 일치되는 공통점인 것이다. 프로덕티즘, 構造主義의 각각의 대표작이기도 한 兩者는 어디가 입구인지, 무슨 건물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공통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 이즘으로서, 먼저 두장의 슬라이드를 보아 주었으면 한다. 한장은 스위스의 베린조나이며, 스위스의 내셔널리스트인 마리오·뫼터가 비치고 있다. 또한장은 같은 스위스의 아스코넬의 사진이다. 이 두 마을은 스위스에 있으면서도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슬라이드를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리저널리즘(Regionalism), 즉 이 발은 감상적인 위양스를 풍기고 있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라비전리즘(Revisionism)이라고 부르는 편이 좋으니까 아닌가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리저널리즘이라는 말만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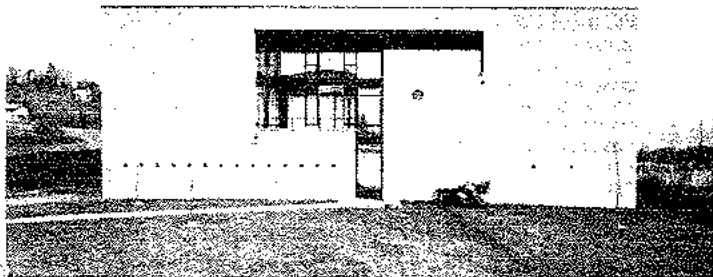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출간된 拙著(近代建築: 批判的歴史)의 마지막 장에서 논한 것이다. 즉 나는 거기에서 生産方法을 통한 건축과 사회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다섯 분의 건축가가 이 장을 읽고 매우 노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의 이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산방식이나 사회와 건축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近代建築〉을 쓰기 시작했던 무렵, 나의 머리 속에는 네 가지의 이즘 밖에 없었으나 이 책을 쓰면서 나는 그것을 되도록이면 논쟁적으로, 즉 議論의 대상이 되도록 생각하였고, 따라서 다섯번 째의 主義가 클로즈 업된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리저널리즘이라는 말은 다른 이즘에 비해 폭넓은 의미를 가지며, 그 내용 또한 매우 모호하고 일반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건축의 議論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리저널리즘을 국제적 人氣熱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즉 국제적 미디어 속에서 話題가 되고 인거를 커뜨리기 위한 건축을 하는 건축가들을 도외시키는 것이다. 또한 國際的帝國主義라고 부를 수 있는 건축에 대해 전세제의 모든 것이 획일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반대한다. 즉 리저널리즘이란 어떤 한정된 지역에 매여진 건축, 또는 건축가를 긍정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리저널리즘이라 불리우는 건축을 보기로 하자. 마리오·뫼터의 작품에는, 건축을 지역의 특질 가운데에 도시의 상황 속에 삽입하려고 하는 태도가 역력히 표현되고 있다. 특히 이 주택은, 주위의 결코 良質이라고 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하여 일단 방어적인 壁을 만들고 이 벽을 잘라 내어 내부의 시선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집 모양도 무언지 모르게 이 지방의 農家를 연상케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더 말할 것은 이 주택에는 주위와 일체 격리된 内部化된 테라스가 있고 외벽의 縞 모양 역시 이 지방의 파나큐라와 같은 방법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건물자체가 땅에 굳건히 뿌리를 박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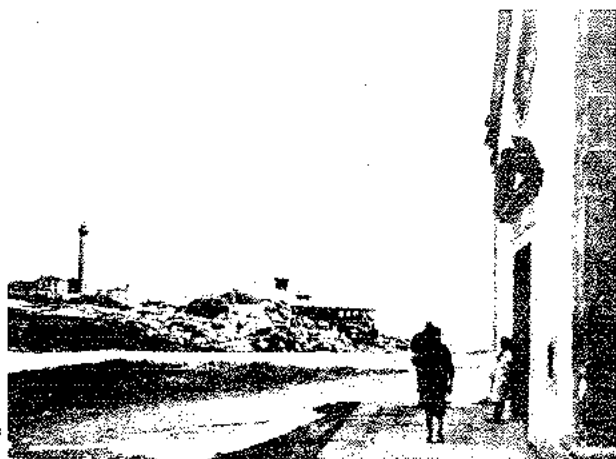
뫼터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질은 어떤 의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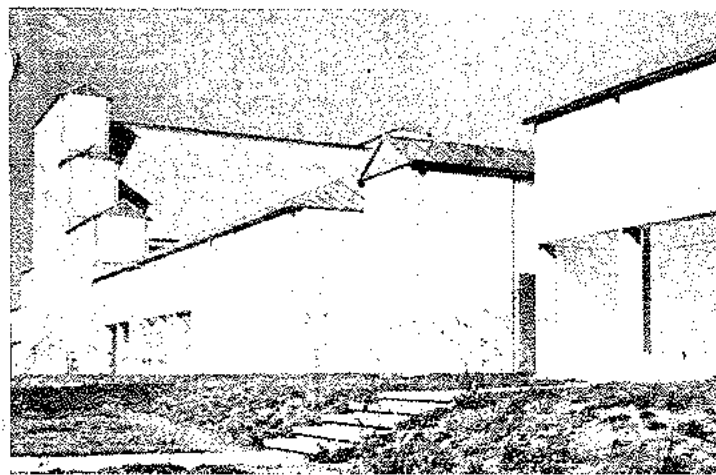
마리오·뫼터 / 리콜넬트의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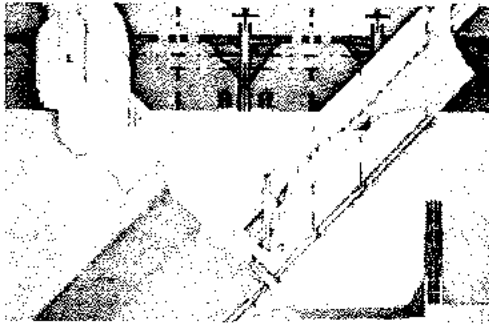
투이스·바리건 / 갈리디邸宅,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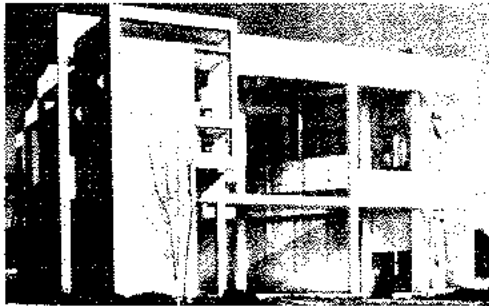
알파토·시저·비에이라 / 포어·노비의 레스토랑,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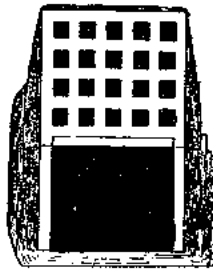
요른·뤼트 / 하우스베어의 敎堂, 1979



라이몬드·아브리함 / 비네
지아의 歴史地畵에서의
集合住宅計劃



피터·아이젠만 / 住宅3號



윈·미하일소브에 건립된
로스의 건축에 대한 풍자
화 · 1911

는 역사주의적이라고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감상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포퓰리즘과 같이 무엇에서 무엇까지 마음대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만은 명백하다.

다음에는 포르투갈의 알바로·시저·웨에이라의 작품을 보기로 한다.

그의 작품 역시 포르투갈의 大地 위에 강하게 뿌리를 박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극단적인 말로서 표현한다면, 그것이 1920년 경의 건물인지 1970년 경의 건물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무언지 모르게 이 지방에 어울리는 느낌을 주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멕시코의 루이스·바라간의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와와의 깊은 결합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곳에서는 텃이나 마당이라는 수법을 잘 활용하면서도 塲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볼 수가 있다.

요론·윳존의 많은 작품들은, 이러한 방향을 제시한 작품들 중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의 集合住宅에서는 외벽에 덴마크의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탐은 반드시 덴마크적인 디자인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것은 때에 따라 스페인이나 中近東을 생각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작품은 덴마크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연결을 암시해 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 말한 바라간의 주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주택은 전체적으로 볼 때 멕시코의이지만 中庭의 분수 등은 이슬람을

생각케 해준다.

리저널리즘의 결론으로서 윳존의 코펜하겐에 있는 교회를 볼 것 같으면, 이 작품에는 그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윳존 자신의 드로잉이 있다. 먼저 그것을 보기로 한다.

역시 아크로폴리스 위에 東洋의 파고다가 浮上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건물의 断面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내부에는 아크로폴리스의인 基壇위에 寺院의 단면형을 가진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外觀을 보면 덴마크의 農家の인 분위기가 풍기며 벽돌붙임 방법에 따라 내부의 教會空間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보르·리크르는 〈歷史와 眞實〉이라는 제목의 책 중, 한 에세이를 통하여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은 國際的인 문화와 개개의 국민적인 문화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보편적인 문명 속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여 지역적인 문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오늘의 역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해답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一文明이 전세계를 지배해 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문명과 지역적인 문명이 서로 공존해 가는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적으로 볼 때 이 말은 국제적인 범위를 갖는 건축과 지역에 고정된 樣式建築의 통합이라는 말로 換言하게 된다. 그렇다면 윳존의 작품은, 한편으로는 세계의 다른 문화와의 결합을 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덴마크의 농가라고 하는 一箇地域의 고정된 양식과의 연결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丹下健三이 행하고 있었던 일이며 다시 오늘의 篠原一男이 행하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서 옛세노우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지만, 그는 오늘의 내셔널리즘에 통달하고 있을뿐 아니라 윳존 등의 출현을 예기시킨 존재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상이 리저널리즘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지금까지 오늘의 建築狀況에 있어서의 5대이즘에 대하여 概觀해 본 셈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건축을 생각할 때 헛트가 될만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고자 한다.

먼저 처음 것은 유명한 듀산의 〈泉〉(1917년)과 1927년의 칼·캄스호프이다. 前者가 보편적인 문명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면 후자는 塲에 대한 思考를 과시하고 있다.

다음은 아이젠만과 아브리함의 작품이다. 전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의 자율적인 문제의 형태를 취급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塲을 만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것은 1910년, 아돌프·로스의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신문에 실린 풍자화로서, 근대인이 어떻게 하여 近代建築의 디자인을 생각해 냈을까를 비꼰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間〉이라고 하는 漢字이다.

나는 이 세 개의 슬라이드를 통해 무엇인가를 결론 짓거나 가치판단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들은 앞으로의 건축을 생각하는데 하나의 議論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議論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끝내고자 한다.

끝까지 靜聽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建築家の 現在像

田中清原著

(一) 왜 건축가를 지망하는가?

현재 이미 일가를 이루고 있는 선배 건축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건축가가 된 동기기는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성한 건축가일수록 그 길을 선택하게 된 최초의 동기부터가 뚜렷한 인식 위에 서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또한 그만큼 그분들의 목적설정이 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관심과 동경심의 농도가 짙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에, 일부 현역 건축가들도 포함해서 가장 많은 회답은 「설계하는 것이 좋아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그 반면으로는 「전 실하게 좋은 일을 해 보려고 하면 그럴수록 직업으로서의 냉엄함이 뼈에 사무친다」고 하는 한탄의 소리도 흔히 들을 수 있다.

건축가로서의 기쁨, 그 매력과 건축가로서의 냉엄함과 쓰라림이 뒤섞인 세계라고나 할까.

어느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건축가로서 뜻을 세우려거든 막중한 판단과 자기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건축가를 지망한 동기

1. 건축하는 것이 좋아서 자기 손으로 직접 설계를 해보고 싶었다.
2. 사실은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직업적으로 자신이 서지 않아서 차선책으로서 건축가를 지망했다.
3. 아버지 또는 친근자가 건축에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건축가를 동경해 왔다.
4. 예술, 기술, 제작이라는 종합적인 일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5. 어릴 때부터 수리적인 공부が好き해서 이론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다.
6. 상인이거나 일반적인 셀러리맨이 되고 싶지가 않아서 건축을 선택했다.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스스로

꼭 창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7.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같은 설계이긴 하지만 「뭔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저항감을 느낀 바 있어 건축가로 방향전환을 했다.

8. 관공서에 들어갔으나 자기의 저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가로 방향전환을 했다.

대략 이상과 같은 동기가 많다. 즉, 본인의 지향이나 자각에 의한 것, 출생하면서부터 주위환경에 의한 자극, 전문적인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의 선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직장에 들어간 후에 강한 인식과 동경에 의해서 방향전환을 하는 사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건축가로서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상당한 기술과 경험에 의한 수련이 필요하다.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당장에 독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보통 10년 쯤의 실무적인 길은 연구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 직장의 환경여하에 따라서 본인의 건축가로서의 특질에 커다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 좋은 직장」이란 말이 있다. (「좋은 직장」이란 말은 조임급(給)의 많고 적고나, 사무소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리고 지명도(知名度)와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좋은 스승, 좋은 직장」에서 공부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는 본인의 건축에 대한 정열 탐구자로서의 마음가짐, 공부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여러가지가 상승 효과를 작용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음은 전문학부를 나온 후의 중간과정을 분류해 보자.

□ 독립 전의 직장과 일반적 특성

설계사무소에서 자란 건축가 및 독립

자, 대학교수, 강사 등에서 독립한 사람, 건설회사 설계부에서 독립한 사람.

이 밖에 아버지가 창설한 사무소를 계승하는 건축가도 있긴 하지만 「건축가」로서의 능력 그 자체가 「일선전속적」인 재능이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는 않다.

또한 일찍부터 건축가인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직업을 선택해버리는 일도 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코오르서는 전문학부를 나온 뒤 알맞다고 생각되는 설계사무소에 들어가서 실무를 공부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직장환경, 연구자료의 정비, 스승 또는 선배의 지도, 동료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진보 향상되는 점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좋은 나쁜 스승 선배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쉬운 상황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니 자기자신의 판점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

시공업자에 대한 지도업무, 감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보통 4년~5년의 설계실무의 경험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에는 건축주의 대리인이라는 입장도 겸하게 되니까 계약에 관한 지식——예를 들면 민법, 상법, 건축사법, 건설업법——등을 이해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건설에 대한 모든 재료, 제품, 공임 등의 코오르를 알고 재료, 제품의 표준치수나 재질특성에 통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저렴하고 질이 좋은 이른바 「경제설계」는 불가능하다.

이와같이 건축가는 「디자인」 「코오르」 「타입」 세 가지의 방침을 확정해서 건축주의 목적에 응하면서 한편으로는 건축의 필수조건인 「기능성」, 「쾌적성」, 「안정성」, 「내구성」의 4 대요소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일단」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0년 정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건축사법」에 의한 1급건축사의 국가자격을 얻었다 해도 3년이나 5년 쯤의 경험으로서는 하나의 건축가로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Professor architect의 설계활동에 이어서는 그 입장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1. 우수한 재능에 대한 속망으로 설계를 의뢰받는 경우
- 지도성, 제동성이 있는 작품을 기대할 수 있다.

2. 의뢰받는 측의 경제적인 목적으로 수탁하는 경우

독자의 사무소 조직을 갖고 있으면 특히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연구실의 학생들을 참화(參滿)시켜서 설계를 하는 경우는 자칫하면 작품이 실험적, 시작품적으로 될 수도 있으며 목적 자체가 아르바이트적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다. 또 시공성이나 공사비계획성이 불충분하게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의뢰를 하는 건축주도 원래의 목적이 실험적,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이점은 있겠지만 일종 위험성을 자오해야 할 것이다.

본래 설계사무소의 운영에 있어서나, 교육, 연구자의 입장에 있어서나 이것을 진지하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양다리 걸친」 겸직으로서는 어느 한쪽이, 혹은 양쪽이 모두 엉성하게 돼버릴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또, 싼 보수를 주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해서 덤핑류의 수주(본인의 참여는 그것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결코 덤핑 행위라고 배정하지는 않겠지만)를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3. 별도의 이점으로 자신이 주관하는 설계사무소로 우수한 제자를 스카우트하는 수도 있다.

이 점은 서로 이해한 다음에 성립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설계업무만으로는 경제적으로 곤란해서 겸업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건축가의 경제적 처지를 고려해 볼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써 본인으로서는 하나의 생활 방법이기도 한 것이니까 어러쿵 저러쿵 비판할 것만은 아니다. 또 그러한 것은 어느 수준 이상의 재능을 평가받지 못하면 성립될 수도 없는 일이다.

건설회사로부터 독립한 사람의 경우,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구곡을 벗어 버리게 된 주된 이유로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나는 건설회사 설계부가 모체인 영리조직으로부터의 구속 때문에, 건축주의 거대해 객관적으로 응하지 못하는 불만에서 탈출해 보려는 동기, 즉 자주적인 입장에서 건축을 창작하고 싶었던 원망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질의 건설회사 설계부의 조직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느끼지 못했거나 혹은 자주독립 해보고 싶은 기개나 자신이 없는 사람은 건축가로 전신(轉身)해 보겠다는 생각은 해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신(轉身)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시공이나 코스트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세상 물정에 아주 밝아서 조직운영에 대한 묘를 훌륭히 살리는 사람이 많다.

다만 본인이 주의해야 할 일은 건축가로서의 프로페션과 비즈니스의 밸런스 감각의 체득이다. 그리고 기술에만 치우치지 않는 창조적 능력, 디자인, 정책력을 연마하는 일일 것이다. 손재주만 믿는 직업적 건축가나 속물건축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동기는 자기의 성격이나 재능이 건설회사란 직장에는 부적합하고 오히려 설계자로서 자립하는 것에서 생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자각된 사람이다.

이 경우는 인생 코오스로서는 일종의 낭비를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재학 중에 있으면서 그러한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실은 이 글을 쓰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건축기술자, 건축가를 지망하는 젊은이나 대학의 건축과 학생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관공서의 설계조직에서 독립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제작 중에 그 조직 내의 풍부한 자료와 선배들의 축적된 지도력, 비교적 자유로운 연구활동 등이 있고, 또 독립 후의 영업면의 이점이나 인맥에서의 이점은 크다.

다만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직장환경, 나쁘게 표현하면 아무리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그다지 부담감을 느끼지 않던 안이한 분위기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서 건축가로서 자립하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에 상응하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자기자신의 재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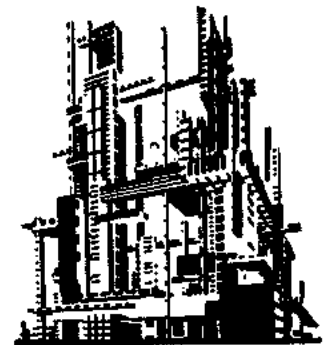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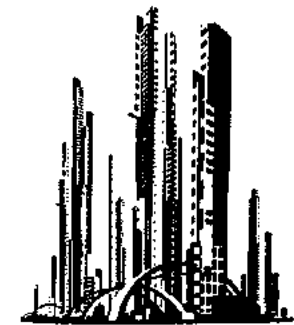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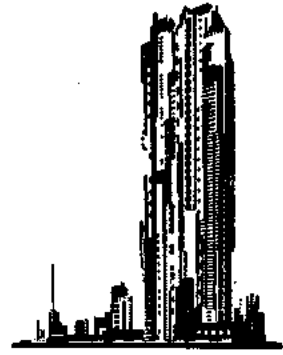
(二) 건축가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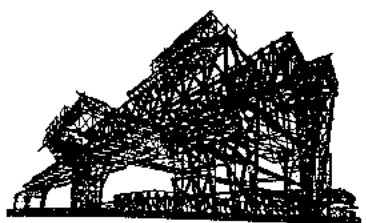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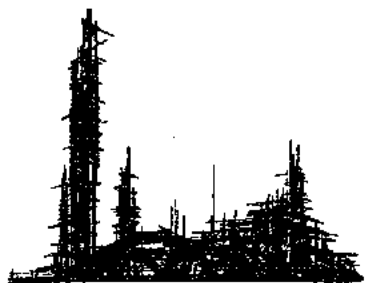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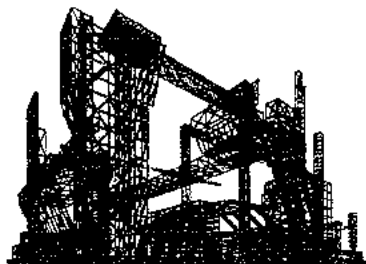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1급건축사 등록자 131,255명
1급건축사사무소 등록 37,767개소
이 등록사무소 중 전업사무소는 약 60%인 22,600개소
1979. 6. 30 일본건설성통계에 의함, 사무소수와 인구비에 의해서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면 일본은 미국의 7.5배에 상당하고 인구 3,000명에 1사무소의 꼴이 된다.

또 1급건축사는 인구 900명에 1명뿐이다.

미국의 경우는 인구 22,000명에 1사무소, 인구 7,300명에 등록건축가 1





명의 비율이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81년 현재 등록된 건축사는 약 2,000명으로서 인구 2만명에 1명 꼴이다.

미국과 같은 비교적 조건이 좋다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건축가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대단히 부족하다. 프로페션에 대한 인식이 얇은 것은 물론, 건축가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도 건축가들은 개탄하고 있다.

설계자를 단순히 「청사진을 만드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10명의 건축주나 고객 중에서 9명까지가 건설업자와 건축가를 구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본의 처지와 별로 다른 것이 없으나 현재의 일본에 있어서의 건축가수와 대비한 회소가치와 관련시켜 추측해 본다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든다.

적어도 미국에 있어서는 1972년에 성립된 건축설계자, 기술자(A/E) 선택법에 의해서 가격으로 인한 부당경쟁으로부터 건축가를 보호하고 있으며, 건축가들도 일본보다는 덩핑행위를 훨씬 덜하고 있는 실태라고 한다.

일본에 있어서 건축가의 직능이 명치(明治) 이후 「서구건축문화의 도입(移入)」이라는 사명으로부터 스타아트(해서향상)그매그매에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안으로 내포하면서도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그러한 여명기로부터 성장기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는 언제나 건축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데는 자타가 모두 인식해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이러한 것을 회고해 볼 때 그 성과로서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확실히 국가사회를 충실케 하는 데에서는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이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건축을 불문하고, 그것은 「노력의 봉사」라고 하는 숙명성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과거의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 정책에 경제·법률이 사회기구를 리드하고 과학·기술이 전자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에 있었다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그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는 건축가도 기술자, 직인(職人)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로 밖에는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도 다분히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상은 건축의 최고 목표를 「인간생활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방향전환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건축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 혹은 그 내용, 또 그 반대인 불만의 누적 형태등은 본인 자체인 건축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관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률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건축가 개인의 인격이나 능력에 따라서, 어떠한 세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직업으로서의 건축가」, 건축설계사무소를 주관적으로 해서 타업종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과 특질을 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보람있는 생애 대하여

이 문제는 가장 주관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어쨌든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인니까 건축가라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해버리면 너무나 모범적인 대답으로 되어버리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흠도 있거니와 나아가서는 자신이 열중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의 강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보람있는 생」의 문제는 직업에 한한 것만은 아니다. 직업과 가성, 직업과 경제수입, 직업과 취미, 사회인으로서의 평가, 직업과 인생에 있어서의 시산관계 등등, 직업과 서로 얽히지 않을 수 없는 이들 문제들을 한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판단하고 결론 내린다는 것은 무리 일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우선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은 명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1. 어떻게 해서라도 건축가가 돼보고 싶다는 외욕과 애착심이 강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2. 건축가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과 자부심이 없으면 결국에 가서는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3. 강건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못되더라도 보통 이상의 건강체가 아니면 고통을 많이 느끼는 직업임을 알아야 한다. 즉 두뇌와 신체를 꽤 불규칙하게, 더구나 동시에 혹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종종 닥쳐 온다.

4. 직업에 대한 사명감, 프로페션으로서의 이념이 필요하다. 고생은 많고 경제적으로는 낮은 평가 밖에 받지 못하는 건축가의 입장 / 이러한, 말 못할 입장도 자기 스스로의 이념과 그리고 건축주로부터의 감사의 정에 의해서 「보람 있는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평가

직업이란 개념에서 말할 것 같으면 건축가를 내하는 일반사회적 인식에 의한 「어려운 직업」 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문화인, 교향인, 기술자라는 인식에서 평가되고 있고 적어도 건축계 안에서는 아직도 불완전한 대로 지도자적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건축기술자, 시공기술자에 대한 지도성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종합 건설자가 현저하게 강대해진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할 때, 금후의 사태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낮은 경제적 평가와 아울러 압박당한 보수에 의해 건축설계사무소의 존재 그 자체마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어찌서 그러한 현상에 놓이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사건을 말해 보겠다.

1. 정치, 경제에 대한 건축가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영향력이 저조하다는 것. 즉 정치·경제문제를 등한히 하는 건축가의 태만성.

2. 창조성, 예술성, 문화성, 사회성과 같이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요소가 건축주로부터 받는 보수의 몫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를 주장할 못하고 있다는 것——이것은 일본인의 문화성과 인도(民度)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한다.

3. 금전문제에 대한 주장이나 집착을 야비한 것으로 생각하는 건축가의 그릇된 습성——이것을 무사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직언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혹은 「결례해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어쨌든 자승자박이란 말이 머리속에 떠오른다.

4. 질이 나쁜 건축가가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려서 평가해 온 흔적이 있다. 사회에 대한 영향행위일까? 아니면 경쟁의 한 가지 수단일까? 혹은 자기 자신의 조잡한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했을까? 이러한 인과응보에 의한 악순환으로 날비암야 여타의 우수한 건축가까지 원하든 원치않든 간에 휩쓸려서 골탕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전문가능성에 있어서 미연한 건축가, 설계사무소가 파생함으로써 건축기 전체의 사회적 평가와 업무의 경제적 평가를 부당하게 저하시키고 있다.

6.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설계사무소의 난립에 따른 경합의 결과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

□ 직업과 고객의 관계

「참된 마음으로 참된」 건축을 창조하는 경우, 거기에는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전문능력을 심신을 다해서 발휘하는 데에 바로 건축가로서의 보람이 있고 「일에 대한 재미」와 함께 「고통」이 수반된다. 이러한 「보람」과 「재미」와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깊다는 것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건축주까지도)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건축주로부터 만족과 감사의 정을 얻어낼 때에 건축가로서의 긍지를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경지에까지의 경과와 성과에 의해서 건축가로서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좋은 결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 중에는 「인간만사는 황금이면 여의형통」이란 고정관념을 신조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설계에도 이해를 갖지 못하며, 시공자한테도 병담한 인물이고,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일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금전문제 외에도 매사에 대단히 아집이 강한 건물주와 부딪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집념과 열의를 가지고 정성껏 설득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골치아픈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즉, 건축가로서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건축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또 건축주와 시공자, 건축가와 시공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예측되는 때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수탁을 사퇴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직업과 가정의 관계

특정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극소수의 건축가를 제외하고 일반건축가는 이론과 자유직업인이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적 기반이 박약한 것은 면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의사나 변호사와 비교해서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자주독주(自主独走)의 길을 택한 본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런대로 최저한의 조건은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못해서야 가장으로서의 책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원래 건축가라고 한다면 건축가란 그것으로 「밥」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데 만일 「밥」에도 곤란이 따른다면 그 건축가에게 「家」자가 우스꽝스럽고 쑥스럽고 어리석고 한심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건축가는 프로페션에 속하는 직업이기에 다른 장사와는 달리 다소의 가난쯤은 눈감아 주지 않을까 하는 구차한 자기변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밀친 없는 처회를 짜내어 보낸다.

1. 시간이나 수입이 불특정한 가장과 2인3각의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온순하고 매사를 오묘조묘하게 꾸려나갈 줄 아는 아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신은 그러한, 이 세상에도 없는 여성을 배필로 만날 자신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2. 돈벌이에 전연 외유이 없는 가장을 대신해서 남성 이상으로 특수한 기능을 소유한 수완 있는 여성한테 가게를 떠맡기든지 아니면 본인의 일에 몰입하게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헌부인을 맞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오로지 자신의 사생활을 점소강건하게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자녀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온 가족들이 모두 무병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있어야 할 것이다.

3. 가족들과의 회목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본인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복잡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때로는 「일」과 떨어져서 「가족과의 시간」같은 것을 꼭 가져야 한다.

4.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처자들에게도 프로페션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해를 얻어냄으로써 가장으로서의 존경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비록 경제적으로는 윤택하지 못하더라도 그 원인이 반드시 가장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이상과 같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한 농담에 불과하다고 웃고 마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한 엘리트가 못되는 한 그 사람은 상당히 천박하고 경솔한 자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평범한 일상적인 문제라고 덮어 두어서는 안된다. 도리어 일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의치 못할 때는 심각한 고통거리로 되는 것이다.

확고한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건축가라고 하는 직업을 경원(敬遠)하는 것이 무난하다. (*)

連載：건축물의 단열시공법〔I〕

李 鍾 寬 (會員・한국 건축기술 연구소)



- 〔I〕 제1절 단열과 최근의 동향
- 제2절 건축물과 단열부위 개요
- 제3절 단열시공의 효과
- 제4절 신축건물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결정을 요하는 사항
- 〔II〕 제5절 단열시공상의 주의사항
- 제6절 부위별 단열시공
- 제7절 개구부
- 제8절 온돌아궁이 및 고래부분의 구조
- 〔III〕 제9절 건축법규로 본 건축물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
- 제10절 난방도일
- 제11절 단열부위의 계산
- 제12절 FHA의 보온 권고사항
- 제13절 ASHRAE규격 90-75

제1절 단열과 최근의 동향

건축의 단열은 결로방지와 실내의 기후개선에 있으며 냉난방의 효과도 기대하며 행하여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최후에 에너지의 효과가 주어지도록 연구되는 과제이며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단열시공법이다.

단열은 크게 분류하여 세가지의 효과를 갖는다.

- 1) 결로방지효과
- 2) 실내기후 계획상의 효과
- 3) 에너지 절대유용에 대한 효과

이 세가지 효과중 첫번은 옛부터 주택의 외부를 면한 부분의 결로방지에 대한 연구와 실제 설계에도 채택되어 오고 있으며 두번째의 예로서는 실내온도, 습도, 기류를 충분히 조정하여도 수위 벽체온도가 이상적으로 높거나, 낮아짐에 따라 거주자의 쾌적한 생활에 온열감으로보아 만족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것은 거주자에게 있어서 형태계수가 큰 방바닥과 천정의 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 첫번째와 두번째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은 이제는 상식화된 상태이나 이에 비해 세번째의 에너지유용에 대한 효과도 전제계에 에너지위기를 몰고 왔으며, 에너지위기는 현대인의 지혜와 노력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며 시련이라 하겠다. 세계각국은 이 에너지위기를 당하여 저마다 석유자원의 확보와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에 집점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에너지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구미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부가 건물의 단열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단열규정으로서 1975년 12월 31일부의 건축법개정에서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 조항이 법 제23조 4호로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1978년 10월 서울공대 건축과교수였던 이 전씨와 한양대학교 공대교수 오 창희씨와 한국건축연구소 이 종관소장으로 구성된 연구진으로 하여금 “열손실방지를 위한 건축물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어 1978. 12. 3일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건설부에서는 관계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을 공포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외에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에서의 활발한 연구와 계몽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제4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그 규정이 일반적인 면에서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또는 금후로 법적인 강제력이나 법을 운영하는 방법과 실천할 수 있는 범위가 일반적이 될 수 있는냐는 현 상태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관계에 따른 법을 다루고 운영하는 관제인이나 지도, 감독하는 일선 공무원, 건축사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자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국가적인 의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제2절 건축물과 단열부위 개요

1. 주거 건물에 있어서 열방출

주거건물에 있어서 주된 열방출은 천정, 벽, 마루, 창호 그리고 틈새바람(infiltr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표 1은 절연되지 않은 가옥과 절연이 잘된 가옥과의 열방출면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보여주었고 있고, 여름동안, 에어컨디셔닝(Air conditioning)을 통한 열흡수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 천 정

다락과 천정절연은 열방출에 중요한 감축작용을 한다. 이것은 절연되지 않은 천정이 열효율에 대해 실제로 아무런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면 중요한 개선이라 하겠다. 비절연가옥에서 천정을 통한 열손실은 총 열손실량의 40%이상에 달하는때 이같은 문제점이 우선 수정되어야 하며 그 수정은 간단하다.

나. 벽

벽은 적절한 열저항을 가진 저항의면과 재료들로 구성되어지므로 비단열벽에 단열재를 첨가하는 것은 비단열천정에 단열재를 첨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극적인 향상을 보여 줄 수 없다. 낮은 가옥의 벽을 절연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우므로 빈공간에 절

연재를 주입하거나 blowing (팽질, 스프레이: 불어 넣는다)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

표 1 : 열흡수의 배당율(난방)

	난		방	
	절연되지 않는 경우		잘 절연되는 경우	
	PEAK HOUR*	DAY	PEAK HOUR*	DAY
천 정	18.4 (42%)	338.8 (43%)	2.8 (12%)	53.9 (14%)
벽	7.0 (16%)	177 (22%)	2.8 (12%)	68.6 (17%)
유리, 전도, 대류	9.3 (22%)	130 (16%)	9.3 (40%)	130.0 (33%)
방열, 복사				
침 투	8.4 (20%)	144.7 (19%)	8.4 (36%)	144.7 (36%)
합 계 율	43.1	790.5	23.3	397.2

Peak Hour는 하루중 가장 온도가 높은 때를 말한다.

표 2 : 열흡수의 배당율(냉방)

	냉		방	
	절연되지 않는 경우		잘 절연되는 경우	
	PEAK HOUR*	DAY	PEAK HOUR*	DAY
천 정	5.5 (18%)	84.0 (22%)	1.6 (7%)	22.9 (8%)
벽	2.9 (10%)	44.0 (12%)	1.1 (5%)	14.9 (6%)
유 리	2.1 (7%)	29.2 (8%)	2.1 (9%)	29.2 (10%)
전도, 대류, 복사	14.9 (49%)	117.6 (31%)	14.9 (60%)	117.6 (41%)
침 투	5.0 (61%)	101.3 (27%)	5.0 (19%)	101.2 (35%)
합 계 율	30.4	376.1	24.7	286.0

Peak Hour는 하루중 가장 온도가 높은 때를 말한다.

다. 마루기초

마루절연은 표 1이나 표 2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통풍이 잘되는 Crawl spaces (개방된 공간)에 놓여진 마루는 반듯이 절연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더워진 공기로 채워진 도판과 지하실의 열원으로부터의 부분적인 열방출로 Crawl space가 열을 받고 있다. 때때로 화로나 부뚜막으로부터 나오는 열이 생활영역에서의 열방출을 극소화시킨다고 생각한 이래 공기가 찬 지하실 외에 마루는 절연되지 않은 채로 모여져 왔다.

기초벽의 주변단열은 통풍이 잘되지 않는 Crawl spaces 위에 마루절연을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다. 슬래브경사의 건축시에 슬래브의 주변 가장자리는 대부분의 지리상인 영역면에서 단열되어야 한다. 또한 화덕(부뚜막)은 내부로부터의 열수효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판에 의해 외부공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라. 창문과 문

벽의 연속상태를 단절하는 창문과 문은 많은 열방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들을 제시해 준다. 일반적으로 열방출 산정치는 창문의 태양열 집중능력에 의거한 것은 아니다. 창문을 가리거나 위치의 선정고려는 효율면에 있어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커튼을 사용함으로써 창문으로부터의 열방출, 흡수의 조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겸장의 사

용은 이중유리의 효과로 Air infiltration의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3은 절연재의 사용으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수정된 현재의 표준건축기술에 의해 얻어진 보존된 에너지에 있어서 그 이점들을 설명한 것이다. 천정은 30mm의 유티섬유 절연재를 사용하며, 벽공간절연은 그 두께가 80-140mm까지로 증가되었으며, 마루는 150mm의 절연재로서 절연시켰고 25-20mm의 단단한 urethane foam perimeter 절연재로서 콘크리트슬래브의 끝단을 설치했다. 창문과 문은 1.5m²로부터 0.95m²로 감소된 반면 caulking이 infiltration을 감속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갖춘 주택에서의 열방출에 대한 비교는 F. H. A Minimum Property Standard (다음 항목 참조)에 나타나있는 비교된 하나의 절연주택으로서 절연재를 첨가함에 따라 얻어진 전체의 축적은 참으로 풍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새 건물에 적용되어지는 동안 현존하는 건물에 있어서의 문제영역과, 다양한 부분에 따른 절연재의 올바른 사용으로서 중요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진다.

표 3 : 열 방 출 비 교 표

	에너지보존구조	최소보유기준치
바 락	3,179Btu	8,722Btu
벽 체	4,411	6,757
천 정	2,041	4,320
창문 및 출입문	3,050	13,131
침투 (틈새바람)	3,007	7,548
소 계	15,688Btu	40,478Btu
도판방출 3 %	471 15%	6,072
전열방출	16,159Btu	46,550Btu

중열방출 감소량 = 65%

2. 공장/상가 벽 부품

공장/상가건물의 벽구조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Steel Frame (강철골격) : 용접되거나 리벳으로 고정시킨 load bearing대들구조.

전형적으로 샌드위치판넬 / 막벽 (curtain wall) 절연재와 절연된 공간부품들을 사용한다. 아주 높거나 조금 높은 건물에 적용.

철근콘크리트 (Rein forced concrete) : poured concrete와 철근콘크리트, 샌드위치판넬, 공동벽, 내부벽 혹은 치장벽도 절연부품 사용 가능. 대개 그리 높지 않은 건물들에 사용.

Load Bearing : 콘크리트블록 / 벽돌구조 샌드위치판넬공동벽, 내부벽 혹은 치장벽도 절연부품 사용 가능. 대개 그리 높지 않은 건물들에 사용.

조립식 (Prefabricated) : 조립식 metal부속건물들은 대체적으로 샌드위치판넬 / 막벽 (curtain w-

all), 절연된 골격의 외복과 절연된
모로의 골격-공동부품들을 사용한다.
대개 그리 높지 않은 건물에 사용.

결합 (Combinations): 기본적인 벽을 짜맞추는 것은 평범하다.
절연부품들은 위에 적혀진대로 배열
된다.

Sweets 의 목록을 보면

- 1) 공동벽부품들
- 2) 내부벽토대
- 3) 절연된 골격구조
- 4) 치장벽토 기본부품
- 5) 샌드위치판넬/막벽부품들

3. 공동벽 부품

공동벽부품들은 기본적으로 외부 베니어판벽들을 부착하기
전에 석재벽구조의 외부에 단단한 절연판을 부착시킴으로써 구
성된다. 전형적인 구조는 그림 1 이 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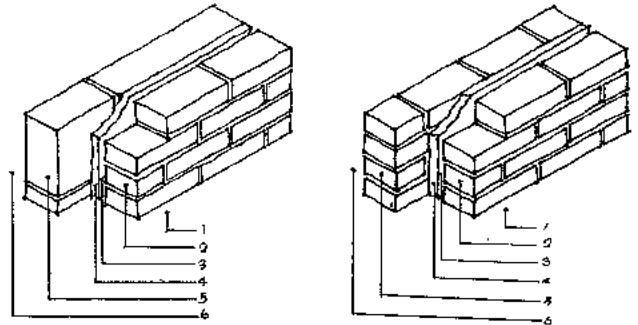
석재벽사이의 공동의 크기와 벽돌베니어판은 표준건물의 실
제에 의해 한정된다. 그러므로 상당한 열성능을 보유하기 위해
서 단위 두께당 높은 R-Value를 가진 절연재들을 사용하는 것
이 이롭다. 단단한 polystyrene과 polyurethane foam board 대목
은 이런 응용에서 주로 사용된다. 현저한 내구성은 석고판형태
의 두꺼운 층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foam board 절연재의 벽구조에 대한 장점은

- 1) 보수에 대한 적용방법이 쉬운 것.
- 2) 조벽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낮은 노동효과
- 3) 열손실없이 완전하게 벽을 절연하고
- 4) 내부 마감재가 절연층으로 완전하게 외워질때 구조상으
로 건실한 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단점은 "therm-
al mass" 효과의 손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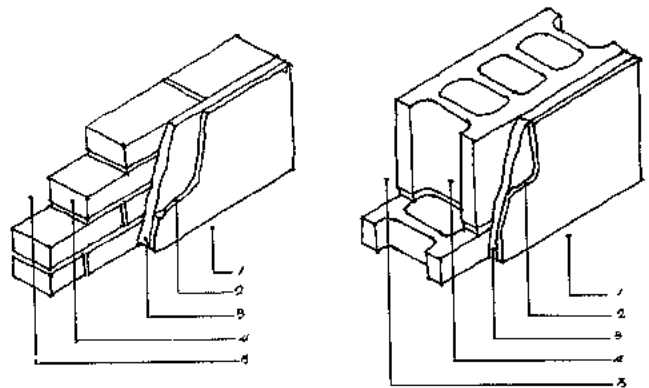
4. 절연된 골격구조

실제로 모든 주택건설과 공장/상가건설의 상당한 부분이 골
격공동에 사용되어지는 광물성 섬유절연재로서 골격부품이 절
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section 단열시공의 주택부분에
서 논의되어 졌다. 상가/공장벽들의 열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
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3 에서 보여주는 예처
럼 공동에 광물성섬유 절연재를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
조에서 벽의 절연능력은 유용한 공동공간(cavity space)에 부피
가 큰 물질(i.e., mineral fiber)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극
대화되며,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두꺼운 재료(예: 발
포플라스틱)의 높은 저항력을 사용함으로써 극대화 된다. 발포
플라스틱외복은 공동을 가로질러 열저항을 증가시킬뿐 아니라
골격요소들로 인해 열의 짧은 회로(thermal short circuits)를
절연시킨다. 광물성섬유 절연재의 효율성은, 공동을 가로지르
는 감소된 ΔT 가 남아 있는 대류의 흐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향상되어진다. 게다가 내부의 틈새바람도 감소
된다. 또다른 부품으로는 공동에 발포절연형태의 단단한 폴리
우레탄을 현장발포 시공하는 것이다. 현장발포 시공방법은 외
부 피복이나 벽판자가 설치된 후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구조에 있어 장점들은 foam으로 모든 동로의 완전한 차
단과 두께당 아주 높은 R-Value를 얻는 것이다. 그러한 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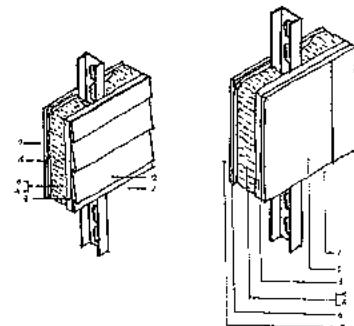
1. Outside Air 2. Face Brick 3. Air Space
4. Insulation 5. Concrete Block 6. Inside Air

그림 1. 내부벽 토대부품들(1)



1. Inside Air 2. Interior Finish 3. Rigid Plastic Foam
4. Masonry Block 5. Outside Air

그림 2. 내부벽 토대부품들(2)



1. Outside 2. Exterior Siding 3. Plastic Foam Insulation
4. Cavity 5. Mineral Fiber Insulation 6. Interior Finish
7. Inside Air

그림 3. 절연된 골격구조

한 a 15- minute finish rating (F.H.A보은권고사항 참조)을 가진 vapor 장벽과 내화성 열장벽은 내부표면에 첨가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공동에 발포플라스틱절연의 performed blocks를 끼워넣는 것인데, 이런 형태의 적용방법은 평범한 사용방법이 아니다. 설치된 벽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적정의 최소 V-Value에서만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설치방법의 관점에서 발포플라스틱피복구조는 다른 여러 형태의 피복제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어지는데, 발포플라스틱은 구조상의 피복은 아니다.

5. 치장벽토, 기초 조립품

치장벽토 기초조립품은 각각의 벽틀이나 석조건축의 벽건설에 간단하게 사용되거나 혹은 외부 피복으로서 사용된다. 치장벽토기초방식의 우선적인 이점은 masonry block walls의 보수에 혼합되기 쉬운데에 있다. 건축 석재반침벽돌과 urea-formaldehyde foam이나 blaon cellulose 와 같은 보수절연재에 대해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런 방식은 숙박시설이 없는 빌딩의 범주에서 요구될 것이다. 얇은 치장벽토 veneer systems에 대해서는 한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표면 칠의 수명이다. 접합체의 표면칠과 세포로 된 플라스틱 사이와의 열팽창계수차이로 인해서 건물의 수명이 나빠는 동안 열외로부터 분해와 비적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강화물때문에 두꺼워진 치장벽토 칠이 더욱 두꺼워지며,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다.

6. 샌드위치 판넬 / 칸막이 벽 조립품

샌드위치패널들은 단단한 plastic foam이 두개의 두꺼운 표면사이에 foamed-inplace되어서거나 혹은 foam이나 다른 board stock이 하나의 형태로 된 판넬의 절면사이에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을때에 빌딩구성요소로 쓰여진다. 이런 형태의 판넬은 높은 전열성과 든든한 구조를 제공한다. 이런 판넬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후로, 건축설비시 노동의 절약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골이진 스틸이나 0.32인치정도의 알루미늄은 절면에 단장하는데 쓰여지며, 합판, 식고판 혹은 중합제로된 콘크리트도 역시 사용되어진다. 보통 1-2인치의 두께인 패널이 사용되는데 6인치이상의 두께라 할지라도 낮은 온도의 공간에 사용될 수 있다. 샌드위치패널은 건축설비시 다양하게 적용된다. 아주 높은 패널들은 완전한 벽이나 혹은 지붕으로 단층의 강철골격건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칸막이벽틀이나 여러층의 강철골격건물에서 아치형의 패널로도 사용된다. 보수응용에 있어서 창문틀이나 혹은 창문일부들을 개조하는데도 사용된다. 대개 패널은 플레임을 첨가하지 않고 단층건물의 벽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bearing walls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현존하는 벽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single-faced 판넬(liner panel)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패널방식의 중요한 이점은 다음과 같다.

- 1) 두께단위에 대한 높은 열저항력
 - 2) 벽양식에 대한 무게비에 대한 높은 강도
 - 3) 열성질이 수분노출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다.
 - 4) 건축기간동안 노동을 절약할 수 있다.
 - 5) 틀구성부분을 통한 단기순환열 절연
- 이와 같은 건축유형에 따른 한계성은 다음과 같다.

- 1) 작은 부피에서 오는 나쁜(놓쳐못한) 음향효과
- 2) 건축학 설계에서 제한된 유연성
- 3) 벽에 전기선과 수도선이 혼합되는 난점
- 4) 제한된 열서항성

또 다른 면의 관별구조는 어떤 내부에 절연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공간에 광물성섬유 절연재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금속면은 강화된 부품을 첨부한다. 이러한 침부는 열의 단기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열차단을 위한 플라스틱의 삽입은 그런 단기순환을 극소화할 수 있다. 패널양식은 열(화재)저항에 대해 유용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고판과 같은 무기질(광물성)패널이 삽입되거나 첨가되어져서 4시간의 3/4 정도 유용하다.

7. 기초 / 마루 절연재 부품

기초절연재사용에서 perimeter사용으로 널리 알려진 단단한 발포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적용법에서 절연재는 지면과 접촉되며 활성지면 화확요소들이 압력을 받게 된다. 수분저항과 폐쇄기포구조로 인해 일부 단단한 발포플라스틱은 이러한 노출에 잘 견딜 수 있고 건물수명을 위해 절연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건축의 세부사항이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마루석판이 열관이나 저항가열선을 운반할 때 절연재는 마루석판 아래에서 계속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절연재는 기초벽의 중단면으로 사용된다. 모든 유형은 현장발포방식을 포함한 사용법으로 쓰여진다. 틀에 넣은 폴리스틸렌과 우레탄패널의 몇몇 제조업자들은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절연재의 가장자리에 작용하는 증기방해법을 추천한다. 기초중단면부분을 위해 절연재는 회반죽이나 아스팔트접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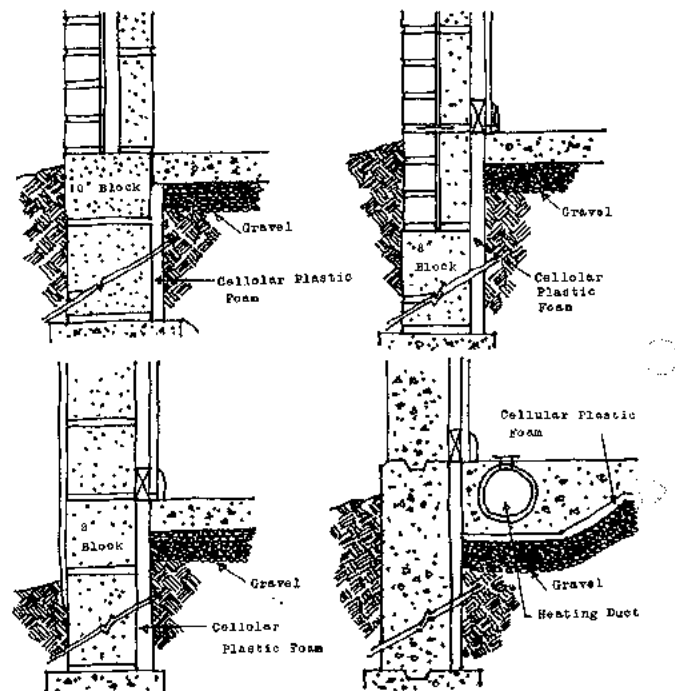


그림 4. 바닥기초부분 부품들

물을 지닌 석조건축반침태에 판을 부착시켜 설치한다. 마루석판을 위한 널판들은 준비된 면위에 놓여지는 콘크리트는 절연재 위에 썬여진다. 이런 부착품은 새로운 건축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지만 단단한 foam이 동급선위에 드러난 벽의 영역위에 기초

벽들의 바깥면을 싸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어떤 장애를 위한 절연태는 자외선으로부터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foam을 반드시 쓴다. 주변가에 낮은 등급의 절연재사용은 어떤 경우에는든 실용적인 몇몇 금속을 사용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는든 불가능하다. 건물의 기초벽은 꽤 큰 열손실지역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기준 90-75 ASHRAE (별지항목 참조)는 온도에 의존하는 마루식판들을 위해 최대한의 U-values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SHRAE는 절연재가 최소한 2 feet 용 중단기초벽아래에서 계속되어야 한을 지적한다. 속박시설이 없는 건물지역에서 F. H. A. Minimum property Standard (별지항목 참조)는 마루식판형태로부터 손실되는 수분의 열을 위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표준에 맞추기 위해 어디서든지 두께가 3/4 - 2 인치까지의 단단한 발포플라스틱이 겨울철 온도계획에 따라 써어진다. 화재에의 저항력은 본래의 설치에 기인하는 이런 적용에 시는 고려되지 않는다. 발포플라스틱이 crawl 공간에서 기초벽의 내부표면으로 쓰여질때, 모든 제조업자들은 건물의 다른 곳에 쓰일때 이와 같은 열장애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런 절연재조립품 형태에 이점은 많으나 그것들이 건물들 싸는 높은 전도력이 있는 부분으로부터의 열손실을 지연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 절연재의 삽입으로 마루위에서의 응결조작을 제약하고 건물안에 있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유일한 한계성은 보수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8. 건축물 절연재에 있어 수증기 장애물

건물 내부공간과 표준가열과 냉각은 건물 envelope 방식에서 수분축적과 탐탁치 못한 건도를 위해 중요한 잠재력이 된다. 수증기장애물은 특별한 상황아래서 건물 envelope안에 수증기 전달방해요인을 제공하는 건물안에서 사용되는 물질들이다. 건물 envelope 방식에서 수분이동은 실내와 옥외사이의 절대습도차이에서 발생한다. 또한 수분전도 건물의 피물 통해 전반적인 침투성에 비례한다. 노점온도보다 낮은 저점에서 응결 될것이다. 절연재안에서 응결된 물의 현상은 분명하게 그것의 열저항에 영향을 줄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기간동안 응결된 현상은 일반적인 건축재료들의 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건물에 있어 절연재의 사용증가로서 열손실을 감소시키며 건물구조의 외부온도를 낮추게 된다. 이것은 만약 건물내부로부터의 수증기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수단이 없을 사이에 응결가능성이 증대한다. 마찬가지로 냉·난방장치를 가진 건물들도 건물외피의 환경으로부터 순분전파에 기인하는 요소들의 영향으로 빌딩구조의 내부에서 응결이 있을 것이다. 건물안에서 절연재의 증가사용은 개발된 틈새개자료와 같은 다른 방법과 같이 공기의 침투 - exfiltration에 비율을 증대하게 감소시켰고 증기장애물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공기교체비율의 감소와 건물로부터의 수증기 제거비용의 감소는 조절되어진 장소내에서 습기의 증가를 보여준다. 건물절연방식과 함께 활용되어진 증기장애물형태는 조직적 막 혹은 길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조직적인 수분 증기장애물들은 상대적으로 불에 통하지 않는 절연재이다. 막장애물은 금속박과 얇은 판지와 화학적으로 처리된 종이와 거죽을 칠한 종이, 발포플라스틱 얇은 판들을 포함하는데 이런 것은 유연하고, 둥근형태로 절연재의 절대적인 필요물절로 사용된다. 칠장애물은 다양한 만유동체나 액체형태로 나타나고 배합에 있

어 아스팔트, 페진 및 중합체의 형태를 지닐수도 있다.

9. 동적 단열

단열의 표준방법은 한정된 공간에서 공기의 운동을 방지하는 원칙에 입각한다. 국립 Sweden 기술발전위원회의 지지를 받아 발전해온 건축 단열의 새로운 방법은 정제적 공기보다는 움직이는 공기에 의존하며, 동식단열의 새로운 시스템은 열의 외적흐름을 막는 단열벽을 통해 규제된 공기의 내적인 서서한 흐름에 의존한다. 유입되는 공기는 도망가는 열을 흡수하고, 그것을 내부로 보낸다. 이 개념의 창안자는 동적단열을 갖춘 집에서 열의 외적흐름을 규제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효율적인 벽의 R-Value가 커진다는 것을 밝힌다. 이 시스템의 적정기능은 외부로의 열전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만큼 단열을 통한 충분히 큰 공기흐름비율을 요한다. 그러나, 건물로 들어온 공기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소모될 것임으로 건물로부터 나온 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공기흐름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6 ft/hr의 공기흐름에 있어서 명백한 열의 전도는 거의 0으로 축소되고, 공기교환비율에 있어서 시간당 거의 반량 (1/2)의 전열적 체류로, 귀절된다고 주장한다. 건물내 적정공기유입을 달성하려면 전통과 달리 특수건축의 tight horse가 필요하다. 단열을 통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온 공기는 구조와 전반적인 열작용을 악화시킬 것이며 여름동안에 똑같은 동적단열개 원칙이 적용된다.

제 3 절 단열시공의 효과

1. 단열시공

효과적인 열경제를 위한 단열구조를 아무리 훌륭한 단열방법으로 시공한다 하더라도 재료의 부식적인 사용이나 불안전한 시공으로 말미암아 단열효과는 상실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공방법의 선택에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현재 보통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는 단열용도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나 방습 및 방풍용을 겸한 것도 있다. 또한 마감재 및 내장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도 있다. 이러한 조판적인 용도와 아울러 단열재로서의 가져야 할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다.

2. 단열재 이용의 효과와 제반요소

- 1) 벽, 천정, 바닥외의 부분의 단열구조
- 2) 단열재의 성분과 종류
- 3) 단열재의 가격과 공사비
- 4) 난방설비의 선택과 가격
- 5) 난방용 연료의 종류와 가격
- 6) 난방용 시간과 난방일수.

단열재의 경제적 두께는 이러한 요소를 총합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난방도입에 의한 제반제산과 지방별 단열두께 산정이 어려워므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단열재로서의 가져야 할 조건 一.

단열재로서 가져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사용조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 1) 단열효과가 우수할 것
- 2) 열전도율이 적은 것으로 한다.
- 3) 가용하면 방수, 방습성일 것
- 4) 방화성 및 내열성일 것

유독가스와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4) 변질 혹은 변형이 적은 것
- 5) 사용장소와 표면온도에 강할 것
- 6) 결로방지때문에 방습층을 실내측에 둘 것

제 4 절 신축건물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결정을 요하는 사항

1. 건축물의 형태결정

건축물의 계획은 외벽의 요철을 피해야 한다. 일반건축물의 열손실은 외벽부분이 약 20-40%를 차지한다. 또 공사비의 저렴과 정도의 시공을 빠른 공정으로 끝낼 수 있다.

2. 외기에 통하는 출구는 전실을 설치한다.

출입구의 개폐에 따라 직접외기가 실내로 유입되어 많은 온도의 차이를 보여준다(그림 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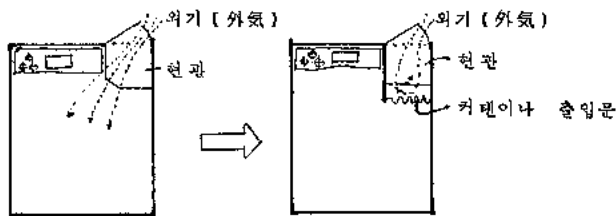


그림 5. 전실공간의 이용

3. 기실의 천정높이

천정을 필요이상으로 높게하면 난기가 천정부근에 멈추어 고른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힘들다. 거실에 용도상 불가피 할 경우 거실의 단열성능 난방방식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하의 온도분포가 고루되도록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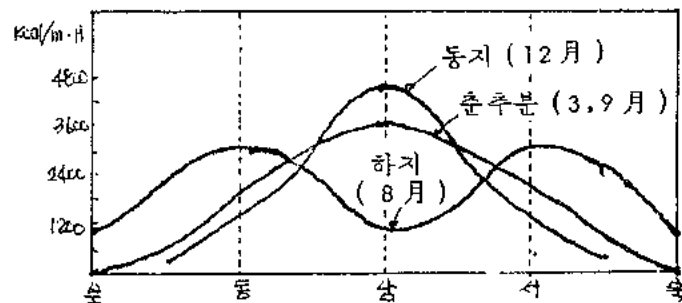
4. 창 의 크기 고려

쾌적한 채광과 환기를 고려할 때 넓고 시원한 창 의 면적을 요할지 모르나 창으로부터 손실되는 열량이 15-40%라는 열손실을 고려할 때 필요이상의 큰 창은 냉·난방을 막론하고 비경제적일 수 있다.

5. 건축물의 방위결정

주택은 될 수 있는대로 동쪽이나 남쪽을 향한 거실배치가 중요하다.

다음의 도표는 일본 동경에 있는 태양에서 일일의 일사량을 방위별로 비교한 도표이다. 남쪽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여 얼마나 쾌적한가를 알 수 있다.



방위별 일일 열량

6. 건축물의 표면 및 지붕의 색지정

외벽과 지붕의 색도 많은 영향이 있다. 흑색은 태양의 열을 잘 흡수하고 백색은 열을 반사한다. 특히, 냉방시에는 백색외장을 한다. 주택과 흑색외장을 한 주택의 열손실량은 약 10% 정도의 차가 있다는 것이 계산상으로 나타난다.

7. 지역적인 기상조건

구릉지나 북쪽의 야산을 전 주거지등

8. 주택의 구조와 열부하(전 열용량계산)

난방이나 냉방 열부하를 계산내지는 면적에 따른 용량을 결정할 때 바닥면적에 의한 계산보다는 부피에 따른 용량계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대에 와서는 이상적이라 하여 흔히 천정고를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9. 건축물의 길이와 폭 규제

10. 인접구조물 즉 일조전관계 고려

11. 방열기의 설치, 위치결정

12. 단열재의 사용방법 고려

13. 단열재의 난연성 고려

14. 결로현상과 방습관계 고려

15. 설계도상의 정도 높은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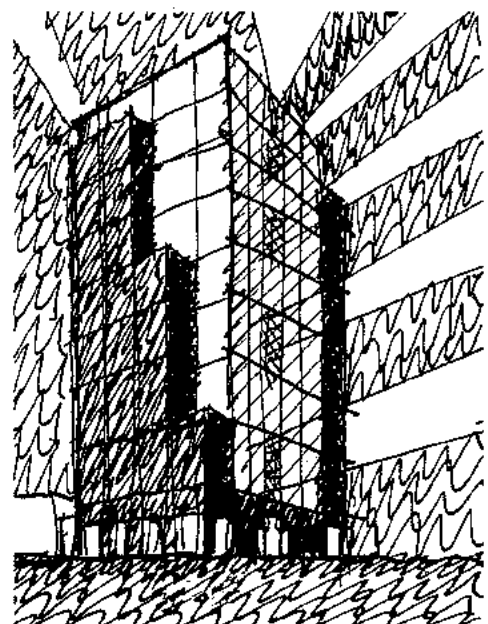
16. 기밀성 구조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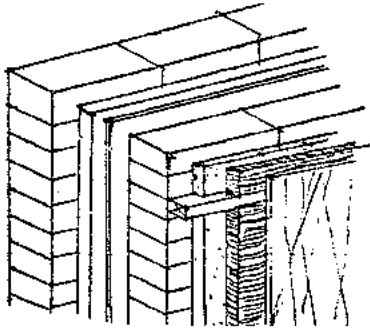
17. 유지관리의 용이 및 치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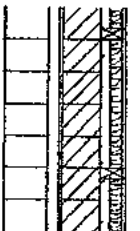
18. 장기적인 차원의 경사지붕

이는 차후에라도 배양열 집열판설치를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계몽하여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19. 난방도일(기온관계) 난방도일란참조(제1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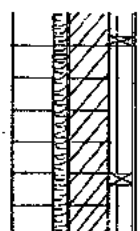




번호	구 조	재 료	두 께 mm	λ	$\gamma = \frac{\rho}{\lambda}$
15		1. 붉은벽돌 0.5B	90	0.67	0.134
		2. 공 기 층	20		0.09
		3. 비닐 + 방수물탈	0.025+18	1.2	0.015
		4. 시멘트벽돌 0.5B	90	1.2	0.075
		5. 물 탈	18	1.2	0.015
		6. 스티로폼 (유리섬유종류)	50	0.032	1.563
		7. 비 장 합 판	4.5	0.11	0.032
			290.5		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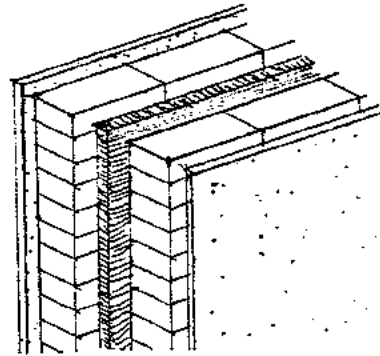
R = 2.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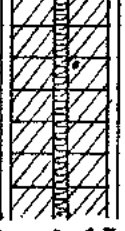
K = 0.476

16		1. 붉은벽돌 0.5B	90	0.67	0.134
		2.스티로폼 (유리 섬유종류)	50	0.032	1.563
		3.비닐루+방수물탈	0.025+18	1.2	0.015
		4.시멘트벽돌 0.5B	90	1.2	0.075
		5.물탈	18	1.2	0.015
		6.공기층	20		0.09
		7.미강합판	4.5	0.14	0.032
			290.5		0.125

R = 2.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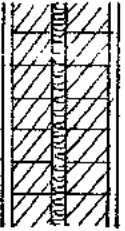
K = 0.476



번호	구 조	재 료	두 께 mm	λ	$\gamma = \frac{\rho}{\lambda}$
17		1. 물 탈	25	1.2	0.021
		2. 시멘트벽돌 0.5B	90	1.2	0.075
		3. 스티로폼 (유리섬유종류)	50	0.032	1.563
		4. 시멘트벽돌 0.5B	90	1.2	0.075
		5. 물 탈	18	1.2	0.015
			273		0.125

R = 1.924

K = 0.520

번호	구 조	재 료	두 께 mm	λ	$\gamma = \frac{\rho}{\lambda}$
18		1. 물 탈	25	1.2	0.021
		2. 시멘트벽돌 0.5B	90	1.2	0.075
		3. 스티로폼 (유리섬유종류)	50	0.032	1.563
		4. 시멘트벽돌 0.5B	90	1.2	0.075
		5. 회 반 죽	16	0.63	0.025
			273		0.125

R = 1.934

K = 0.517

(본 된고는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가 펴낸 단열층람에서 건축물의 단열시공법만 가려 뽑은 것이다.)

/ 建築宣言文 /

“우리가 건물을 높게 짓느냐, 낮게 짓느냐, 철
과 유리로 짓느냐와 같은 것은 그 건물의 가치
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 해 주지 않는다.”

루드비히·미스·반·데·로에 의 새 時代중에서 / 1930年 /

건축행정 / 질의응답



□ 시·도지부 문의

● 건축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대하여 소방법상 규정된 유도등 또는 발신기(위치 표시등 포함)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용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설비가 없을 경우에만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는 위치는?

(서울지부)

답 ① 건축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장치는 화재시의 안전한 탈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하는 것이므로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으로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겸용이 가능한 것이며

② 비상조명장치는 그 위치, 개수, 광도등을 설계자가 판단 설치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바닥면에서 1룩스 이상의 조도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부)

● 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에서 건폐율 6/10을 초과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거용이나 공업용 건축물을 증축(수평이나 수직)코자할 경우 주거용이나 공업용면적이 기존과 증축을 합하여 과반수 미달이면 건축법 제39조 제3항의 6/10에 불구하고 제1항에 의하여 7/10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② 상업지역 방화지구내에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는바 다음과 같은 복합용도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있어 조과대수와 미달대수의 산입여부?

(경남지부)

용도별 면적 : 업무시설(사무실) - 152m²

근린운동시설(탁구장) - 190m²

근린생활시설(점포) - 170m²

주 택 (2 세대) - 530m²

계 1042m²

답 ① 건축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건축물에 주거용 또는 공업용과 타용도가 겸용되었을 경우에는 주거 또는 공업용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

②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건축물로서 업무시설등으로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의 연면적 150m²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무실에 대한 주차대수는 2대로 하여야 하며, 기타 근린 생활시설(탁구장, 점포) 또는 주택(단독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장 면적의 확보를 요하지 아니하나, 주차장 정비지구 내에서는 동 조례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부)

□ 건축법시행령

● 건축물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코자 하는데 일조권등사선 제한을 받는지요?

(시민전화)

답 광고탑의 수평투영면적이 당해 건축면적의 1/8 이상이거나 또는 1/8 이내인 경우로서 그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일조권 및 사선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 교회건물 지하층을 유치원으로 사용코자 하는데 거실

반자높이는 얼마로 해야 합니까? (시민전화)

답 바닥면적이 50㎡이상이면 3.0m이상이어야 합니다.

문 3층 연립주택의 허가를 신청코자 하는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회원전화)

답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일조권에 의한 소정거리 확보는 인접지가 그린벨트 등 건축할 수 없을 경우에도 확보하여야 하는지요? (회원전화)

답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하여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이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문 L. P. G 지하 저장소는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요? (회원전화)

답 산입합니다.

문 공동주택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얼마의 거리를 피어야 합니까? (시민전화)

답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부분은 높이의 1/2이상입니다.

문 1·2층에는 여관, 3층에는 2세대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시민방문)

답 건축법시행령 제98조의 2에 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은 접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문 주거전용지역내 교회건축이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답 연면적 1,000㎡ 미만으로 타종시설이 없는 경우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 굴뚝, 계단등은 높이에 산정하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피어야 할 거리의 제한을 받지않는지요? (회원전화)

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마목에 의하여 50cm이하 돌출된 굴뚝, 계단은 접한 벽면의 1/10 길이 이하일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 주거전용지역 풍치지구인데 의원 건축이 가능한지요? 또한 용적을 산정시 지하층도 포함시키는지요? (회원전화)

답 의원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은 용적을 산정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문 6층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대지내에 충분한 여유공지가 있는데 지하층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원방문)

답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에는 연면적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과 16층이상은 각층의 평균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지하층을 설치해야 하나 다만 5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법에 정해진 건폐율외에 연면적의 1/8이상에 해당하는 여유공지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하의 경우는 연면적의 1/10에 해당하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 학교건물의 경우 동별준공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착공 현장조사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보고하여야 하는지요? (회원전화)

답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공사감리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문 주거지역에 연립주택 (20세대미만)과 근린생활 시설을 한 필지내에 건립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은? (시민전화)

답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200%입니다.

문 주거지역내 목욕탕과 여관건축이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답 여관은 12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이 가능하며, 목욕탕은 주차장 설치장소가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문 학교건물의 출입문 개폐 방향을 내부로 열도록 설치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와, 증축인 경우 기존건물과 띄워야 하는 거리는? (회원방문)

답 건축법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하면 관람시설, 기타 이하 유사한 용도는 집회실로부터 출입의 문은 안여닫이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학교의 경우 특수 건축물로서 피난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증축인 경우는 기존건물과 띄어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하나의 건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 구획정리지구내 12m폭 도로 상호간 거리가 175m인데 8m인 중간도로에 접한 대지의 사선제한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시민방문)

답 8m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문 공장 건축물을 신축시 피로티를 둘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어디서부터 피어야 합니까? (회원전화)

답 피로티 끝에서 피어야 합니다.

문 건축법상 의료시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전화)

답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의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격리병원등이 의료시설에 해당됩니다.

문 주거지역내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알려주십시오. (시민방문)

답 외벽에서 대지경계선까지 0.5m, 처마끝에서 0.2m 이상 피어서 건축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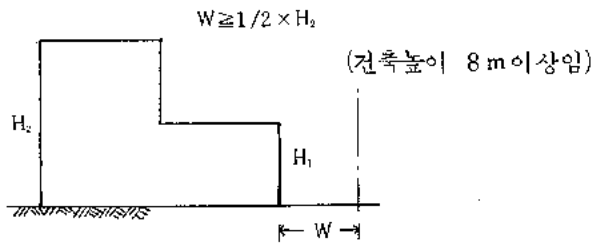
문 지내력 200t/㎡이상인 지반의 건축물은 지하층 설치 없이 가능한지요? (회원전화)

답 지반이 암반등으로 지하층을 팔 수 없는 경우 장기허용지내력 200t/㎡이상의 지반에서는 지하층 설치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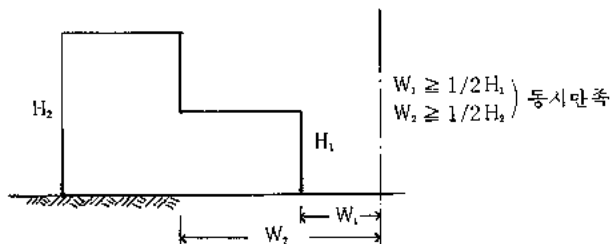
㉔ 12m도로에 접한 주거지역내의 대지에 점포 건축이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㉕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점포만 가능하며 판매 시설에 속하는 점포는 불가능 합니다.

㉖ 일조권 적용에 있어 건물 최고 높이의 1/2을 의변에서 피어야 하는지요? (회원방문)



㉗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을 그 부분에서 인접대지 경계까지 피어야 합니다.



㉘ 주거지역인데 주유소 신축이 가능합니까? (시민전화)

㉙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 한해서 주유소 신축이 가능합니다.

㉚ 자연녹지지역내의 기존 차고에 세차장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시민방문)

㉛ 건축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시설인 세차장의 건축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㉜ 법당건물 전면에 5층건물을 신축하는데 후면 창문을 못내게 할 수 없는지요? (시민방문)

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떨어져 건축할 경우 차면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쌍방향의하에 원만히 처리할 사항입니다.

㉞ 아파트지구내 수영장 및 헬스크럽이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㉟ 건축법 시행령 제155조의 2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건축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㊱ 상업지역 방화지구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에 붙여서 건축이 가능한지요? (시민방문)

㊲ 건축법 제53조의 2에서는 상업방화지구에서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

167조 제2항에서는 12m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띄도록 되어있습니다.

㊳ 옥탑 연면적 산정에 있어 1/8기준이 적용됩니까? (시민방문)

㊴ 1/8기준은 높이를 산정할때 사용되므로 옥탑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승강기탑, 차단탑, 물탱크 등 설비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등인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며 높이는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면 산입됩니다.

㊵ 20m도로에 접한 상업지역, 방화지역내의 대지에서 건물높이를 반대편도로 경계선에서 1.8배까지 가능한지요? (회원전화)

㊶ 건축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의하여 폭 12m 이상인 도로가 2개이상에 접한 대지로서 대지둘레가 1/4이상 도로에 접하고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로 전폐율 6/10이하라면 가능합니다.

㊷ 철골구조에서 기둥을 메탈라스와 mortar로 하여 피복 두께 7cm일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 가능여부는? (회원전화)

㊸ 철골구조 기둥의 내화구조는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5cm이상이거나, 두께 7cm이상의 벽돌, 블록, 또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덮은 것입니다.

㊹ 지하층 면적이 용적을 산정시 제외된 법적근거는? (시민전화)

㊺ 81.10.8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변경되었습니다.

㊻ 한 대지가 25m도로와 6m도로 사이에 위치할 때의 전면도로는? (시민전화)

㊼ 25m 도로입니다.

□ 건축조례

㊽ 미관지구 후퇴부분에 화단설치가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㊾ 후퇴부분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단설치가 아닌 식수는 가능합니다.

㊿ 제2종 미관지구내의 대지가 80평인데 건축이 가능한지요? (회원전화)

㋀ 제2종 미관지구내 대지최소 면적은 100평으로서 건축이 불가능하나 도시계획 시설설치로 인하여 미달된 대지는 최소면적의 1/3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연립주택 건축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피어야 하는 거리와 도로가 있을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피어야 하는 거리는 얼마인지요? (회원전화)

㋂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0.625배이며 서울특별시 연립주택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로에서 2m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미관지구 건축물구조중 제 4 종 미관지구의 측면 및 전면길이는 얼마입니까? (시민전화)

답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제 4 종 미관지구의 건축물 규모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며 2~4 층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문 제 2 종 미관지구에 떡방앗간의 영업이 가능합니까? (시민전화)

답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제 2 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식품 가공업 및 양곡 가공업소의 건축을 금하고 있어 떡방앗간의 영업은 불가합니다.

문 서울시에서 연립주택 층수를 2 층으로 제한하고 있나요? (시민전화)

답 그렇지 않습니다.

□ 주차장법

문 기존 건축물위에 수직층축을 할 경우 주차장확보는 층축부분만 하여도 될까요? (회원전화)

답 건물 전체의 연면적으로 주차장 설치면적을 계산하여 현재 설치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 울진에 호텔을 건축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그 설치기준은? (회원전화)

답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150m²당 1 대 기준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구역이 아닐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승인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 주차장을 300명이하의 건물일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를 본적이 있는데 사실여부? (시민전화)

답 아직 법 개정이 되지않았으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 주차대수를 산정한 결과 3.5대가 나왔는데 몇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회원전화)

답 4 대 크기의 면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 4 m 도로에 접한 200평 대지에 2 세대 연립주택이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답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면적 150m² 이상 건축하실 때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현 주차장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문 여관의 보일러실의 주차장 면적 산정시 포함 여부는? (시민전화)

답 주차대수 산정시의 면적에는 주차에 소요되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면적에 삽입됩니다.

문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도의 폭을 35 m로 하면 가능합니까? (시민전화)

답 출구가 따로 있으면 가능하나 출입구가 1 개소일 때는 5.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막다른 도로일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여 6m 도로로 계획된 경우라면 진입도로로서 적합한가요? (회원전화)

답 6m 도로로 계획된 경우와 실제 6m 도로 확보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는 자기대지를 상대편 대지가 후퇴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사실상 6m 도로가 되게 후퇴되었다면 적합할 수 있겠지만 대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 경우라면 이 논리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시 지하에 2 단씩 기계주차장은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답 건축물의 층고가 2 단주차에 지장이 없을 때 지하층에 기계식 2 단 주차장은 인정합니다.

□ 기타규정

문 공사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알려 주십시오. (시민방문)

답 건설업법에 의하여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661m², 특수 건축물은 495m² 이상이면 건설업법 규정에 정한 공사시공자 선정대상 건축물입니다. (다만 1982년 7월 1일 이후에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661m², 기타의 건축물로서 495m²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문 “시설녹지지역”의 건축제한은? (회원방문)

답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지역”으로는 구분되어 있지않고 도시계획으로 설치된 녹지지역을 “시설녹지지역”이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57조에 의하여 건축법의 용도를 적용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 일단의 대지에 공원 예정지 일부가 저촉되었을 경우건폐율은 포함시켜 산정 할 수 있습니까? (회원전화)

답 포함시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문 아파트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법규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시민전화)

답 건축법 및 주택건설 촉진법, 공동주택 관리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상업지구내 4 층의 호텔을 건축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회원전화)

답 건축법상 6 층 이상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호텔 허가를 독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엘리베이터 설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문 공장건물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요? (시민전화)

답 공업단지 및 공업배치법상 유치지역내에서 신, 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주택채권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여유공간이 있을경우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 하여도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 서울의 경우 지반이 암반이거나 수중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피호는 필히 설치하여야 함.

☞ 병원과 주택용도로 건축할 경우 시공자 선정은 몇 m² 이상일때 대상이 되는지요? (시민전화)

☞ 병원이 주용도이면 연면적 495m²이상일 경우 공사시 공자(건설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 특수건축물로 당초허가 당시 490m²의 허가를 득하여 착공중 설계변경으로 495m²이상이 되었읍니다. 시공자선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시민방문)

☞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495m²이상이면 건설입법에 규정된 공사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호화주택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시민전화)

☞ 연면적 150평 이상 또는 대지면적 250평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 잡종지에 건축이 가능한지요? (회원전화)

☞ 기존주택가내 100평 미만일 경우 건축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단지의 최고폭은 얼마입니까? (시민전화)

☞ 최고폭 50m입니다.

☞ 상업지역내에서 건축물 옥상에 있는 조경면적은 얼마나 인정되니까? (시민전화)

☞ 상업지역내의 옥상조경은 조경면적으로 전부 인정됩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제5항을 적용하여 2동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택채권 매입은 각 동별 또는 전체 연면적 중 어느것을 적용하는가? (회원전화)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서 단독주택의 연면적은 동별 연면적이므로 동별로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건축행정

☞ 대지에 도시계획시설 저촉여부를 확인코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요? (시민전화)

☞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 25평인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허가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시민전화)

☞ 허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근면생활시설의 준공검사 신청시 건축사 연대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요? (시민전화)

☞ 주택인 경우 건축사연대 날인하여 준공 신고합니다.

☞ 서울에서 4대문내 기존 전폐율이 70%인 건물의 수직증축이 가능한지요? (회원전화)

☞ 기존건축물의 수직증축은 증축부분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때 증축이 가능합니다.

☞ 기존건축물에 일부 증축을 하였는데 준공검사가 가능한지요? 구청에서는 4 월경 구제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회원방문)

☞ 건축허가 사항과 위법사항이 없으면 준공검사가 가능합니다. 구청의 답변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것 같은데 현재 시행 기준 수립중이므로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 미관심의를 받는데 투시도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회원전화)

☞ 건축물 규모가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0m²이상일 경우에는 투시도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투시도 없이 심의를 받읍니다.

☞ 속초지역에 연립주택 200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판제법령은? (회원전화)

☞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인 속초시의 규제사항등을 알아보고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미관도로가 아닌데 심의를 받아야 한데 일반적으로 심의라는것은 미관심의뿐인 것을 말합니까? (시민방문)

☞ 건축법상 심의는 건축물의 기능, 외관등 건축물의 제요소를 심의하는 것이므로 미관지구내가 아니더라도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주거지역에서 기존건물 옥상에 난간벽을 2m이상으로 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시민전화)

☞ 건축면적, 연면적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적, 연장의 증가도 증축에 해당되므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도로의 사선제한, 일조권 관계등 고려되어야 합니다.

☞ 하천을 복개하여 상가점포를 신축하는데 건축허가 유무? (회원전화)

☞ 하천위 복개 건축허가는 건축법을 떠나 도시 계획상 검토될 사항이며 건축법에는 바다위나 하천위에 건축금지 조항은 없으며 허가금지가 하천의 기능을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 주택을 연서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감리자 선정을 하지 않고 시공하여 위법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자가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요? (회원전화)

☞ 당해 위법건축물에 감리자로 행정청에 보고되지 않았을때는 설계자에 대하여 처벌할 규정은 없는 것이나 아직 감리자도 선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발생한 것을 설계자, 즉 건축사가 발견하였을시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하여 해당관청에 보고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가옥대장에 등재된 평수가 전폐율을 초과하였을 때 수직증축은 기존건물 그대로 가능한가요? (시민전화)

☞ 전폐율을 초과한 기존건물의 수직증축은 가능하나, 증축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은 현행법상 가능한 용적을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개정령

(개정 82. 1. 27)

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과 동조 제1항중 “교사내지”를 “교사 또는 원사대지”로, “교사”를 “교사 또는 원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교사대지”를 “교사 또는 원사대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각급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에는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각급학교의 체육장”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체육장”을 “체육장(유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체육장”을 “체육장과 유원장”으로 한다.

③유치원에는 유원장을 두되,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입지라야 하며, 그 최소 기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반수가 1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반마다 50제곱미터를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교사)”를 “(교사 및 원사)”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교사”를 “학교의 교사(유치원의 원사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유치원의 원사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에 제1항제1호의 보통교실, 제1항제8호의 관리용 객실, 제1항제9호의 보건위생에 관한 객실중 변소(대변기는 반당 1개이상)와 유희실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제2항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를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이하 “도서·벽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를 “도서·벽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유치원의 타시설이용)”을 “(유치원의 다른 시설이용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치원은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습상 사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유원장과 유희실, 보통교실과 유희실, 원장실과 사무실을 서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희실을 유원장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중 “교사대지”를 “교사 또는 원사대지”로, “체육장”을 “체육장(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말하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희실을 유원장과 겸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교사·교구의”를 “교사(유치원의 원사를 포함한다)·교구의”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호,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①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변기의 반당 기준수가 이 영에 의한 기준수에 미달되는 유치원은 1982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기준수를 갖추어야 한다.

◇ 學校施設·設備基準令 改正理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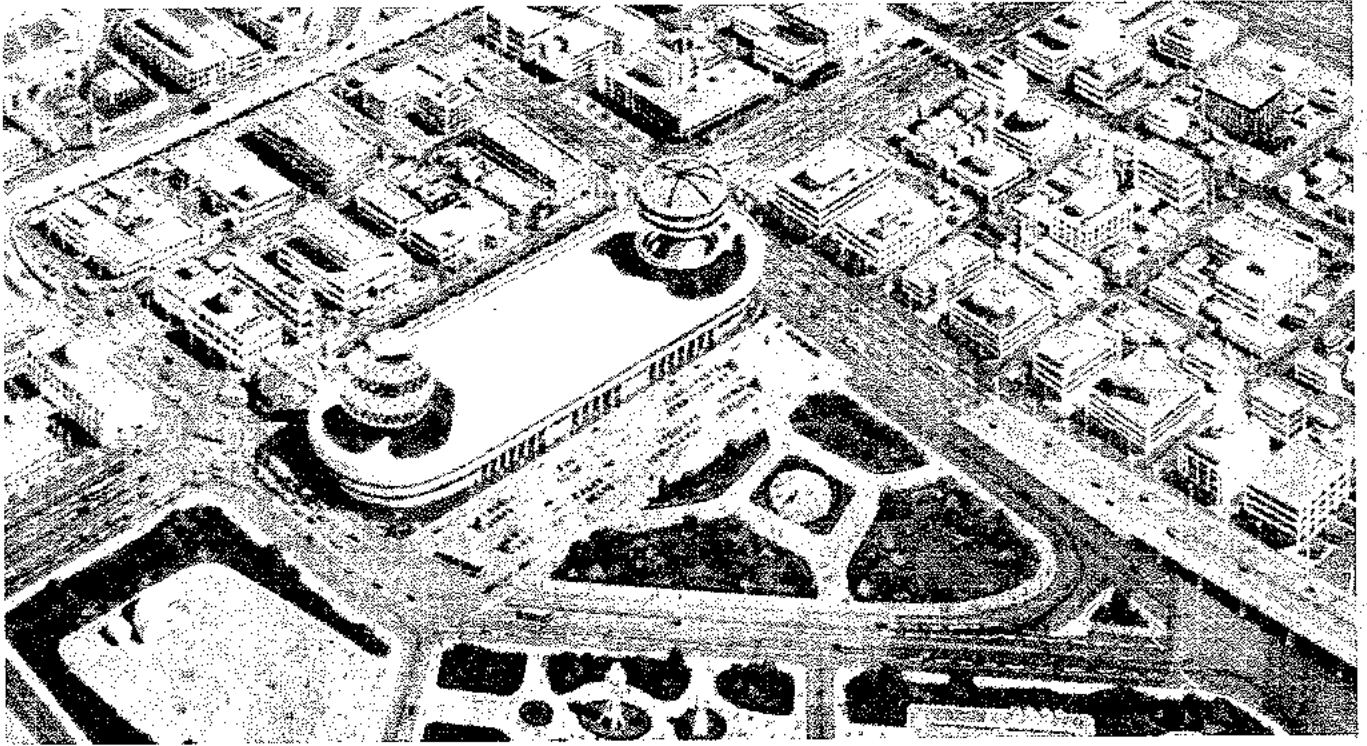
幼稚園의 幼稚園의 最小 基準面積을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緩和함으로써 幼稚園設立을 위한 用地確保의 어려움을 解消하여 就學前教育을 위한 幼稚園의 増設을 誘導하며, 기타 幼稚園의 施設·設備基準令 不明瞭한 部分을 補充하여 이를 明確하게 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幼稚園의 幼稚園의 最小 基準面積을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緩和함. (令 第3條第3項)

나. 學習上 支障이 없는 한 幼稚園과 遊戲室은 서로 兼用할 수 있도록 하되, 遊戲室을 幼稚園으로 兼用하는 경우에는 文教部令으로 정하는 施設을 갖추도록 함. (令 第12條第2項 新設)

다. 幼稚園의 園舎에 두어야 할 施設중 변소(대변기)의 設置基準에 관하여 明文規定이 없었던것을 明文化함. (令 第5條第9項) 〈법제처 제공〉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수정안)

1. 住宅部門

가. 住宅現況과 問題点

(1) 住宅現況

㉠ 住宅保有

① 都市·農村別

○核家族化의 急速한 進行('75年 總 家口當 人員
數 5.13人 '80年은 4.68人)

○都市地域의 住宅不足率 深化

註) : 都市는 市·邑部, 農村은 面部를 의미함(但, '60都市는 市部, 農村은 郡部임)

資料) :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 '60, '70, '75, '80

② 都市規模別

○大都市일수록 住宅不足率이 높음.

○中都市 地域의 住宅不足現象도 加速되고 있음.

③ 住宅類型別

○共同住宅의 大量建設로 共同住宅의 比重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單獨住宅에 偏重되고 있음.

(單位 : 千戶)

區 分		'60	'70	'75	'80(推計)
全 國	人 口(千人)	24,989	30,882	34,707	37,449
	家口數(千戶)	4,198	5,576	6,367	7,331
	住宅數(千戶)	3,464	4,360	4,734	5,463
	供給率(%)	82.5	78.2	74.4	74.5
都 市	人 口(千人)	6,997	15,510	20,516	25,982
	家口數(千戶)	1,209	2,883	3,860	5,097
	住宅數(千戶)	805	1,793	2,337	3,227
	供給率(%)	66.6	62.2	60.5	63.3
農 村	人 口(千人)	17,992	15,372	14,187	11,466
	家口數(千戶)	2,989	2,693	2,506	2,234
	住宅數(千戶)	2,659	2,567	2,397	2,236
	供給率(%)	88.9	95.3	95.7	100.1

區分 年度	計	單獨住宅	共同住宅	非居住用 建物內住宅
1975	4,734 (100.0%)	4,382 (92.5)	254 (5.4)	98 (2.1)
1980 (推定)	5,463 (100.0)	4,756 (87.1)	581.1 (10.6)	12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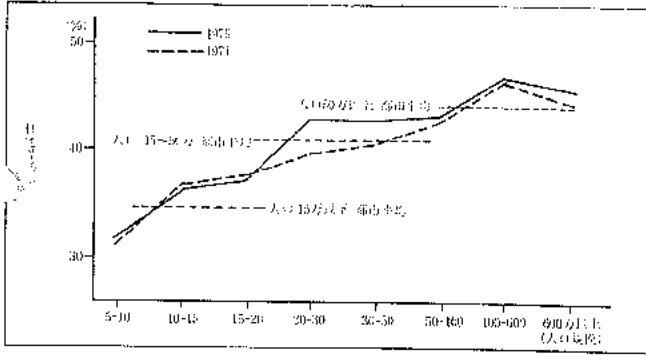
註 : 1) () 內는 構成比임.

2) 80年 共同住宅中 아파트는 340千戶로 推定.

資料：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75, '80.

④ 住宅規模

○住宅規模는 漸次 向上되고 있으나 10坪 未滿의 過小住宅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資料：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經濟企劃院 1975
韓國都市年鑑 內務部 1972

建坪別住宅數

(單位：千戶·%)

	1970	1975
計	4,360 (100.0)	4,734 (100.0)
10坪미만	1,424 (32.7)	929 (19.6)
10~15	1,406 (32.2)	1,399 (29.6)
15~20	824 (18.9)	1,162 (24.5)
20~30	526 (12.1)	872 (18.4)
30~40	115 (2.6)	222 (4.7)
40~50	34 (0.7)	79 (1.7)
50坪以上	31 (0.7)	71 (1.5)
住宅當平均面積	13.8坪	16.7坪

註：()內의 수자는 構成比임.

資料：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1970, 1975

⑤ 自家所有率

○自家所有率은 減少 趨勢에 있음.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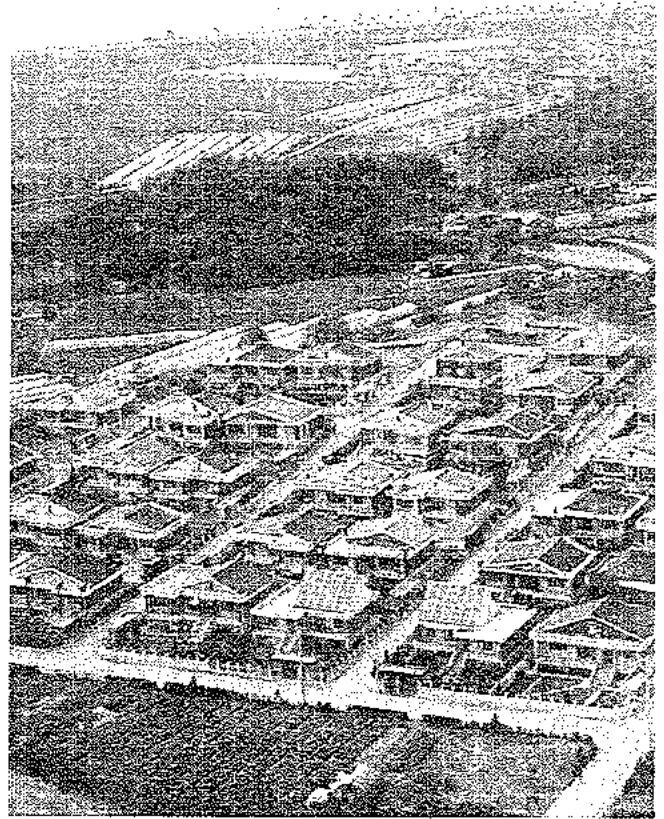
年度 地域	60	70	75	備考
全國	79.1	69.0	63.5	日本：59.2 美國：64.6 英國：53.5 西德：33.5
市部	62.0	48.4	44.8	
郡部	86.0	84.3	82.5	
※서울	56.5	48.1	46.1	

資料：人口 및 住宅 CENSUS ('60, '70, '75)

㉑ 住居水準

① 住居密度

○大都市일수록 中小都市, 農村보다 住居密度는 過密함.



	建坪 (坪)		空地 (坪)		家口當 室數 (室)	室當居住 人員 (人)
	家口當	1人當	家口當	1人當		
全國	12.51	2.87	41.96	9.64	2.2	2.0
市部	10.38	2.34	19.34	4.58	1.9	2.3
大都市	10.29	2.30	16.04	3.92	1.9	2.3
中小都市	10.54	2.43	24.30	5.83	1.9	2.2
郡部	15.05	3.34	68.96	15.28	2.5	1.8
邑面	11.91	2.84	37.97	9.04	2.1	2.0
面	16.25	3.51	80.79	17.44	2.7	1.7

○室當 居住人員의 外國例 (單位：人)

美國 1.0 ('70) 西德 0.7 ('76)

英國 0.6 ('71) 仏蘭西 0.9 ('75)

日本 1.1 ('73)

資料：經濟企劃院 社會統計調查 1980

UN統計年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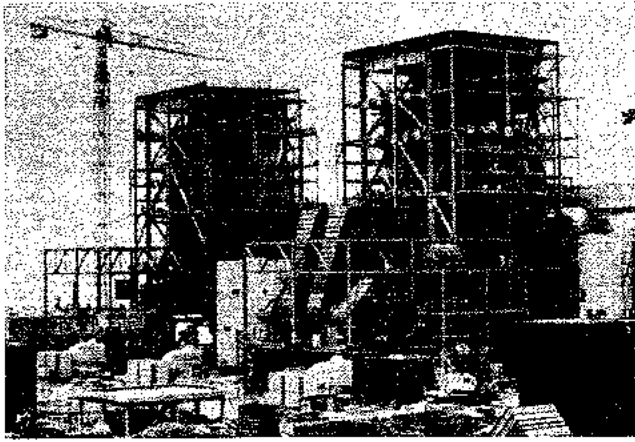
② 居住家口數別 住宅數

○1家口住宅의 比率이 下落하고 있음

(單位：千戶·%)

家口數	年度	'70	'75
1家口		3,470 (79.6)	3,578 (75.6)
2 "		575 (13.2)	717 (15.1)
3 "		193 (4.4)	259 (5.5)
4 " 以上		121 (2.8)	180 (3.8)
計		4,359 (100)	4,734 (100)

資料：人口 및 住宅 CENSUS ('70, '75)



(㉔) 住宅價格 및 住居費 負擔 現況

① 住宅價格

○住宅 및 住宅價格의 上昇率이 家口所得 增加率 上廻

(1965=100)

年 度	家口所得指數	住宅價格指數	宅地價格指數
1965	100	100	100
1970	287	379	656
1975	919	1,108	2,009
1976	1,233	1,414	2,707
1977	1,540	1,759	3,472
1978	2,004	3,055	7,895
年平均增加率 (%)	25.9	30.1	39.9

資料：韓國住宅銀行

② 住宅賃借料

○賃貸料 上昇率이 物價指數를 上廻

年 度	집 세 지 수		消費者物價指數	
	全都市	서울	全都市	서울
1975	100.0	100.0	100.0	100.0
1976	113.9	116.5	115.3	115.4
1977	130.8	137.1	127.0	127.2
1978	162.3	159.5	145.3	145.5
1979	218.9	232.5	185.8	185.1
年平均增加率 (%)	21.6	23.5	16.8	16.6

資料：韓國統計月報

③ 住居費 支出

○都市와 農村 共히 消費支出에 對한 住居費 支出 比率 增大

(單位：%)

	都 市 家 口			農 家		
	食料品費	住居費	被服費	食料品費	住居費	被服費
73	41.3	19.2	9.1	47.3	6.6	7.4
74	43.3	18.5	8.4	48.4	7.5	7.1
75	43.6	17.5	8.7	47.3	7.0	7.2
76	43.0	18.0	9.0	45.7	7.6	6.9
77	42.1	20.3	9.3	42.8	7.9	7.2
78	41.1	21.4	9.9	38.3	8.6	7.0
79	35.7	24.5	9.9	37.8	8.2	6.7

資料：韓國統計月報 1980. 3

(㉔) 宅地現況

① 都市計劃區域 現況

(79. 12末現在)

区 分		面積 (km ²)	構 成 比
全 國 土		98,966.8	100
計		8,154.95	8.2 (100.0)
都 市 計 劃 區 域	住 居 地	1,214.77	(14.9)
	住 商 業 地	100.21	(1.3)
	工 業 地	352.92	(4.4)
	綠 地	5,927.60	(72.4)
公 園		559.45	(7.0)

註：() 內는 都市計劃區域에 對한 構成比임.

資料：建設部 國土計劃 主要 資料表

② 住居地域內 集團宅地 開發可能地 現況(40個市)

区 分	面 積 (千坪)
計	55,256
3 ~ 10千坪	2,515
10 ~ 50千坪	15,525
50 ~ 300 "	30,180
300以上	7,036

資料：韓國土地開發公社 1980 調查

③ 住宅投資

○GNP에 對한 住宅投資率이 低水準임

区分 年度	住宅建設戶數 (千戶)	投 資 額 (10億원)	對GNP投資 率 (%)	備 考 (外國의 投資率)
75	180.0	445.0	4.5	日本：7.8('75)
76	170.0	453.6	3.4	美國：3.3('75)
77	203.5	723.3	4.3	英國：3.9('76)
78	300.1	1,363.1	6.0	西德：5.9('77)
79	251.0	1,518.9	5.1	
80	211.5	1,695.8	4.8	
(推定)				

資料：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2) 問題點

(㉔) 住宅不足難 深化

- 住宅投資의 低水準
- 過度한 住宅 減失 및 他用途로의 轉換
- 宅地不足
- 景氣依存型 住宅建設
- 急激한 核家族化 및 都市人口 集中

(㉔) 自家所有 可能性 低下



- 住宅價格의 急上昇
- 購買力의 相對的 低下
- (㉔) 賃借家口의 住居 不安定
 - 賃貸料의 急上昇
 - 借家 保護에 對한 制度 未備
- (㉕) 住居水準의 不良
 - 住居의 過密
 - 住居 環境 및 公共便益 施設未洽
- (㉖) 住宅으로 因한 社會問題 發生
 - 投機所得의 發生
 - 住居狀態의 不均衡
- (㉗) 住宅建設 技術開發의 不振
 - 工法開發 研究의 不振
 - 規格資材 生産의 不振
 - 資源節約的 住宅開發의 研究不振

나. 第5次 5個年計劃

(1) 基本方向

- (㉔) 住居生活의 安定
 - 公共部門의 役割 增大
 - 내 집 마련 機會의 擴大
 - 賃借家口의 保護
- (㉕) 住居環境의 改善
 - 公共施設의 完備
 - 生活便益施設의 適正化
- (㉖) 住居水準의 向上
 - 過密住居의 緩和
- (㉗) 住宅價格의 安定
 - 宅地 및 建築資材의 低廉化
 - 住宅 流通秩序의 確立 및 投機의 抑制

(2) 計劃의 目標

(㉔) 前提指標

區 分	增加率	'81	'86
人 口 數	1.56%	38,723千名	41,839千名
家 口	2.90%	7,544千戶	8,686千戶
G N P	7.25%	371,320億원	533,090億원
住宅減失	1.0 %	54千戶	66千戶

(㉕) 目 標

- 住宅建設 戶數: 1,460千戶
 - 新設建設 1,154千戶
 - 代替建設 306千戶
- 住宅普及率: 75.0%('81) → 78.4%('86)
- 1人當建坪: 2.89坪('81) → 3.36坪('86)

(3) 制約要因

(㉔) 投資財源

- 住宅金融制度의 未備와 政府財政의 未洽
- 財源配分面에 있어서의 他部門과의 競合

(㉕) 資 材

- 天然骨材(모래, 자갈등) 不足難 深化

(㉖) 人 力

- 技術 및 技能人力 不足
- 他部門建設(海外建設 包含) 人力 需要와 競合

(㉗) 宅 地

- 可用國土 面積의 狹小-限定된 住居面積
- 低廉宅地 不足

(㉘) 住宅에 對한 國民意識

- 財産增殖手段으로서 不動産에 對한 지나친 所有慾求
- 인플레이 心理의 慢性化

(4) 政策課題 및 手段

(㉔) 公共住宅建設 供給 擴大

① 公共住宅資金 調達 擴大

- 財政投資의 擴大
 - '86까지 一般財政의 2%까지 提高
- 各種 年金基金의 住宅投資 擴大
 - 國民福祉年金
 - 公務員年金
 - 私立學校 敎員年金 等
- 市中銀行 貯蓄性預金 및 保險資金의 住宅投資 誘導

② 公共住宅資金의 安定的 供給

- 國民住宅基金의 設置
- D/C 規制 適用 除外

③ 公共住宅 融資制度의 改善

- 融資額의 擴大
- 償還條件의 改善(年利 15%以下 通增式 償還方法 採択)

④ 公共住宅 貯蓄制度의 改善

- 低所得家口의 長期住宅貯蓄誘導

(㉕) 民間部門의 住宅建設促進

① 住宅金融制度의 開發

- 住宅銀行의 長期住宅融資制度 繼續存置
- 市中銀行 中期性 住宅融資制度 設置

② 宅地의 供給

- 公共部門에 依한 宅地의 安定的 供給

③ 稅制의 合理化

- 住宅建設事業者에 對한 租稅減免
 - 住宅建設用宅地의 取得 保有段階
 - 住宅의 建設 및 分讓段階
- 實需要宅地·住宅의 去來에 對한 租稅減免
 - 一定規模以下의 住宅 및 宅地의 取得, 保有, 讓渡 段階

(㉖) 住居環境의 改善

① 集團宅地의 立地

- 計劃期間의 初半: 都市生活圈과의 連結(職住近接)
- 計劃期間의 後半: 地方拠点 都市의 開發(國土均

衡發展)

② 單位生活圈의 造成

○單位住区内에 모든 公共施設 및 生活便益 施設提供

- 公共施設: 上下水道, 學校, 同·派出所等
- 生活便益施設: 商街, 어린이 놀이터, 幼兒教育施設 等

○綠地空間의 最大限 確保

○都市計劃: 아파트 地區開發 基本計劃에 依하여 合理的으로 策定

③ 住宅配置의 効率化

○土地利用의 增進

○大小型 住宅의 混合配置

④ 既存不良 住居地의 環境改善

○上下水道 普及擴大

○衛生施設의 改善促進

(㉞) 住宅價格의 安定化

① 宅地供給의 擴大

○公共部門에 의한 大量開發·安定的 供給

② 建築費 節減

○工法開發의 積極 推進

- Turnkey Base 入札方式의 適用으로 民間部門의 工法 開發 促進

○部資材의 規格生産 促進 및 需要의 安定化 誘導

○工業化 住宅으로의 轉換 推進

③ 住宅流通 體制의 整備

○不動產 去來 情報의 大衆化

○住宅 紹介業者의 資質向上

- 資格制 營業許可制

④ 不動產 投機防止를 위한 體系의 確立

○不動產 景氣予告 System의 開發 檢討

- 投機予想 地域에 對한 監視 強化

公共住宅에 對한 投機防止

- 一定期間 轉賣制限 및 事業主體의 還買權 留保

(㉟) 賃貸住宅의 供給 促進

① 公共部門

○低所得層을 위한 賃貸住宅의 建設, 漸次的 擴大 供給

② 民間部門(賃貸住宅 產業으로 誘導)

㉞ 單獨住宅의 多住居 單位化

○賃貸住宅의 陽性化

- 稅制 補完

○賃借家口의 單位生活空間의 確保

- 多住居 住宅構造의 基準設置

㉟ 賃貸住宅의 供給促進 및 企業化 誘導

○賃貸住宅取得 및 保有에 對한 稅制의 合理化

○金融支援

(㊱) 住宅在庫의 效率의 活用

① 既存住宅의 保存利用

○多住居單位 住宅으로의 改良 誘導

② 過度한 住宅減失防止

○都市 住宅再開發 事業의 合理的 調整

○農村住宅 改良事業의 合理的 調整

(㊲) 資源 節約的 住宅의 開發

① 土地, 資材, 에너지의 節約

② 一定規模 以上의 住宅建設 抑制

③ 建蔽率의 上·下限制 適用

(㊳) 共同住宅管理의 合理化

① 共同住宅維持 管理의 強化

○管理主體의 施設, 技術要件 強化

○自體管理住宅에 對한 監督強化

○施設物 補修費用(特別修繕充當金 等)의 積立義務 強化

② 住宅管理費의 適正化

(5) 住宅建設 및 投資計劃

(㉞) 住宅關聯 指標(展望)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年平均 增加率 (%)
(1) 人口(千人)	38,723	39,331	39,951	40,578	41,209	41,839	1.56
都市 ¹⁾	26,020	26,902	27,805	28,688	29,588	30,500	3.23
農村	12,703	12,429	12,146	11,890	11,621	11,339	-2.25
(2) 住宅供給對象人口(千戸)	7,544	7,762	7,988	8,220	8,458	8,705	2.9
都市	5,355	5,617	5,886	6,160	6,440	6,726	4.73
農村	2,189	2,145	2,102	2,060	2,018	1,979	-2.0
(3) 國民總生産 ²⁾ (10億圓)	37,132	39,917	42,911	46,129	49,589	53,309	7.5
(4) 總固定資本形成 ²⁾ (10億圓)	12,191	13,170	14,211	15,526	16,916	18,398	8.6

註 1) 都市는 市外 人口 2萬以上 邑 人口임.

2) 經濟企劃院 推定 1980年 不變價格

3) 都市人口/總人口

(㉞) 總括計劃

年度	81	82	83	84	85	86	82-86 計
區分							
家 口 數 ¹⁾							
(千 家)	7,540	7,756	7,979	8,208	8,444	8,686	
都 市	5,085	5,327	5,576	5,831	6,093	6,360	
農 村	2,455	2,429	2,403	2,377	2,351	2,326	
住宅數(千戸)	5,659	5,872	6,093	6,322	6,559	6,813	
都 市	3,254	3,488	3,730	3,979	4,274	4,759	
農 村	2,405	2,384	2,363	2,342	2,285	2,054	
建設戸數(千戸)	250	270	280	290	300	320	1,460
都 市	226	246	256	266	277	297	1,342
農 村	24	24	24	24	23	23	118
代替數(千戸) ²⁾	55	57	59	61	63	66	306
都 市	31	33	35	37	40	43	188
農 村	24	24	24	24	23	23	118
普及率 ³⁾ (%)	75.0	75.7	76.3	77.0	77.6	78.4	
都 市	63.9	65.5	66.9	68.2	73.4	74.8	
農 村	98.0	98.1	98.3	98.5	98.7	98.9	

註 1) 住宅供給對象 家口임 (年平均 增加率 2.9%를 基準으로 산출)

2) 前年度 住宅数의 1%

3) 住宅数/家口数

(㉞) 主体別・地域別 建設計劃

(單位：千戸)

年度	81	82	83	84	85	86	82-86計
区分							
總建設戸数	250	270	280	290	300	320	1,460
(1) 主体別 1)							
公 共	80	100	110	110	120	130	570
民 間	170	170	170	180	180	190	890
(2) 地域別							
都 市	226	246	256	266	277	297	1,342
農 村	24	24	24	24	23	23	118

註 1) 公共部門의 供給比率 32%에서 41%로 漸次增大

(㉟) 投資計劃 ('80不變價格)

(建設戸数/ 資金) (單位：億圓)

	81	82	83	84	85	86	82-86計
G. N. P (A)	371,320	399,170	429,110	461,290	495,870	533,090	2,318,530
新 要 資 金							
公 共	80	100	110	110	120	130	570
	6,165	8,382	9,964	10,708	12,492	14,412	55,958
民 間	170	170	170	180	180	190	890
	25,160	26,418	28,934	30,636	31,968	35,150	153,106
計 (B)	250	270	280	290	300	320	1,460
	31,325	34,800	38,898	41,344	44,460	49,562	209,064
対 GNP 率 (B × 0.649)A	5.47	5.66	5.88	5.82	5.82	6.03	5.85

註：1) 坪当 住宅價格 (80年基準)

(㊱) 公共部門 財源調達計劃 ('80不變價格)

(單位：億圓)

区 分	年 度	'82	'83	'84	'85	'86	'83-'86計	備 考
所 要 資 金		8,382	9,964	10,708	12,492	14,412	55,958	坪当價格 (80基準) 676 千圓
調 達 内 訳	入 住 者 負 擔	4,191	4,982	5,354	6,246	7,206	27,979	○住宅價格의 50%水準 ○1人当 月50千圓貯蓄 入住2年前：住宅建設 戸数의 50% 貯蓄 入住3年前：住宅建設 戸数의 30% 貯蓄 入住4年前：住宅建設 戸数의 10% 貯蓄
	入 住 者 貯 蓄	339	142	35	83	87	746	
	入 住 者 償 還	-	5	15	29	49	98	○1年据置 19年遞増式 償還 年15%
	国民住宅債券資金	1,346	1,413	1,484	1,558	1,636	7,437	○年平均 増加率 5% 前提
	住宅福券資金	45	47	50	52	55	249	○年平均 増加率 5% 前提
	財 政	1,545	1,771	2,142	2,431	2,747	10,636	○一般會計予算의 1.5%~2.0%
	(中央)	(1,216)	(1,394)	(1,686)	(1,913)	(2,165)	(8,374)	
	(地方)	(329)	(377)	(456)	(518)	(582)	(2,262)	
	借 款	325	325	325	325	325	1,625	○年5千万弗導入 假定 換率@ W 650-(80)
	其 他	591	1,279	1,243	1,768	2,307	7,188	○各種年金基金等

※ 財政部門計劃上 (中間案) 中央財政의 住宅投資規模 6,388億圓으로 縮小調整

註：1) 坪当 住宅價格 (80年基準)

○公共：676千圓 (住公, 서울시의 分譲價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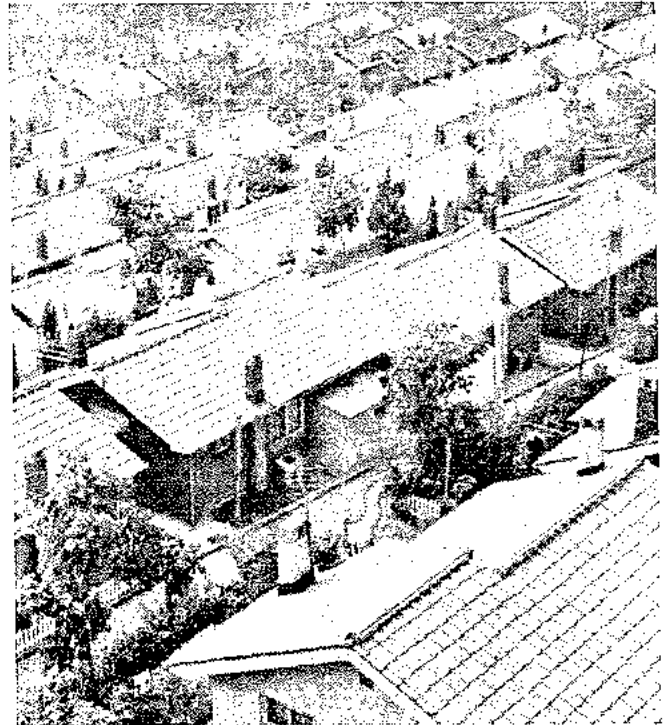
○民間：740千圓 (公共의 1.1倍)

2) 戸当 住宅規模 ('81基準)

○公共：11.4坪-

○民間：20 坪- 毎年 1坪씩 増加 前提

3) 住宅價格中 平均建築費比率：64.9%



2. 土地部門

가. 現況 및 問題點

(1) 現況

(가) 全國土地利用

○林野·農地가 大部分이고 宅地는 1.7%에 不過

(單位: km², %)

	'76	'77	'78	'79
總面積	98,799.1 (100)	98,858.6 (100)	95,954.5 (100)	98,966.8 (100)
農耕地	22,143.9 (22.4)	22,174.2 (22.4)	22,113.3 (22.4)	22,078.4 (22.3)
林野	65,660.2 (66.5)	65,942.4 (66.7)	66,108.8 (66.8)	66,076.8 (66.8)
宅地	1,760.0 (1.8)	1,749.9 (1.8)	1,717.4 (1.7)	1,704.0 (1.7)
公共及其他	9,235 (9.3)	8,992.1 (9.1)	9,015.0 (9.1)	9,107.6 (9.2)

○資料: 經濟企劃院行政統計(1980)

(나) 地價上昇趨勢

○全部市平均地價는 繼續上昇

○79以前 地價의 上昇幅이 物價의 上昇幅을 上廻

區分 \ 年度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年平均增加率
大都會地價指數	100	121.04	177.53	317.92	387.74	453.73	37.15
서울 "	100	116.06	152.85	360.24	383.30	434.74	40.65
都府物價指數	100	112.1	122.2	136.5	162.1	225.2	18.10
消費者物價指數	100	115.3	127.0	145.3	171.9	221.3	17.48

資料: 經濟企劃院, 建設部, 韓國銀行

(2) 問題點

- 1) 用地不足
- 2) 地價上昇
- 3) 去來秩序의 紊亂과 土地投機
- 4) 土地의 寡點과 遊休
- 5) 土地稅制의 非現實性
- 6) 開發利益과 負擔의 不公平

나. 政策目標

- (1) 國土利用의 公共性 提高
- (2) 土地資源利用의 效率化

다. 政策課題 및 手段

(1) 土地基本需要의 充足

(가) 計劃에 의한 土地開發供給

- 長期土地需給計劃의 樹立
- 既開發土地의 遊休·浪費 및 投機防止

(나) 國公有地 保有量의 擴大

- 國公有地 売却抑制
- 先買制 등 活用으로 保有量의 增大

(다) 土地의 公共調達供給機能의 強化

- 韓國土地開發公社 등의 土地의 大量 買入·開發·供給機能 強化

(2) 土地開發方法의 合理化

- 土地利用의 高度化·複合化를 위한 開發方法의 講究

(2) 地價安定의 制度化

- 基準地價告示의 全國化로 地價暴騰抑制

(3) 土地所有·利用·去來秩序의 公正化

(가) 土地所有 秩序

- 土地의 實需要者 所有誘導
- 建蔽率의 調整

(나) 土地利用 秩序

- 土地利用計劃의 早速樹立
- 國土利用法律體系의 整備
- 遊休地 등 土地에 대한 利用促進

(다) 土地去來 秩序

- 土地去來許可制 및 申告制의 彈力的 運營
- 土地仲介業者에 대한 資格制·營業許可制 實施
- 土地去來行爲에 따른 損害賠償·保證制 導入檢討

(라) 土地管理 秩序

- 地籍·登記業務의 一元化 및 機構의 整備
- 土地情報시스템(電算化)의 推進

(4) 利益과 負擔의 衡平化

- 開發利益의 還収方案 등 制度化

(5) 土地評價制 및 地稅의 合理化

(가) 地價評價制度의 改善

- ① 政府地價評價制度의 一元化 方案 檢討 推進
- ② 地價評價機關의 專門化와 機構의 整備
- ③ 地價評價技法의 統一化 講究

(나) 公益事業에 協助한 土地所有者의 稅制上의 不利益 除去

宅地開發計劃

(單位: 千坪·億圓)

區分	'82	'83	'84	'85	'86	合計
小計	面積 16,100	16,350	17,150	17,400	18,450	85,450
	金額 15,580	15,778	16,578	16,776	17,774	82,486
公共部門	面積 6,500	7,150	7,150	7,800	8,450	37,050
	金額 5,980	6,578	6,578	7,176	7,774	34,086
民間部門	面積 9,600	9,200	10,000	9,600	10,000	48,400
	金額 9,600	9,200	10,000	9,600	10,000	48,400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實施

- 低廉한 國民住宅用地의 大量供給(一般宅地는 公開發分讓)

- 土地의 全量買収로 大單位 住宅地 造成事業 施行(土地區劃整理事業은 可及的 抑制)

○基盤設施의 建設

- 上·下水道, 道路等의 建設
- 商街, 公園, 學校用 敷地의 適正確保
- 宅地開發 基本計劃 樹立時에 反映

○行政所要節次의 簡素化

건설업 및 주요 경제지표

產 業			雇傭 및 賃金			經濟成長 및 景氣				年 月		
建 設 業		機 械 受注額	서울 4) 都小賣 額指數	製造業 就業者	失業率	賃金 5)	經 濟 成長率	景氣豫 告指標	先行景 氣綜合 指數 6)		綜合株 價指數	
建築許可延面積	國內建設											
住宅	受注額											
1,000m ²	10억 원	1975=100	1,000	%	원	—					1975 =100	
17,985	9,494	519.0	—	123.1	2,678	3.9	51,685	15.1	1.7	113.0	146.3	1976
30,818	17,516	1,655.4	—	196.8	3,016	3.2	92,907	11.6	1.8	140.4	202.8	1978
27,505	14,737	2,195.3	1,778	228.6	3,126	3.8	119,515	6.4	1.2	142.8	172.2	1979
25,728	14,740	2,062.3	2,370	268.2	2,972	5.2	146,684	-6.2	0.5	140.5	145.0	1980
..	..	..	..	..	..	..	..	p7.1	..	..	171.4	1981
1,388	681	246.8	406	328.3	3,008	6.3	193,993	- p10.3	0.6	142.8	136.9	12 1980
843	305	140.7	250	313.7			156,005		0.6	144.0	138.5	1 1981
1,041	477	194.8	185	301.8			152,065		0.7	145.0	140.7	2
1,932	1,096	284.8	249	347.6	2,850	5.6	156,692	p1.1	0.7	146.1	141.3	3
2,481	1,347	330.1	263	355.5			159,280		0.8	148.1	155.5	4
2,370	1,224	317.8	274	354.5			161,668		0.9	149.5	169.4	5
1,923	944	289.5	516	343.3	2,804	3.9	188,485	p3.5	1.0	150.7	191.9	6
1,634	780	217.1	143	332.5			180,943		1.0	152.2	210.2	7
1,700	900	193.4	216	345.5			174,240		1.1	151.2	194.6	8
2,048	988	286.9	183	358.4	2,852	4.1	204,839	p6.2	1.1	149.7	189.2	9
1,837	984	246.8	246	363.0			170,605		1.0	149.7	178.4	10
1,492	640	270.8	p184	371.9			..		0.9	150.5	172.5	11
..	..	..	..	..	..	..	..	..	..	..	175.1	12

圖書案内

· 建築法規解説 · 建築關係問題集

圖書出版 世進社

서울特別市 城北區 普門洞 7 街22-13

TEL. 92-3422-7223

建築法規解説書の 最高峰!!

'82年 改正新版

建築法規解説

漢陽大教授 田耕培 共著
서울市立大教授 崔瑒煥 共著

法條文 하나하나에 자세한 解説과 이에 聯關되는 他 法規를 함께 挿入 解説하여 實務建築人들의 現場用으로 或은 建築徒들의 教材로서 非常 廣範圍하게 法規全般을 다루었고 특히 各 條項말미에 重要內容을 익힐 問題로 出題해 물어보도록 誘導 하였으며 또한 改正된 建築關係法規全部를 全文收錄하여 더욱 理解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新菊版 · 洋裝 [普及特價 8000원]

建築關係法規問題集

田耕培 · 崔瑒煥 · 尹忠烈 共著 (菊版 · 290面 定價 3,800원)

建築計劃問題研究

黃在雄 · 金聖培 共著 (菊版 · 492面 定價 4,800원)

建築構造解説

李正熙 著 (菊版 · 440面 定價 4,500원)

建築設備問題集

朴佑根 著 (菊版 · 347面 定價 3,800원)

綜合建築技師問題集

조도연의 6인 共著 (菊版 · 540面 定價 6,500원)

建築計劃 · 設計 · 設備問題集

崔俊植 著 (菊版 · 492面 定價 3,500원)

⇒ 全國有名書店 販賣中!!



空間의 生命(Ⅱ)

靑실 紅실

太極의 旋回가 시작된다.

生成의 源泉에서
無限造形의 時間帶를
指向하는 물은

線形따라 前進하며
親和하는구나.

點이 線을 낳고
線이 面을 낳고

點·線·面은
形과 像의 소용돌이 속에서
멤돈다.

像과 像의 만남에서
빛의 길이 트이고
이 길따라 初生花가 반겨준다.

이 線形따라
明滅하는 空間에는
能動態와 受動態가
雙曲線을 그리며
서서히 有機像으로
轉化해 가는구나.

線描에 의한 線形과
噴霧에 의한 浸透가
霧散하는 流線像은

無限次元의 幻像으로
發展한다.

美와 術의
統一과 調和를 위해

創意가 싹트는
發意의 순간을 붙들자.

여기엔 오직
生命의 源泉적인
꿈틀거림이 있을 뿐.

心象 朴商浩

新 入 会 員

□ 金台宗 / 경북 / 34. 5. 31일생
/ 영남공대 / 교우건축합동설계사
무소 / 종로구정전동 285-1 / 면허
1810 / 합동 68 / T. 722-1146



□ 崔廣默 / 충남 / 38. 10. 19일생
/ 대전공고건축과 / 동서 건축 설계
사무소 / 제천시 중앙동 74-20 / 단
독 11 / T. 2-8229



□ 金鎮求 / 서울 / 44. 5. 15일생
/ 서울공대 / 정건축종합사무소/중
구중무로2가 60-3 / 면허 / 2260 /
종합 7 / T. 776-6326



□ 姜永昌 / 충남 / 45. 2. 14일생
/ 한양대건축공학과 / 대전시 동구
용전동 168의 3 / 강건축기술연구소
/ 단독 27 / T. 22-1161



□ 朴賢培 / 충남 / 45. 8. 29일생
/ 대전공고건축과 / 피. 엘. 건축합
동연구소 / 대전시 대흥동 233-1
/ 합동 22 / T. 22-6107



□ 徐鎮宇 / 대구 / 46. 8. 29일생
/ 인하대건축과 / 하나건축연구소/
종로구 신문로1가 171-6 / 합동 중
로 3호 / T. 722-0929



□ 尹承錄 / 경남 / 47. 3. 27일생
/ 울산공고/웅진건축설계사무소/
종로구 정전동 285-1 / 단독 종로
3호 / T. 725-4721



□ 林鍾賢 / 서울 / 48. 2. 13일생
/ 경기공전 / (주) 완중합건축 / 강
남구반포동 105-1 / 면허 1622 / 중
합 4 / T. 562-5001



□ 金性東 / 서울 / 48. 12. 28일생
/ 홍익대학 / 아림건축설계연구소/
서대문구대신동 35-3 / 면허 2007/
단독서대문 2 / T. 323-9442



□ 李喆圭 / 충남 / 49. 3. 3일생
/ 대전공고건축과 / 이은규·이절규
건축설계사무소 / 대전시 중구 대
흥동 469-3 / T. 22-7703



□ 崔漢鎭 / 전남 / 49. 4. 23일생
/ 조선대건축과 / 덕남건축연구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6-
1 / 합영 2 / T. 634-2765



□ 黃德淵 / 충남 / 49. 12. 29일생
/ 광성공고 / 상아건축설계사무소/
부산시중구중앙동 3가 12-5 / 면허
2274 / 합동 69 / T. 44-6393



□ 李興煥 / 부산 / 51. 2. 5일생
/ 부산성지공고/한건축사사무소/
부산시 진구 부전동 232-44 / 단독
부산 82호 / T. 642-5595



□ 鄭逕來 / 전남 / 51. 7. 3일생 /
조선대병설공전 / 중앙, 한남건축설
계사무소 / 광주시 동구 중창로 1가
22-2, 3 / 면허 2240 / 합동 45 / T.
2-7977



会員動靜

부산지부 : 강석근회원 / 국
제건축연구소 / 사부소이전
/ 중구 동광동 1가 11-2 / 22-4008 /
△최경은회원 / 락희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진구 부전동 402-5 / 상호변경 /
89-3470

□ 대구지부 : 김성일 · 도원호회원 /
상호변경 / 대원건축설계사무소 / 대구
시중구동인 2가 125-1 / 45-7565 / △
김화자회원 / 세명건축설계사무소 / 대

구시중구수동 22 / 23-9579 / △서보광
회원 / 동성건축설계연구소 / 대구시중
구계산동 2가 71 / 252-8666 / △박상정
회원 / 연합건축 / 대구시중구동인동 1
가 238-1 / △김두영회원 / 연합건축 /
대구시중구동인동 1가 / 44-6727 / △이
성희회원 / 대아건축 / 대구시중구공평동
11-3 / 44-6550 / △서정남회원 / 정
우건축 / 대구시중구공평동 70-3 / 44-
1515

□경기지부: 문동석회원 / 문양건축 / 안양시안양동524~14/2-2916 / △임용수회원 / 한성종합 / 남양주군구리읍읍문리206~1 / 2-2362/△박로진회원 / 원진종합 / 남양주군구리읍수택리460~3 / 2-2304/△김복경회원 / 한서건축설계사무소 / 김포군김포읍북면리375/ 2-2701/△정은용회원 / 정개풍합동건축 / 수원시교동90~6 / 2-2386/△박용희회원 / "

□전남지부: 홍중식회원 / 미진산진건축 / 2-9805/△정재경회원 / " / " / △선재규 / 민성기회원 / 고려조양건축 / 7-2603/△이현중·조희경회원 / 일진세일합동건축 / 2-6944/△김성추회원 / 가야삼미건축 / 55-8055/△정병문회원 / 반도건축 / 33-6456/△고재선회원 / 중앙한남건축 / 2-7977/△박태형회원 / 예일국도건축 / 7-0518/△현준철회원 / 세광건축 / 2-8850

□경북지부: 이가오회원 / 울진설계 / 2792/△박태윤회원 / 신진건축 / 43-06/△김남수회원 / 공명건축 / 46-7572/△이진화회원 / 경희건축 / 44-1785/△김규열회원 / 동광건축 / 44-6644/△이상렬회원 / 동인건축 / 44-8098/동인동2가52~4/△임팔암회원 / " / " / △임윤상회원 / " / " / △김태욱회원 / 대구동광건축 / 44-9056

□제주지부: 박진후회원 / 제주시2도1동1787-3

□충북지부: 한광희회원 / 면허1924 / 충북종합5 / 가산종합건축설계사무소 / 충북충주시봉방동15-2

□서울지부: 김동윤회원 / 한남건축 / 강남구청담동67-2 / 합동252

□경기지부: 박중화회원 / 현대종합 / 수원시교동65-3 / 2-4333 / 종합31

□서울지부: 김태환회원 / 정진건축 / 81. 12. 14일~82. 3. 13일까지 □사윤창회원 / 청화건축 / 81. 12. 14일~82. 6. 13일까지 □홍광철회원 / 동우합동 / 81. 12. 7일~82. 3. 16일까지 □한중권회원 / 삼주종합 / 81. 12. 31일~82. 3. 30일까지 □허경희회원 / 성일, 동화건축 / 82. 1. 12일~7. 11일까지

□최태환회원 / 주·산건축 / 82. 1. 1일~6. 30일까지 □서울지부: 이결토회원 / 정건축 / 1. 26일 △권영세회원 / 한남건축 / 1. 12일 □협회: 이상윤 (본부출판사업부장겸직) △이재화 (경북사무국장 승진) △최금규 (본부기획조사실 서무) △김홍업 (대구직할시사

무국장) △이경석 (대구직할시 총무담당) △김병열 (대구직할시 서무) △박금숙 (대구직할시 사환) □신규직원: △조영은 (본부총무부장) △최경호 (본부출판사업부) △김병기 (본부출판사업부)

"축하합니다" □서울지부: 김훈배회원차녀 / 82. 1. 14일13시 / YWCA 강당

□부산지부: 이규대회원영식 / 1. 14일12시 / 동대청기와에식장1층 / △방진권회원영식 / 1. 19일13시 / 행복에식장3층홍실

□경북지부: 손재수지부장장남 / 1. 13일 / 경주동광에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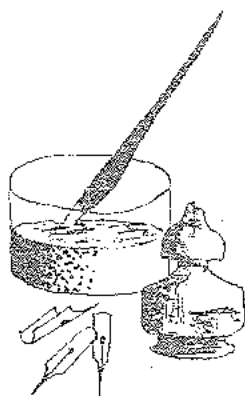
□대구지부: 하재호회원영애전혼 / 2. 12일

"만수무강을 뵙니다" □대구지부: 박재우회원모친회갑연이 지난 1월30일에 있었습니다.

"쾌유를 뵙니다" □서울지부: 이종완회원입원 / 81. 12. 15일 / 화성한의원 △김희봉회원입원 / 12. 19일 / 서울대학병원 △이도승회원입원 / 12. 26일부터 1. 11일 / 성마로병원

"명복을 뵙니다" □서울지부: 한기훈회원부친별세 / 1월30일발인 △이기만회원 / 1월26일별세

◆編輯後記◆



□잡자는 건축경기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당국의 처방이 새해들어 간단없이 내려지고 있다.

진 동면의 나락에서 기지개 켜며 일어서는 건축경기를立春 날에 생각한다.〈用〉

□誤字가 없을 때면 덜컥 겁이 난다. 안일하고 자만에 빠지기 쉬운 마음의 여윌을 알기 때문일까. 誤字가 주는 채찍, 그것은 바로 내일에 있을 회열이기에 반갑다.〈京〉

□글자 하나하나에 온갖 신경을 써도 매년 발견되는 오자, 허탈감 이전에 글자가 주는 마력으로 하여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앞으로는 더욱 깨끗한 "建築士"지가 되אל테데……〈宙〉

□예고된 강연의 테마가 보이고 사진이 찍힌 포스터를 본다. 그러나 웬지 손에 든 노트는 생소하기만 하다. 조심스레 노트를 펼치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속고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란 쉬운 작업이 아닌 것 같다. 손조물지 못한 진행 속에서 다소 불안한 것임도 알고 있다. 새롭게 표현하고픈 바램이 아쉬운 반면, 하나의 의식때문에 전체의 조화와 질서에 무리한 부분이 있을까 걱정스럽다.〈基〉

□지난 1월호에 실린 한국의 전통건축시리즈 가운데 제일먼저 소개된 "장호"부분은 고려대학교 주남철교수님의 글과 사진을 옮긴 것이다. 급한 마음에 사진 양해를 얻지 못하고 옮겨 죄스러움을 이에 적는다.